위민헌신으로 수놓아진 불멸의 려정 2024년

2025년

차 례

머 리 말 8

1. 그 어떤 난국도 과감히 딛고 기적을 떠올리는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증대시키시려 12

1)공화국의 절대적위세, 공화국특유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더욱 승화시키시려 12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시며 12

학생소년들의 2024년 설맞이공연도 보아주시며 14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에 참석하시여 15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에 참석하시여 20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며 23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과 성대한 준공행사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군인건설자들과 설계일군들,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25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연회에 참석하시여 26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며 27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며 28

2)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사에 전례없는 기록을 새기시며 30

(1)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30

농기계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며 30

새로 일떠세운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31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시여 33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36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38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새 살림집을 받은 근로자들을 축복해주시며 40

문명부강한 공화국의 미래상이 응축된 청춘대기념비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42

삼지연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46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49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된 주요봉사망들을 돌아보시며 51

(2)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안겨주시려 53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현장을 돌아보시며 5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지도 56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에 참석하시여 59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여 63

몸소 숙소에 나오시여 수재민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며 68

평안북도 큰물피해복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70

자강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며 72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나오시여 75

3) 새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려 83

(1) 당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끊임없이 제고하시며 8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회의를 지도하시며 8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며 84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며 8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며 90

(2)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천추만대로 이어나가시려 105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105

완공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현지지도하시며 106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107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서 뜻깊은 기념사를 하시며 113

4) 국가주권활동과 인민주권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전진을 위하여 1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 참석하시여 119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며 120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축하하시고 국가사업방향에 관한 중요연설을 하시며 127

5)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140

(1)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14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0돐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시여 14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0돐 추모음악회를 관람하시며 143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에 즈음하여 144

(2) 혁명동지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145

고 최태복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145

고 김기남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146

고 김기남동지의 장의식장에 나오시여 147

현철해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150

전승절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여 150

위대한 전승 71돐에 즈음하여 전쟁로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여.....151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며..153

2. 지방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명을 개시하시여 155

1) 지방발전의 새로운 리정표-《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시며..... 1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며.....15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며.....157

2) 지방의 획기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앞당기시려 164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며.....164

《지방발전 20×10 정책》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167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169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172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지도.....176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179

평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182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183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185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186

3) 국가건설사에 처음으로 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의 첫 실체들을 일떠세우시고..... 189

지방중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 지방공업혁명의 고귀한 첫 실체 -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여.....189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193

3. 국가방위력의 급진적발전을 위하여 199

1) 국가의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시기 위하여 199

건군절에 즈음하여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여 199

조선인민군창건 76돐 경축연회에 참석하시여 201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중요작전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며 202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며 204

조선인민군 땅크병대련합부대간의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하시며 206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며 209

중요화력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서부지구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을 지도하시며 212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지휘부와 직속
제1땅크장갑보병련대를 시찰하시며 214

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정일**군정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며 217

600㎜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첫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며 221

뜻깊은 4.25명절에 즈음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여 223

제5차 전국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228

600mm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을 지도하시며 230

큰물피해지역 수재민들을 구출하는데서 특출한 무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를 축하방문하시여 231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에 참석하시여 237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며 242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현지료해를 진행하시며 248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하시며 249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며 252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며 255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258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260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시며 261

전략미싸일기지들을 시찰하시며 263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264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268

2) 강력한 자위적국방건설을 위하여 270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270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지도하시며 271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며 273

지상대해상미싸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시며 275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276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용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며 277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278

새로 설립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을 보아주시며 280

갱신형 240mm방사포무기체계를 료해하시고 조종방사포탄시험사격을 보시며 281

중요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며 281

중요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하시며 284

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하시며 284

새로운 유도기술을 도입한 전술탄도미싸일시험사격 참관하시며 285

창립 60돐을 맞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을 축하방문하시고.....286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무인기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290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있는 240mm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보아주시며.....291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며.....292

선박건조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며.....292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시며.....293

새형의 600㎜방사포차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보시며.....295

창립 60돐을 맞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며.....2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시험발사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300

무인항공기술련합체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303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기념연설을 하시며.....304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기념음악회를 관람하시며.....307

4.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시려 .. 309

1) 조로친선의 전면적개화기를 펼치시며 309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고....309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함께 환영공연을 관람하시며.....310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훈장을 수여하시며.....312

뿌찐동지와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313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시며.....314

로씨야련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에 참석하시여 317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고 319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회담하시며 322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해방탑을 찾으시여 3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따뜻이 환송하시며 325

알렉쎄이 크리보루츠꼬 로씨야련방 국방성 부상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만나주시며 327

조국해방 79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여 328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만나주시며 329

로씨야련방 자연부원생태학상 알렉싼드르 꼬즐로브동지를 만나주시며 3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환영하여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시여 331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만나주시며 332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며 334

2)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위하여 335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주시며 335

중국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를 관람하시며 337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여 338

맺 는 말 340

머 리 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2024 년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결정의 운명이 달려있다고도 할수 있는 2023 년의 투쟁에서 공화국은 주체적힘,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예정하였던 5 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 년도를 단순히 경과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쟁취하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실현을 양양하게 떠올린 2023 년의 투쟁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2024 년에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가장 간고하고 준엄했던 시련의 고비들을 과감히 돌파한 자신심을 가지고 더욱 앙양되고 분발된 투쟁으로 2024 년을 새롭고 의의있는 성과들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견인불발의 억센 투지와 노력에 의하여 2024 년에도 당과 국가사업전반에서, 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조국청사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변혁이 또다시 창조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모두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자립, 자력의 기치높이 한해한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전진과 발전을 이룩하여온 조선인민은 2024 년에도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강력한 전진동력으로 틀어쥐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첫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었다.

2024 년.

돌이켜보면 흘러온 시간은 일년 열두달이였어도 수십, 수백년의 숙망을 품어안고 자생자결의 견결한 의지와 백절불굴의 과감한 분투로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조선사람의 기상과 본때가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해온 영웅적투쟁의 한해였다.

정녕 막아서는 시련과 도전, 장애와 난관은 엄혹했어도 2024 년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리상과 포부, 자신심을 더욱 백배하고 전면적발전에로의 용기찬 투쟁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건국사에 특기할 기적과 사변들로 날과 달을 가득 채운 위대한 변혁의 해였다.

한해의 실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변들과 사연들로 엮어진 지나온 려정을 돌이켜보는 조선인민모두가 뜨거운 눈물속에 절감하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나 존엄높고 강대하며 복받은 시대에 살고있는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고있는가 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다.

조선로동당의 근 80 년력사가 다 그러하였지만 2024 년은 불행에 처한 인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속고충까지 헤아려 뜨거운 진정을 기울이였으며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변하고 흥하는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더욱 뚜렷이 부각된 뜻깊은 해였다.

조선인민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그 폭과 심도, 방대함에 있어서 거창하고 뚫고 헤쳐야 할 고난과 역경이 참으로 어렵고 조련치 않았지만 배가된 용기와 분발력을 발휘하여 경이적인 기적과 사변들을 안아올수 있은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향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가 당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명확한 투쟁방략과 전략적인 결단, 드팀없는 집행력으로 극난한 시련속에서도 2024 년을 확대장성된 성과들로 가득찬 변혁의 해, 도약의 해로 전환시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정녕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철주야의 사상리론활동과 위민헌신으로 일관된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위대한 변혁의 새 력사가

아로새겨진 위대한 2024년을 생각할수 없다.

도서 《위민헌신으로 수놓아진 불멸의 려정 2024년》에는 나라의 백년, 천년의 강대함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백년, 천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2024년 온 한해를 그처럼 불같이 재촉하시고 멈춤없이 달려오시며 상상할수 없는 헌신과 로고로 위대한 변혁의 새 력사를 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할 령도실록을 《로동신문》에 실린 자료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1. 그 어떤 난국도 과감히 딛고 기적을 떠올리는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증대시키시려

1)공화국의 절대적위세, 공화국특유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더욱 승화시키시려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시며

송년의 언덕에서 조국력사에 특기할 변혁의 년륜을 아로새긴 긍지스러운 한해를 총화짓고 더욱 거창한 기적과 전변으로 찬란할 래일을 확신하며 커다란 자신심에 넘쳐 새 승리를 앞당겨갈 비상한 분투정신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조선인민의 류다른 감격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2024 년 신년경축대공연이 수도 평양의 5 월 1 일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내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령도와 정치실력으로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을 세기의 단상에 떠올리시고 자존과 자립, 자위로 부국강병하는 력동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영웅성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존엄과 빛나는 영예의 거룩한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손저어 답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향도의 억센 힘으로 천만인민을 애국의 기치아래 단결시키고 조선식사회주의를 전면적인 상승발전에로 강력히 인도해나가는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을 칭송한 시대의 기념비적명곡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송년의 마지막 한초가 신년의 첫 시각으로 이어지는 순간, 1 월 1 일 0 시 제야의 종소리가 숭엄하게 울려퍼지며 경축의 봉화가 점화되고 장쾌한 축포가 수도의 하늘가에 환희롭게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와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올리며 새해인사를 드리였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새해를 맞이한 무한한 행복과 끝없는 격정이 경축행사장에 열광의 격류가 되여 세차게 굽이쳤다.

종곡 《설눈아 내려라》와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의 국기》로 마감한 공연은 위대한 당중앙의 백승의 향도따라 충성과 애국으로 일치단합된 무진한 위세로 강대한 국가의 광휘로운 미래를 앞당겨올 전체 인민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주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던 그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신년경축공연은 온 나라 인민들속에서 거세찬 격정을 일으켰다.

지구상 곳곳에서 전란과 류혈로 신음하고 제국주의반동들의 발악적인 광태로 하여 불안과 우려가 떠날줄 모르는 때에 령도자와 인민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고 위대한 애국의 노래, 혁명의 노래로 지나온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변혁과 성공에로 향한 투쟁의 열망, 더 밝은 미래에 대한 드높은 확신으로 새 출발의 동력을 재우는 이런 화폭을 과연 그 어디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이것은 희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특유의 절대적힘과 영웅적기상의 과시이며 오직 정치와 민심이 완벽한 일치를 이룬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경이로운 예술세계이다.

공연을 통해 승화된 위대한 힘과 필승의 신심을 안고 강국조선은 력사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2024 년의 힘찬 보무를 내짚었다.

학생소년들의 2024년 설맞이공연도 보아주시며

학생소년들의 2024 년 설맞이공연이 1 월 1 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도착하시자 궁전 지도교원들과 학생들이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아버지원수님께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이 담긴 꽃바구니를 삼가 올리였다.

원수님께서는 기량발표회를 하고있는 학생소년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고 자애로운 아버지를 궁전에 모신 감격과 환희가 춤물결되여 설레이는 원무장에서 오래도록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학생소년들이 창안한 과학환상모형들을 보아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두뇌계발과 사유능력을 높여주는데서 원리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에 실지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특출한 미술적재능을 지닌 학생소년들을 만나주신 원수님께서는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보아주시고 화법과 서예솜씨도 치하해주시였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아버지원수님께 드리고싶다는 《꼬마미술가》의 청을 대견해하시면서 그의 두볼을 다독여주시며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의 지덕체자랑을 들어주시고 학습과 소년단생활도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설맞이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정책을 세우시여도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일먼저 세우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기꺼이 따다 안겨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뜨거운 정과 사랑속에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는 학생소년들의 자랑이 뜻깊은 설맞이꽃무대에 펼쳐졌다.

조선혁명의 억년 청청함을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부흥강국의 주인공들답게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높이 강대한 조국을 떠받드는 소년혁명가, 소년애국자로 억세게 자라날 학생소년들의 충성의 결의가 분출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조선의 날과 달들은 아이들의 웃음넘친 기쁨의 세월로 영원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로동당시대의 영원한 주제가로 세세년년 울려퍼질것이라는것을 확언하시면서 학생소년들과 대를 두고 전해갈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에 참석하시여

조국청사에 불멸의 금문자로 새겨진 위대한 전승 7.27 을 성대히 경축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강국조선의 무궁한 영광을 떠올린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며 백절불굴의 전형들인 1950 년대 조국수호자들에게 충심어린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었다.

위대한 조국수호정신과 승리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계승자들의 사명감이 더욱더 승화되는 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 71 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이 2024 년 7 월 27 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인 평양체육관은 진함없는 애국충성과 헌신분투로 만대에 물려줄 귀중한 재부, 조국과 인민의 사상정신적유산을 마련한 전승세대의 긍지와 혁명선배들에 대한 새세대들의 뜨거운 존경의 마음, 전승국의 공민된 전체 참가자들의 크나큰 자부심으로 끓어번지였다.

노래 《우리의 7.27》의 경쾌한 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미제를 타승

한 자랑찬 위훈이 빛나는 훈장과 메달들을 번쩍이며 모임장소에 들어서는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참가자들이 열렬한 박수로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상봉모임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체육관에 도착하시여 당과 정부, 군부의 중요 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해온 전쟁로병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불패의 조선로동당, 강대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전쟁로병들에게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승리의 명절을 맞이한 전국의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가 발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그는 소중한 추억과 크나큰 자부를 안고 전승절을 맞이한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조국수호성전에서 희생된 영웅전사들,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그는 조국의 가장 귀중한 명절에 위대한 력사의 창조자, 체현자들과 뜻깊은 상봉모임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랑이고 새세대들의 행운이라고 하면서 가장 참혹한 전쟁의 년대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꾼 극적인 시대를 아프게만 아니라 영예롭게 추억할수 있다는 사실자체가 우리 세대의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승의 영예가 있기에 우리 국가는 전승국만이 얻을수 있는 특유의 비상한 힘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평범한 나날에는 얻을수 없고 수백수천권의 책으로써도 깨우칠수 없었던 값진 정신적재부를 얻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장장 70 여년을 전화의 그 정신으로 지키고 창조한것이야말로 조선혁명의 긍지높은 전통이고 특징이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예롭게 사수하고 불멸의 영웅정신을 마련해준 1950 년대의 조국수호자들은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진정한 애국자, 열렬한 혁명가의 귀감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의 대축전은 전승을 안아온 세대와 그 승리를 지켜 전쟁 못지 않은, 그보다 더 간고했던 년대들을 전설적인 기적과 비약의 년대들로 전환시키며 수호자의 사명을 다함에 용감해온 계승세대가 함께 받들어올린 영예의 절정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승세대의 정신은 우리를 영원히 강하고 위대한 인민으로 존엄떨치게 하는 불멸의 넋이며 그 줄기찬 계승으로 우리는 더 큰 승리, 더 값진 승리를 쟁취할것이라고 하면서 억년토록 계속될 승리의 력사를 위하여, 무궁할 전승의 조국을 위하여 위대한 넋을 고인 전쟁로병들에게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전승세대의 위훈과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편집물이 방영되였다.

동방일각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일떠선 신생조선에 강요된 전쟁은 조선과 아시아, 나아가 전인류를 노예화하려는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의 강행으로서 100 여년의 침략전쟁사를 가진 오만한 제국주의괴수와의 대결은 창건후 2 년도 못되던 공화국에 있어서 너무도 중과부적인것이였다.

당시 공화국인구의 거의 6 분의 1 에 달하는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살륙당하여 민간인사상자수가 전사한 군인수를 훨씬 릉가한 전대미문의 대중학살전쟁, 야수성과 잔인성, 참혹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동란이 미제가 강요한 조선전쟁의 진상임을 피절은 화폭들은 보여주었다.

적아간의 력량상차이가 대비조차 할수 없었던 전투들에서 총탄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은 보병총에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기적의 모든 힘과 백절불굴의 정신이 장약되여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흘렀다.

참가자들은 결사전, 백병전을 앞두고 수령께 올리는 충성의 맹세를 바위우에 새긴 전사들과 팔다리가 부서지면 턱으로 중기압철을 누르고 수류탄이 떨어지면 가슴으로 불뿜는 적화점을 막은 육탄용사들의 모습, 전대오의 피와 목숨을 고여 고지우에 휘날린 공화국기발을 보면서 전승세대가 지녔던 넋과 정신이 과연 어떤것이였는가를 절감하였다.

불같은 사랑과 서리발치는 증오를 안고 오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에게는 후방도 전선이였고 전선탄원운동, 전시증산경쟁운동, 견인초과운동, 녀성보잡이운동, 다수확운동, 전선원호미헌납운동 등 수많은 전인민적대중운동의 열풍속에 승리의 날은 앞당겨지고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할 고귀한 전통이 마련되였음을 력사적화폭들은 실증하였다.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으로 전쟁을 이끄시고 력사가 알지 못하는 열화의 사랑과 믿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시대의 주인공들로 안아키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이 전승을 안아온 근본비결임을 전체 참가자들은 다시금 새겨안았다.

오늘날 그 어떤 강적도 압승할수 있는 무비의 자위력으로 국권과 국익, 진정한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공화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장면들은 강대한 이 나라에서 전란의 걱정을 모르고 자란 모든이에게 전승을 안아온 력사도 위대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억세게 이어온 계승의 력사는 더욱 거룩함을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만대, 민족만대의 장래를 위해 더욱 확실한 군사적강세를 다져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 충성다해 받들어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백년, 천년으로 이어나갈 철석의 의

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승세대가 처했던 운명적인 시각, 전쟁의 처절했던 나날들을 되새겨본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면서 전승의 7.27 을 안아온 수많은 영웅전사들의 무비의 용맹과 위훈은 조국방선을 지켜선 수호자의 중대한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참혹한 비극으로 끝날번한 운명적인 년대를 가장 긍지높은 년대로 전환시킨 전승세대의 혁명정신, 불멸의 공적과 더불어 공화국혁명무력은 그 어떤 강적도 발밑에 굽어보며 승리를 자신하는 비상한 담력과 힘, 존엄의 체현자로 자라났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공화국의 남쪽국경선너머에서 핵전쟁도발에 발광하고있는 미제와 한국군부깡패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분출시키면서 전쟁시기 적들에게 멸망의 공포를 주고 혁혁한 전과를 올린 근위부대의 무훈과 단 네척의 어뢰정으로 미해군의 중순양함을 격침시켰던 세계해전사의 신화를 백배, 천배의 기적과 승리로 빛내일 의지를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로병들의 필생의 뜻과 당부를 새기고 국권사수, 령토완정과 령해수호의 용맹한 투사가 되며 철저한 전쟁대응능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 지체없이 적을 압도적으로 공격하고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것을 **김정은**동지께와 당과 정부앞에 엄숙히 맹세하였다.

상봉모임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투쟁과 헌신으로 불같이 살며 훌륭한 삶의 자욱을 새긴 전쟁로병들모두가 건강장수하기를 축원하시고 전체 참가자들이 전승국의 공민된 신성한 존엄과 명예를 귀중히 간직하고 전승세대의 넋을 굳건히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며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 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성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꿋꿋이 계승하고 만대

에 빛내이며 전승세대가 념원한 부국강병의 대업을 기어이 성취해나갈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용기, 열정과 투지를 백배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전승 71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에 참석하시여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투쟁행로에 기적의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위대한 7.27 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하고있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공화국의 영광넘친 승리의 명절을 맞고 보내는 조선인민특유의 자부심과 승리전통의 계승성을 과시하며 위대한 전승 71 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2024 년 7 월 27 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거행되였다.

조국과 인민을 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평화를 지켜낸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의 군상이 불멸의 대하로 굽이치게 될 평양체육관광장은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 대한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의식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려퍼지자 종합군악대가 70 여년전 전승의 광장에 차넘쳤던 격정과 환희를 안고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는 률동, 특색있는 기교로 군악례식을 펼치였다.

청소한 신생조선을 이끄시여 오만한 미제의 《상승》의 전통을 치욕과 패배의 전통으로 바꾸어놓으시고 공화국의 자랑찬 국호와 국기를 강국의 정상에 떠올리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이 개시되였다.

수령결사옹위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가렬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를 보위하는 억척의 방탄벽이 되였던 열혈충신들의 전시초상사진을 든 친위중대상징종대가 진두에서 나아갔다.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특출한 기여를 한 공화국혁명무력의 첫 근위부대,

전설적인 근위사단상징종대들이 불멸의 공훈이 깃든 군기를 힘차게 나붓기며 련이어 광장에 들어섰다.

부대가 배출한 공화국영웅들의 초상사진을 대오에 세운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상징종대가 1211 고지방어전투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며 침략자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처넣은 자랑드높이 힘찬 보무를 내짚었다.

전쟁개시 72 시간만에 서울을 해방하는 기적을 창조하고 대전해방작전에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상징종대, 근위 서울김책제 4 보병사단상징종대들의 전렬에는 항일빨찌산출신 맹장들의 모습이 빛났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적방침과 작전적의도를 받드는 길에서 한치의 에누리도 몰랐던 항일혁명투사들이 근위부대들을 이끌었기에 조국해방전쟁의 1 129 일을 혁혁한 전과로 가득 채울수 있었음을 절감하며 관중들은 공화국혁명무력의 첫세대 지휘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령활한 기동전으로 전선을 종횡무진하며 위훈을 떨친 근위 제 6 보병사단상징종대와 동부산악지대에서 맹호사단으로 소문났던 안동최춘국제12 보병사단상징종대가 《나의 고지》운동의 선구자 한계렬영웅과 강호영, 조순옥을 비롯한 육탄영웅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나아갔다.

가렬한 전화의 그날 서울시가에 남먼저 돌입하여 적의 아성에 공화국기를 휘날렸고 미제의 《상승사단》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며 대전, 대구, 부산으로 육박했던 용맹한 땅크병영웅들도 전진하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 땅크사단상징종대에 불굴의 군상으로 서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대중적영웅주의,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의 체현자들인 공화국의 첫 영웅세대, 강철의 근위병들이 포화속의 청춘의 모습으로 빛나는 근위사단상징종대들에 손을 드시여 격려를 보내시였다.

행진대원들의 전투적열광과 관중들의 환호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으로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주문진의 기적을 창조한 근위 제 2 어뢰정대상징종대,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락엽으로 만든 근위 제 56 김지상영

웅추격기련대상징종대가 도도히 진군해갔다.

수령의 명령이라면 하루밤사이에 백여리를 내달려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강행돌파의 정신과 력량상 대비도 안되는 백배, 천배의 대적과 맞서 승전신화를 안아온 육탄정신, 결사전의 기개가 근위 리훈제 18 보병련대, 근위 제 10 보병련대, 근위 제 14 보병련대, 근위 제 86 보병련대의 포연서린 군기와 영웅들의 모습에 비껴있었다.

평양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결사보위한 근위 제 19 고사포병련대, 근위 제 23 고사포병련대의 혁혁한 군공을 체현한 상징종대들의 발구름소리도 높았다.

근위련대상징종대들의 뒤를 따라 적후전선과 싸우는 후방에서 적들의 기도를 분쇄하고 수많은 간첩파괴암해분자들을 적발숙청하는 특출한 공훈을 세운 내무성상징종대와 포화속을 뚫고 전시물자수송에서 무비의 위훈을 떨친 철도병상징종대가 광장을 활보해갔다.

전체 관중들은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창조한 영웅세대의 투쟁정신과 불굴의 넋을 대대손손 이어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상징종대들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어 조국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공화국정권의 수호대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륙해공군종대들이 반미대결전을 강국조선의 승리로 통쾌하게 결속할 멸적의 기개와 공화국혁명무력의 강대성과 현대성, 영용성을 과시하며 보무당당히 광장으로 들어섰다.

세월의 흐름에도 풍화되지 않고 세대의 교체에도 변함없이 련면히 이어지는 위대한 승리의 체현자들인 무적의 륙군종대가 국방성군기와 대련합부대들의 군기를 추켜들고 위엄있게 행진해갔다.

그 뒤를 이어 인민해군과 하늘의 육탄비행대도 영용한 모습을 드러내며 보무당당히 지축을 울렸다.

영광의 군기에 아로새긴 성스러운 구호그대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국권수호, 인민사수, 거창한 창조의 전역들에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위대함을 더해주고 인민의 행복과 창창한 앞날을 지켜가는 이런 훌륭한 군대를 가진 인민의 긍지, 이런 강용한 군대를 키워낸

당중앙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경축의 광장에 끝없이 넘쳐흘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을 무장마다에 만장약하고 혁명의 전위에서 공화국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는 새세대 근위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경례를 보내시였다.

행진이 끝나자 조선인민군 공군비행대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부채살대형으로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올라 7 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전승 71 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은 시원도 위대하고 계승도 위대한 주체조선의 70 여년의 승전사를 만년대계로 이어가며 **김정은**시대를 새로운 승리와 영광, 번영의 시대로 빛내여나갈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억척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1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며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멸할 명예와 필승의 상징으로 빛나는 위대한 전승절의 환희와 격정을 승화시켜주며 2024 년 7 월 27 일 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성대한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공연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 71 돐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민들, 청년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관

람석에 자리잡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무대화면에 성스러운 공화국기가 형상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승의 7.27 을 안아온 영웅전사들의 선혈이 물들고 전후 70 여년간 값비싼 승리를 지켜 혁명의 매 세대가 바쳐온 고결한 넋과 주체조선의 무궁창창한 미래가 비껴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숭엄히 우러렀다.

설화와 노래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들, 계승의 년대들에 높이 울린 신념의 노래들이 올랐다.

위대한 영웅세대의 삶과 투쟁의 노래들을 열창하며 출연자들은 불세출의 수령을 진두에 모시고 국가창건의 첫 기슭에서 가장 엄청난 도전과 처절한 참화를 이겨내며 조국사수전, 혁명보위전, 평화수호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공연은 새시대 전승찬가들인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27》로 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자 지휘자와 주요배우들이 전쟁로병들에게 전체 출연자들의 존경의 마음이 담긴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우렁찬 환호가 또다시 세차게 분출하는 속에 장쾌한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날아올라 전승절의 열광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조선혁명의 가장 운명적인 년대에 위대한 신념과 단결의 위력으로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경의의 꽃보라인양 오색찬연한 축포탄들이 불멸의 《승리》상과 영웅전사들의 군상을 눈부시게 밝히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7.27 의 필승불패의 정신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여 혁명의 백년대계를 위대한 승리로 이어나감으로써 세계가 우러르는 주체의 부흥강국을 반드시 떠올릴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과 성대한 준공행사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군인건설자들과 설계일군들,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5 월 22 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과 성대한 준공행사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군인건설자들과 설계일군들,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핵심육성의 원종장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세계일류급의 정치사상학원, 당의 존위와 혁명의지가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된 사회주의집권당의 가장 권위있는 혁명대학의 위상을 세상에 보란듯이 빛내임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사에 영구불멸할 뜻깊은 공훈을 아로새긴 군부대 장병들과 관록있는 설계집단, 예술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최중대사로 내세운 중앙간부학교건설에서 견줄수 없는 비상한 실력과 결사관철의 정신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떨친 군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열렬한 애국충성심과 헌신성을 매우 값높이 평가하시면서 근위부대, 영웅부대가 확실히 다르다고, 이 부대는 최근 10 여년간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일심전력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도 일떠세웠다고, 이런 유일무이의 능력있는 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국가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창조정신과 완강한 분투력을 발휘하여 불과 1 년 남짓한 기간에 주체건축과 주체교육의 본보기적실체를 안아올린 설계일군들의 수고도 따뜻이 헤아려주시면서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창조물들마다에 진하게 슴배여있는 그들의 혁혁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력량에 앞서 우선 설계력량부터 강력하게 준비

되여야 우리의 리상대로 앞날을 휘황하게 꾸려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설계부문 일군들은 눈부신 미래의 락원을 그리고 가꾸는 훌륭한 미술가가 되고 원예사가 되여 아름다운 조국의 래일을 만년대계로 수놓아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명성높은 이 군부대와 설계집단은 자신의 친위부대, 친솔집단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국가 특유의 주체적, 인민적성격과 국풍이 관통되고 인민의 지향과 감정,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기백으로 충만된 생명력있는 기념비로 건설함으로써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관록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최근 국가행사들에서 보여준 풍부한 예술적기량과 헌신에도 깊은 사의를 표하시면서 특히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기념공연에서 모든 출연자들이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투쟁을 훌륭한 열창으로 지지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과 설계일군들이 조선로동당의 건설정책을 영웅적창조실천으로 받들어온 공훈있는 부대, 관록있는 설계집단의 명성을 계속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선도하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워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명하시고 예술부문의 앞으로의 더욱 고무적인 성과를 격려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연회에 참석하시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9 돐 경축연회가 2024 년 10 월 10 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록지공원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실천으로 조선로동당의 순결한 계승과 강화발전, 공화국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세기적변혁의 영웅전기를 펼쳐나가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였다.

연회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원, 연구사들이 초대되였다.

국가수반의 개인초청손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의 주요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빛나는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위대한 조국과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에로 인도하시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9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9 돐 경축공연이 2024 년 10 월 10 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국가수반의 개인초청손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를 비롯한 대사관의 주요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조선로동당 만세》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주체혁명위업완수를 위한 영웅적장로에서 조선인민이 위대한 당을 우러러 터친 로동당송가들과 애국의 노래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불멸의 조선로동당찬가들을 통하여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뉴대를 과시하며 탁월한 령도력으로 부국강병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고 최전성기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의 세계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세월의 풍파를 다 막아주며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행복을 주고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워준 어머니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심을 풍만한 서정과 생활적인 시어들로 형상한 가요 《내 운명의 품》은 당과 인민대중사이에 피줄처럼 맺어진 특유의 정을 감명깊게 펼치였다.

이 세상 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 위대한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길에 한생의 넋과 숨결을 정히 묻어갈 애국의 지향과 열정을 진실하고 숭엄하게 구가한 《조국에 대한 노래》, 《열망》에도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진함없을 일심충성과 신념의 노래들로 만장을 격동시킨 공연은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국기》,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절정을 이루었다.

격정의 환호성과 함께 황홀한 축포탄들이 눈부시게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창건 79 돐 경축공연은 창건도 위대하고 발전의 전 력사도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더불어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을 승화시켜주며 어머니당의 탄생일을 의의깊게 장식하였다.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9 월 30 일 국제축구련맹 2024 년 20 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나오시자 선수들과 감독들은 감격의 눈물속에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치며 오매에도 그리던 아버지원수님 품에 앞을 다투어 달려가 안기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장한 딸들을 정깊게 반겨주시며 이번 경기대회 조별련맹전부터 결승단계에 이르는 7 차례의 경기에서 도합 25 개의 통쾌한 꼴을 터뜨리며 오스트리아, 브라질, 미국, 일본 등 맞다든 강팀들을 압승하고 조선녀자축구신화를 또다시 창조한 그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특히 경기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인 금뽈상과 최고득점자상인 금축구화상을 받은 최일선선수와 팀을 련전련승에로 이끈 리성호책임감독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가슴속깊이 안고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달리고달려 자랑스럽게 쟁취한 승리는 온 나라에 락관과 희열을 더해준 고무적인 경사로, 애국적장거로 된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은 나라의 진보와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안아오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성과들은 특유의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을 더욱 단합시키고 활기에 넘친 투쟁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녀자축구의 밝은 전망을 보여준 선수들이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확고히 쥐고 그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는 영광과 행운을 지닌 녀자축구선수들을 축하해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2)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사에 전례없는 기록을 새기시며

(1)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농기계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 월 2 일 나라의 농기계공업발전방향을 명백히 확정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농기계전시회 《농기계공업발전-2023》이 진행되고있는 3 대혁명전시관을 찾으시여 농기계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전시회장에는 각종 뜨락또르, 모내는기계, 농업용무인직승기, 밀보리파종기, 이동식강냉이종합탈곡기를 비롯하여 농업위원회와 련관부문들과의 협동밑에 설계제작된 수백여종에 달하는 농기계들이 전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농기계들을 보시면서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농기계생산단위와 련관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으로 농촌의 실정에 맞는 효률적이며 성능높은 농기계들을 제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밝힌 농산작업의 기계화목표실현에서 수자보다 질이 우선이고 기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현존농기계제작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그에 기초하여 전망적인 발전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농기계공업분야에서 비약적개변을 안아오는것은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고 또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발전전략을 정확히 수립하고 농기계생산부문의 현대화와 능력조성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그를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새로 일떠세운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 월 7 일 새로 일떠세운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조종실과 생산호동들을 돌아보시면서 새로 일떠세운 공장의 현대성과 생산능력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나라의 가금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현대적인 광천닭공장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대책도 취해주시였으며 설계로부터 자재, 자금보장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을뿐 아니라 사료보장농장과 살림집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관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광천지구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과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상이 집약된 교과서적인 가금업의 본보기고장으로 훌륭히 전변되였다.

나라의 가금업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게 고기와 알생산의 집약화, 과학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광천닭공장에는 사육호동들의 온습도조절로부터 조명과 사료공급, 배설물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조종화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지고 수의방역과 실험분석체계도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였으며 종업원들의 로동과 학습, 생활환경도 높은 수준으로 꾸려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천닭공장이 당의 구상대로 나라의 가금업발전에서 새로운 기준점으로,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천닭공장건설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대사로 내세운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정확한 실천으로 받들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 이렇듯 흠잡을데 없는 멋쟁이공장, 표준공장으로 번듯하게 일떠세운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종전과는 대비할수 없는 새로운 개념과 방식, 높은 경지를 개척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면서 자동화, 과학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 광천닭공장은 철두철미 우리 당이 바라고 요구하는 자부할만한 시대적본보기이며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명백히 제시한 훌륭한 기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화된 생산공정에서 고기와 알이 쏟아져나오는것을 보니 정말 흐뭇하다고, 우리 당은 올해중에 평양시에 광천닭공장과 같은 공장을 하나 더 일떠세울 구상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천닭공장이 나라의 가금업발전을 선도하는 본보기단위, 선진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생산장성에서 계속적인 비약을 안아올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술관리와 설비관리, 사양관리, 사료관리를 최적화하고 표준화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것이 우리 당이 강조하는 중요원칙이고 요구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가금생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방도를 동행한 지도간부들과 토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정상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빈틈없이 조직하며 생산능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대의 발전기준, 본보기를 훌륭히 창조한 광천닭공장이 앞으로도 나라의 가금업과 지방공업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전구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을 표준으로 온 나라 가금생산기지들을 현대화하여 가금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며 공장의 건설 및 현대화경험을 전국적범위에서 일반화하고 성과를 계

속 확대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현대화의 기준을 바로 알고 점령해야 할 기술목표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게 하는것이 중요한것만큼 가금연구소와 각급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들, 기계제작부문 등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에게 이 공장을 참관시키고 학습시킬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광천닭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제일가는 국력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끊임없는 발전과 비약적인 생산성과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로 충만되여있었다.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강동지구에 세계굴지의 남새생산기지인 강동종합온실이 훌륭히 완공되여 조업하였다.

온실남새생산의 지능화, 집약화수준에서 선진적이고 현대성과 문화성, 실용성이 확고히 보장된 강동종합온실은 인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중대국사로 내세우고 억만금을 아낌없이 기울이는 조선로동당의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정치리념과 멸사복무정신이 안아올린 기념비적창조물이며 공화국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본보기적인 실체이다.

온 나라 곳곳에 현대적인 온실농장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울 웅대한 전망을 펼치시고 중요군사기지들까지 온실터전으로 내여주시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 전원회의에서 강동지구에 대규모의 온실군을 일떠세울데 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공사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당중앙의 특별명령을 일심충성으로 받들고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장병

들은 드세찬 공격정신과 혁명적인 창조본때로 불과 한해동안에 련포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훨씬 크면서도 한세대 더 발전된 종합온실과 공공건물들, 자연경치와 조화를 이룬 다락식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수도의 교외에 《온실도시》, 《농장도시》의 선경을 펼쳐놓았다.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이 2024 년 3 월 15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 및 조업식에 직접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종합온실을 훌륭히 일떠세워 조선로동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장병들을 고무하는 뜻깊은 격려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격려사를 하시였다.

《동지들!

사랑하는 공군부대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동무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바와 같이 이같이 선진적이고 훌륭한 재부를 단 1 년사이에 기적같이 일떠세운 동무들에게 어떤 말을 골라서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벽된 여기 강동지구에서 동무들이 고전을 치른 흔적은 이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물이 일떠선 땅밑에 묻혀있는 동무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비상한 슬기와 영용한 분투는 후세의 본보기로 빛날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말 이런것을 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것입니다.

동무들은 자기들의 복무의 자욱과 전투적위훈이 새겨진 자리우에 인민에게 선물할 크나큰 재부를 떠올렸습니다.

국가앞의 모든 도전과 난관이 우리 군의 우선적인 격멸표적이라면 당과 인민의 숙원을 성취하는것은 우리 군대의 선점목표입니다.

이는 변할수 없는 우리 군대의 본성입니다.

국가와 인민을 수호함에 언제나 철저하고 강위력하며 조국의 재부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함에 언제나 전설적이고 전능한 영웅적인 우리 군대의 장병동지들!

우리의 리상, 우리 식의 창조투쟁이 반드시 가닿게 되는 미래의 변혁상을 앞장에서 펼쳐가는 고귀한 영예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바로 동무들에게 차례져있습니다.

장병들!

수호자의 군기높이, 창조자의 군가높이 계속 전진하며 승리해나아갑시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우리 군대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격려사를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3월의 하늘가로 울려퍼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 및 조업테프를 끊으시였다.

위대한 위민헌신의 려정에 거룩히 아로새겨질 숭고한 화폭이 펼쳐진 준공 및 조업식장에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감격의 파도가 끝없이 설레이였다.

향도의 위대한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종합온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운영하게 될 고도로 집약화, 최적화, 지능화된 생산공정들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갖가지 남새품종들의 생육환경을 과학적으로, 균형적으로 보장해줄뿐 아니라 일반재배방식에 비하여 획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부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종합온실완공으로

온실남새생산의 새로운 령역과 경지가 개척되였다고 하시면서 강동지구의 눈부신 변혁상은 자력, 자존의 기상속에 더욱 강해지는 우리식 창조투쟁의 보람찬 축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동력으로 되는 종합온실건설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것은 사회주의 새 생활을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범위에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건설을 다그치며 남새생산을 창조형산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동종합온실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향유하게 될 근로자들을 위하여 건설한 살림집들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시였다.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조선로동당과 공화국특유의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조선식의 고유한 멋과 특색, 현대건축의 발전지향적인 추세를 훌륭히 구현한 새 거리들이 해마다 일떠서 천지개벽을 펼치고있는 화성지구에서 2024 년도 평양시 1 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인 3 단계 건설착공식이 2024 년 2 월 23 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동지가 착공식연설을 하였다.

총리동지는 위대한 당중앙이 지펴준 건설혁명의 봉화를 추켜들고 년년이 방대한 건설목표를 어김없이 점령해온 기세드높이 5 만세대 살림집 완공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3 단계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인민군장병들과 수도건설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그는 해마다 2 월이면 당해년도 대건설의 착수를 알리는 장쾌한 포성

이 울려퍼지고 4 월에는 새집들이경사로 온 나라가 흥성이는것은 우리 국가특유의 생활로, 정서로 되였다고 하면서 자랑찬 창조의 길에서 우리의 수도는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날로 일신되고 인민의 행복은 더해지고있으며 이는 만난시련속에서도 문명부강할 래일을 확신성있게 앞당겨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전진기상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세기적인 위업들을 강력히 추진하는것과 동시에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을 드팀없이 련이어 내미는것은 인민의 요구와 념원을 실현함에 모든것을 지향복종시키는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며 자존, 자립으로 다져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인민들과 한 약속은 아무리 힘든 고비에 맞다들려도 무조건 지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본태이고 본도이며 계속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 반드시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과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새 단계의 대건설준비사업이 박력있게 추진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총리동지는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전국도처에서 과감히 전개되고있는 오늘 수도의 5 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그 모든 혁명사업을 강력히 선도하는 승리의 표대로, 당중앙의 권위를 옹위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는 중대한 정치투쟁으로 부각되고있다고 하면서 화성지구 3 단계 건설이 그 규모가 방대하지만 당의 령도밑에 정연하게 세워진 사업체계와 수도건설의 나날에 높은 시공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가 있기에 올해의 건설투쟁전반을 활기있게 견인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건설자들이 수도건설의 전위에 내세워준 당중앙의 믿음을 제일가는 영예로, 더없는 긍지로 여기고 새 기적, 새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온 투쟁본때로 련속공격하여 모든 건축물들을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이 철저히 구현된 새시대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리동지는 수도와 지방, 온 나라 방방곡곡이 비상한 각오와 애국적 열정, 발전과 부흥의 새 기운으로 약동하는 격동의 시대는 수도건설자들

의 더 담찬 용기와 분투를 부르고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자식들의 행복한 웃음과 밝은 앞날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 결정을 옹위하여, 공화국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전체 군민건설자들은 전국적판도를 포괄하는 대건설전선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할 수도건설전역의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중앙의 숭고한 구상을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갈 철석의 의지를 담아 우렁찬 함성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화성지구 3 단계 1 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수를 알리는 발파단추를 몸소 누르시였다.

장쾌한 폭음과 함께 착공을 경축하는 축포탄들이 련이어 날아오르고 격정의 환호가 세차게 분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부흥창창한 공화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백년지계의 애국사업으로 줄기차게, 강력하게 결행하는 건설투쟁을 눈부신 변혁적결실로 확고히 담보해나갈 열의에 충만된 건설자들을 뜨겁게 격려하시였다.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4 월 5 일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2 단계 1 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인민의 리상도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전변시키실 크나큰 웅지를 안으시고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수도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로고를 끊임없이 바쳐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최중대과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숙원사업이고 당과 정부가 인민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며 화성지구 2 단계 구역을 현대적인 도시구획의 면모를 갖

춘 특색있는 거리로 일떠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시고 매 살림집별로 평면과 립면, 형성안들을 직접 지도해주시며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 개년계획의 세번째 해인 2023 년도 계획에 따라 화성지구 2 단계 구역에는 80 여정보의 령역에 1 만세대에 달하는 각이한 형식의 살림집들이 공공 및 봉사건물, 시설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편리하게 배치되였으며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과 예술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 2 단계 1 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웅장한 새 거리의 전경을 부감하시며 정말 멋있다고, 화성지구에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또 늘어나게 되였다고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 2 단계 살림집건설에서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것이 눈에 띄게 알린다고, 1 단계 살림집들과 양상이 구별되게 반복성을 피하면서 우리 식의 고유한 멋과 특색을 살리며 무게있게 잘되였다고 평가하시면서 인민들을 새시대 문명에로 인도하는 장엄한 대건설투쟁에 과감히 분기하여 당에 대한 충실성과 견인불발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공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시급히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면서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의 아름다운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제일가는 중대사인것만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마무리공정까지 질적으로 완벽하게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 년에 건설을 시작한 화성지구 3 단계, 다음해에 예정되여있는 화성지구 4 단계 전망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시면서 수도를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문명의 발원지로, 눈부신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원칙들과 그 실현을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새 살림집을 받은 근로자들을 축복해주시며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면적국가부흥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실체로 웅장화려하게 솟아난 화성지구 2 단계 1 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2024 년 4 월 16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그는 수도건설사에 특기할 전변의 또 한페지를 새기며 솟아오른 림흥거리의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평양시민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뜻깊은 4 월의 《새집들이계절》을 또다시 마련한 전체 건설자들과 련관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그는 2023 년의 투쟁방향을 책정하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화성지구 2 단계 구역을 현대미를 자랑하는 특색있는 거리로 일떠세울 대건설작전을 펼쳐주시고 착공의 날에는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시기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마무리공정까지 완벽하게 결속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녕 새로 일떠선 림흥거리는 창조와 건설의 전 과정을 인민을 위한 절대적인 복무로 일관시키시고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것만을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열화의 진정이 안아올린 위민헌신의 응결체이

며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의 숭고함과 뜨거움의 세계를 후세토록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중앙의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과감한 돌격전, 립체전을 전개한 영용한 수도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려주신 착공의 발파소리가 완공의 축포성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새 거리마다에 층층이 키를 돋구며 일떠선 건축물들과 더불어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집단은 새로운 건설혁명의 시대를 앞장에서 견인해나가는 전투력있고 정예화된 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화성전역의 전체 건설자들이 당중앙이 밝혀준 3 단계, 4 단계의 투쟁목표수행에 총궐기하여 훌륭한 새 거리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사회주의문명발전을 계속 앞장에서 선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모두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될 우리 수도, 우리 국가의 휘황한 래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사랑하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려정에 영원불멸할 화폭이 펼쳐진 준공식장에 우렁찬 《만세!》의 함성과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화성지구 2 단계 1 만세대 살림집준공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었다.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천만운명을 품어안아 보살피며 이민위천의 반석우에 후손만대 누려갈 만복의 화원을 펼쳐주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인민이 충심으로 부르는 송가들이 화성지구를 진감하였다.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인민의 리상사회, 부흥강국을 일떠세워가는 변혁의 시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찬가들은 참가자들의 가슴을 크나큰 감격과 희열로 끓게 하였다.

인민이 바라는 모든 숙망이 생활로, 현실로 되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강국조선의 국가가 장중히 울려퍼지는 준공식장은 애국열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복락을 누리는 수도시민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꽃보라인양 비행대가 림흥거리의 밤하늘을 날으며 황홀한 불보라를 뿌리였다.

아름다운 수도의 밤, 희한한 호화거리에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의 은은한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경축의 축포가 또다시 터져올라 새 거리의 야경을 더욱 광휘롭게 단장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준공식장은 또다시 우렁찬 환호의 바다로 화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세해사이에 3 만세대가 훨씬 넘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운 미더운 수도건설자들이 앞으로도 순결한 애국충성과 혁명적기개로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 개년계획의 다음단계 목표들을 계속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수도 평양을 명실공히 강국조선의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변시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사로운 4 월에 림흥거리의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모든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며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은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는 새 거리의 주인들과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문명, 최대의 복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오래도록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문명부강한 공화국의 미래상이 응축된 청춘대기념비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위대한 계승과 위훈으로 빛나는 조선청년운동의 발전행로에 또 하나의 긍지높은 영웅전기를 아로새기며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에 현대적인 새 거리, 전위거리가 웅장하게 솟아올라 의의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80 층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 공공건물들로 장관을 펼친 대건축군은 열렬한 애국충심으로 당의 위업을 받들고 옹위해나가는 미더운 청년전위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이였으며 조선식사회주의의 줄기찬 전진의 산아였다.

당과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고 용감한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개를 과시하게 될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청년들이 수도의 대건설전투장에서 조선청년특유의 조직력과 단결력, 애국적헌신성을 힘있게 떨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정을 운명의 전부로, 위훈창조의 자양분으로 받아안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새로운 평양번영기의 영예로운 참전자라는 고귀한 명함을 청춘의 자서전에 새겨넣으며 인민의 새 거리,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란듯이 떠올리였다.

전위거리의 준공은 조선로동당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충성과 애국의 줄기찬 계승으로 영광스러운 백승사, 영웅적 투쟁사를 수놓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불패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전위거리 준공식이 2024 년 5 월 14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우리 청년전위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적창조물을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수도에 또 하나의 새 거리를 일떠세운 긍지드높이 인민들의 기쁨을 앞세우고 영광의 단상에 오른 미더운 청년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수천세대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봉사건물들이 대건축군을 이룬 큰 규모의 거리를 순수 청년들의 힘으로 단 1 년동안에 일떠세운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지만 우리 청년들은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을 받들어,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용감히 떨쳐일어나 방대한 건설목표를 끝끝내 달성하여 혁명전위의 높은 영예와 존엄을 쟁취하였으며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에 훌륭히 보답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서포지구의 새 거리건설은 청년들을 새시대의 주인들로, 혁명의 참다운 교대자들로 키우시려는 아버지원수님의 웅심깊은 뜻과 의도에 의하여 펼쳐진 대건설이였다고 하면서 그는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건설자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주신 원수님께서 《전위거리》라는 뜻깊은 이름도 지어주시며 공사를 국가적사업으로 중시하고 적극 밀어주도록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새 거리를 일떠세우는 과정이 그대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 성장과 혁명적단련과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더욱더 승화시키는 무한한 힘의 발화제로 되였기에 청년건설자들은 부모형제들과 후대들앞에, 당과 조국앞에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내놓을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전위거리를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청년전위들의 상징물로 거연히 일떠세우고 굴함없고 줄기찬 혁명기세를 배가해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지휘관, 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에게 전투적경의를 보내였다.

또한 청년들의 힘을 적극 보태주고 키워주면서 그들이 어느때나 멈춤없이 용진할수 있도록 든든한 뒤받침이 되여준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일군들,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모든 부모님들과 전체 지원자들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보내였다.

청년건설자들은 석박산기슭의 전승용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땅우에 락원의 새 거리들이 어떻게 솟아오르고 선렬들이 넘겨준 충성과 애국의 넋이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증명한 새세대

애국청년들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 창조물에 애국의 지극한 정성을 묻고 계승자의 신념과 의지,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묻으며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인생관을 한층한층의 층계와 함께 훌륭한 높이에 올려세웠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강철같은 조직력과 단결력을 전제로 하는 대건설투쟁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충실성과 헌신성, 집단주의와 락관주의를 배양하고 배가한 당당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어엿한 혁명가, 애국자로 성장하였으며 청년동맹의 활동성이 제고되고 청년사업을 새롭게 작전하고 과감하게 견인해나갈수 있는 청년일군들이 육성된것은 수도의 면모를 일신한것에 못지 않은 귀중한 성과이라고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 귀중히 여기시는 성과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품속에서 투철한 혁명성과 무비의 영웅성을 키워가는 청년전위들에 의해 주체혁명의 대가 억세게 이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공산주의리상을 실현해가는 우리 위업이 언제나 활력에 넘치고 필승불패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조국의 부름에 한몸을 기꺼이 내댈줄 아는 충직하고 영용한 청년들을 거느리고 공산주의에로 가는 우리 당과 국가는 어떤 목표앞에서도 주춤함이 없을것이고 어떤 난국앞에서도 좌절함이 없이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애국의 힘, 단결의 힘을 백배하며 당 제 8 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관철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용감히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위거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순간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날아올라 5 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령도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위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위거리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친 청년혁신자들

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를 가지고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름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열혈의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적투쟁을 줄기찬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당중앙을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할 천만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분출되는 속에 전위거리준공을 기념하는 공연이 진행되였다.

위대하신 령도자, 친근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고 더 밝은 미래에로 나아가는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영광이 차넘치는 준공식장에 환희의 축포가 날아올라 전위거리의 야경을 황홀하게 단장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면서 청년들이 수도건설에서 발휘한 청춘의 슬기와 용감성을 계속 높이 떨치며 전면적국가발전을 향한 시대의 선봉에서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삼지연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7 월 11 일과 12 일 삼지연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1 년 11 월 14 일 산간문화도시의 표준으로, 본보기지방도시로 전변된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4 년간에 걸친 삼지연시건설사업이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한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삼지연시의 생활환경이 변모된데 맞게 도로와 철길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생태환경과 산림보호대책을 세우며 려관

및 호텔들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삼지연시를 혁명전적지답사지구, 관광지구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말씀과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삼지연시추가공사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완결되였다.

삼지연혁명사적관과 편의봉사시설을 비롯한 40 여개의 공공 및 생산건물공사와 수십세대의 종업원살림집건설, 230 여㎞에 달하는 도로공사를 끝내였으며 삼지연비행장개건과 철길공사를 비롯한 일부 미진된 대상공사들이 진척 또는 준비중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삼지연시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문명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보다 완벽하게 꾸리기 위한 중요계획사업들에서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과정에 발로된 지도일군들의 무책임성과 그로 인하여 산생된 일련의 엄중한 편향들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것을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승화되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비추어 삼지연시를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문명도시로 일신시키기 위한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를 나라의 북부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특색있는 복합형산악관광지구, 사계절산악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국제관광도 활성화해나갈 당의 구상을 피력하시면서 천연수림과 산악을 이루고있는 백두산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세계적인 명산 백두산관광문화지구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며 관광업이 지방발전을 위한 주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의 미개척지인 포태지구는 강설량이 많고 자연지리적 및 기상기후적으로도 체육 및 체험활동형산악관광지구로서 적지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대규모스키관광휴양지건설사업을 2 년기간내에 추진시키는 문제를 토의하시고 북포태산을 중심으로 스키장과 관광휴양지를 건설하며 삼지연비행장을 개건하고 관광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단계별과업 그리고 삼지연시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축이 나라와 민족의 문명정도와 해당 사회의 발전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는것은 이미전부터 우리 당이 계속 강조해온 문제라고 하시면서 삼지연시의 문화관광시설들을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킨 우리 나라 특색의 발전된 건축형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축물 하나에도 시대의 사상이 반영되고 문명수준이 반영되는것만큼 건설 그 자체는 곧 중요한 사상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민족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휴양지를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의 요구가 뚜렷이 반영된 인민들이 즐겨찾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세울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밖에 백두산등산관광로선을 2 차선으로 확장하여 포장하는 문제, 무두봉지구까지의 관광철도를 부설하는 문제 등 백두산등산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혁명전적지답사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들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주변의 산악지구들에 답사생,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및 급양봉사시설들과 산악철도, 삭도 등의 교통운수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설비 및 확대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산지면적이 전 령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산악관광업을 전망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

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와 함께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들도 완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대한 삼지연관광지구건설사업은 나라의 자연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관광업을 통하여 지방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해나가는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구상하고있고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수 있는 관광지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의심할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무수한 초행길들마다에 진함없는 사색과 심혈과 정력을 깡그리 쏟아부으시며 날에날마다 부흥번영하는 새세상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안아오시는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영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떠받들려 가까운 앞날에 력사의 삼지연땅에는 만인을 경탄시킬 경이적인 인민사랑의 기적적현실이 빛나게 펼쳐지게 될것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7 월 16 일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안선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거대한 관광지구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부감하시며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고,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바다가특유의 이채로운 저 경관을 눈에 담는것만으로도 금시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것만 같다고, 목표했던바 그대로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서의 체모를 유감없이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인민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손색없이 일떠세우려는 당중앙의 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건설의 속도와 질보장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기세를 늦추지 말고 건설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며 이를 위하여 지휘성원들이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건설자들이 배가의 분발력을 발휘하며 건설감독기관들이 책임과 역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9 차 정치국 확대회의결정에 따라 다음해 5 월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개업을 목적한데 맞게 운영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시기 위하여 현지에서 동행한 일군들과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관광지구운영준비사업을 잘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문화휴양지를 잘 꾸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위상에 걸맞게 봉사운영을 흠잡을데없이 따라세우는것 또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이라 해도 봉사운영수준이 빈약하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봉사운영능력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그에 기초하여 봉사단위들을 선정하며 지금부터 운영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고 일련의 중요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는 관광지구의 수용능력에 맞게 주차능력보장문제, 유희공원건설문제, 문화생활구역형성문제, 오물 및 오수처리능력확보문제, 봉사업종별에 따르는 전문가양성문제를 비롯한 관광지구의 원활한 운영보장준비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시는 해안도시로서 자연지리적으로 경치가 아름다우며 특히 이곳 갈마반도의 명사십리는 예로부터 손꼽히는 명승지로 일러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제일유명관광지로 세계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될 국보급의 해양공원이 반드시 훌륭하게 일떠섬으로써 명사십리는 머지않아 원산의 자랑, 인파십리로 매력적인 명성을 높이 떨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경험에 토대하여 관광업을 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동서 두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금강산과 칠보산, 마전, 금야, 리원, 염분진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동해명승지들이 많은 조건에서 앞으로 관광업분야에서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집중할데 대한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해안관광자원으로서 체육형관광자원과 휴식위주관광자원, 해상경치부감관광자원을 특색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망적인 대책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된 주요봉사망들을 돌아보시며

해양국의 자연지리적특성을 살려 경치좋은 해변가들에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휴양지를 꾸릴데 대한 구상을 밝히고 걸음걸음 이끌어준 당중앙의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갈마반도 명사십리에는 많은 호텔들과 려관,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봉사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각종 봉사망들이 일떠서 아름다운 경관을 펼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2 월 29 일 준공한 여러 호텔과 봉사망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해의 맑고 깨끗한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해변가에 한폭의 그림마냥 황홀한 자태를 드러낸 해안관광도시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이곳 건설사업을 지도하면서 명사십리가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기쁨과 랑만의 십리해안으로, 인파십리가 될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리상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볼수록 장관이라고,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있는 주요봉사기지들은 국가의 중요한 대외사업과 정치문화행사들도 품위있게 주최할수 있을만큼 높은

수준에서 꾸려졌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봉사능력과 수준이자 관광지의 가치이고 그 전망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봉사업종들을 적극 개발하고 세계적수준의 봉사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문제 등 봉사기지들의 정상관리와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할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있으며 관광업발전에서 필수적인 정치적안정과 제도적우월성, 물질경제적조건이 다 구비되여있다고, 이처럼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새로운 령역을 개척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진흥과 나라의 경제장성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동력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관광자원조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최대한의 효과성과 실리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관광지개발과 시설건설, 자연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적기준들을 똑바로 규제하고 관광안내봉사와 관광시설운영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관광상품을 다양화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관광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은 나라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인 발전공정에 올려놓는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련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지구의 산악관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들의 관광자원도 적극 개발하여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름다운 조국의 바다가정서가 깃든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조국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이 즐겨찾는 조선의 명승,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2)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안겨주시려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현장을 돌아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7 월 28 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중폭우에 의한 재해현장과 재해예측지역의 주민구조 및 대피사업을 직접 지휘하시였다.

2024 년 7 월 27 일 조선의 북부국경지대와 중국측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의 수위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섬으로써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지역들에서 5 000 여명의 주민들이 침수위험구역에 고립되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위기정황이 발생한 즉시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포치하신데 따라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이 현지에 급파되였으며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기들과 해군과 국경경비대 해상경비편대의 각종 구조정들이 주민구출전투에 신속히 투입되였다.

물이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구조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비행기지에 도착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로부터 침수위험구역의 주민상태와 구조전투상황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10 여대에 달하는 직승기들이 무려 20 여회씩 련속적인 왕복비행을 하면서 불리한 일기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며 전투를 직접 지도하시였다.

구출된 인민들은 너무도 뜻밖에 비바람세찬 비행장에서 자기들을 기다려주시는 **김정은**동지를 뵙고 끝없는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조된 주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지역 당조직과 정권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의무적인 방조를 제공하라

고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부대 지휘관들과 비행사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피해지역상황을 청취하기도 하시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으며 주민구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몇차례나 정찰비행을 재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4 200 여명의 주민들을 성과적으로 무사구조한 비행사들의 수고를 격려하시고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 비행사들이 반나절 남짓한 기간에 이렇게 많은 침수지역 인민들을 직승기로 구출한것은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이고 공중구조전투의 산모범이라고, 이런 훌륭한 인민의 공군무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우리 국가의 자랑이며 이런 군대의 최고사령관직을 맡고있는것이 영광스럽다고 기쁨에 넘쳐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인민공군의 성격이 또한번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공군이 발휘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사복무정신에 온 나라 인민이 감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구조전투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직승비행련대장이 앞장에서 어려운 구조비행임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데 정말 지휘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훌륭히 갖추었다고, 전군적으로 따라배울 또 한명의 우수한 지휘관을 전투환경속에서 찾아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그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해복구 및 구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재난에 의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후과를 빨리 가시며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피해실상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시면서 중앙과 지역의 각급 지도일군들과 력량이 인민들의 생명재산보호를 첫자리에 놓고 피해복구사업에 사상적으로 발동되여 신속히 동원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재민들에 대한 예방치료대책 및 생활조건보장에 일차적인 관심을 돌려 그들을 시급히 안정시키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당 및 정권기관들에서는 식량과 의약품, 생활용품을 비롯한 구제물자들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위로해주며 동시에 국가적인 지원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지역에 폭우발생이 의연히 예견되는 조건에서 더이상의 재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속히 대책을 세우며 큰물발생위험이 가셔지는 즉시 영구적인 피해복구대책에 일제히 진입할수 있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압록강연안의 일부 군내 지역들을 특급재해비상지역들로 선포하고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안전 및 무력기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력량과 기재를 총동원하여 피해방지 및 복구사업에 떨쳐나섬으로써 피해를 빨리 가시고 생산 및 생활질서를 정상수준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고발생후에야 뒤따른 수습에 급급하느라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우는것은 마땅히 가장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과업으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항시적인 큰물피해위협을 몰아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모든 지역들과 해당 부문들이 최대로 긴장각성하고 위험개소들을 찾아 미리 제거하는 사업과 주민들을 예견성있게 제때에 소개시키는 사업, 과학적인 큰물예보와 질서정연한 통보 및 장악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비롯하여 큰물피해재발방지사업에 제일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엄중한 사태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 또한 다시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불피코 재난적인 상황을 초래하고야만 해당 국가기관과 지방의 일군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하게 질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폭우와 큰물, 태풍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위기대응대책을 똑바로 세울데 대하여서는 벌써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미 이와 같은 엄중한 현상을 놓고 일군들의 무책임성에 여러차례 경종을 울리였고 국가적으로도 장마를 앞두고 한두번만 주의를 주지 않았으며 바로 며칠전인 지난 7 월 22 일에는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도 소집되였는데 어떻게 되여 아직까지도 자연재해방지사업에 비상이 걸리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라고, 주요직제일군들의 건달사상과 요령주의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일을 그르칠 때마다 심각성을 깨닫고 분발한다고는 하지만 자연재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는것은 자연의 탓이라고 어쩔수 없다고만 생각하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재해방지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달라붙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요행수를 바라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다보니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중앙과 각 도들에 비상위기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여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형식뿐이고 실지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나라의 일부 지역에 조성된 큰물피해상황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귀중한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나라의 재부를 자연의 선택에 맡기는것은 무지하기 그지없는 불손한 태도이라고, 재해방지사업을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으로가 아니라 국가와 인민을 대하는 복무자세와 관점문제로, 중대한 정치사상적문제로 심각히 받아들이고 촉각을 최대로 곤두세워 있을수 없는 극도의 상황까지 예견해가며 대책을 세워나간다면 얼마든지 사고를 방지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기회를 통하여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당 및 정권기관들에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지도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 큰물과 폭우로 인한 엄

중한 피해들이 련속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시급한 복구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2 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2024 년 7 월 29 일부터 30 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 피해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소집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각총리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침수지역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형지물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잠겨든 침수지역을 돌아보시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시고 최단기간내에 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방청으로 전력, 철도, 통신, 농업부문을 비롯하여 피해복구사업과 관련된 부문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며칠사이에 여러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큰물피해가 발생하고 보다 확대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피해방지 및 복구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상기시키시고 현재까지 종합된 전국 및 지역별 큰물피해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발생초기부터 진행해온 해당 지역과 각급 기관들의 구제대책 및 복구사업정형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면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분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적으로 비상재해위기대응과 관련한 지도체계가 세워져있다고 하지만 통일적인 지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초기에 능히 최소화할수 있는 재해위험이 증폭된 문제, 지난 시기 큰물피해를 크게 받지 않았던 도, 시, 군들에서 재해방지사업을 만성적으로, 관조적으로 대한 결과 맥없이 재난을 당하는 후과를 초래한 문제 등 나타난 페단들에 대하여 일일이 렬거하시면서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것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들은 당을 믿고 이 회의를 지켜보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기대와 그들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을 무겁게 자각하고 하루속히 피해를 가시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세밀하게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위한 강령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착시키기 위하여 비상재해용비축물자들을 긴급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내각과 해당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동원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별 피해상황과 손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복구건설규모와 로력, 예산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할데 대한 문제, 중앙과 지방의 설계력량을 지체없이 동원하고 설계들을 선행시켜 복구전투에서 신속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건설력량을 시급히 파견하며 자재보장과 원활한 수송을 실현하는 문제 등 피해복구에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재해성기후에 의한 추가피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상예보부문에서는 예보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최대로 각성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며 특히 인명피해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재해발생시 구조작업에 동원할수 있는 필수구조장비와 기재들을 시급히 비축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치국 성원들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이 의주군의 수재민들이 림시거처한 천막들에 찾아가 생활형편을 실지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보며 그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깊이 연구하여 정치국에 제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비상확대회의 1 일회의를

마치시였다.

2 일회의가 2024 년 7 월 30 일에 진행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큰물피해를 시급히 복구할데 대한 결정서초안을 연구하였다.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의 연구결과와 의견들을 추가반영한 결정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큰물피해를 시급히 복구할데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우리는 위기를 한두번만 겪어오지 않았다고,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앞에 항상 용감했고 공세적이였으며 언제나 기적만을 창조하였다고, 당의 령도가 있고 당에 충실한 인민들과 인민군대가 있는한 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하시며 다시한번 위기를 딛고 억세게 떨쳐일어나 기적적인 성과들을 일으켜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2 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는 국가의 재해방지 및 관리능력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는 전환적계기로,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사명과 인민적성격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정치적사변으로 조선로동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에 참석하시여

언제나 청년들을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 별동대로 굳게 믿으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지역 복구건설에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부르시였다.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2024 년 8 월 6 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인민사수의 최전구에로의 출전을 앞둔 열혈의 청년들이 집결된 4.25 문화회관 광장은 부흥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투쟁의 전위에 청년들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사회주의애국청년의 고귀한 부름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의 경모심과 보답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하늘땅을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들을 격려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혁명의 선봉조직다운 강철의 기개와 용감하고 열정적인 청년특유의 배짱과 기세가 충천한 청년혁명가들과 자리를 함께 한 기쁨을 피력하시고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 혁명의 부름에 또다시 열광의 탄원으로써, 용감무쌍한 자세로써 화답해나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지역 살림집건설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파견할것을 결정한 후 한주일도 못되는 기간에 당의 결정과 청년동맹중앙의 련이은 호소문을 받아안고 피해복구장에 나갈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 만명에 이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폭발적인 탄원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가 없다고,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지높이 자랑하고싶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청년들은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는 반드시 투쟁으로써 격퇴하며 열정과 지혜로써, 실천으로써 자기의 참다운 모습을 고수하고 빛내여가고있으며 이러한 소행은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 투철한 신념이고 우리 국가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삶의 영예와 보람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관의 발현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어려움과 인민의 불행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당중앙의 결심을 열렬히 지지하며 자기의 혁명임무로 내세울줄 아

는 이처럼 장하고 끌끌한 청년대부대가 피더운 심장과 용솟는 열정으로 조선청년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당과 조국에 힘을 주고있다는것이 정말 자부스럽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돌격대원들과 청년학생들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아울러 귀한 아들딸들을 거창한 건설의 전구들로 주저없이 떠밀어보내는 부모들과 불같은 호소로 수많은 청년들을 일떠세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각급 조직들과 일군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고유의 진취성과 충천하는 기세, 언제나 끓어넘치는 젊은 힘은 내세운 높은 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서, 닥쳐드는 난국을 이겨냄에 있어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하고 강위력한 동력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선렬들이 넘겨준 충성과 애국의 넋이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스스럼없이 선택한 불요불굴의 투쟁으로 실증하며 10 여년동안 해마다 위훈의 창조물들을 훌륭하게 일떠세운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 압록강류역에서 전개될 피해복구사업은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을 완전히 일신시키는 하나의 변혁과도 같은 거창한 건설대전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원들,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위부대답게, 당에서 특별파견한 별동대답게 혁명적풍모와 무비의 창조력을 힘있게 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의 진취와 배짱은 우리 사회에 생기와 약동을 더하고 청년들의 땀과 위훈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재부를 늘이며 청년들의 힘과 용맹은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할것이라고, 창조의 새 전구를 끓이는 왕성한 혈기와 불타는 열정, 난관앞에 주춤을 모르는 담대한 용기와 과감한 공세, 인민의 평가앞에 떳떳한 완벽한 책임성과 깨끗한 량심은 미구하여 영웅청년의 빛나는 영상으로 시대의 단상에 떠오를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련과 곤난을 압도하는 무비의 용맹을 갖추고 어떤 어려운 목표도 반드시 달성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명적이며 애국

적인 청년조직과 청년들이 충직하게 받들어주기에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는 백전백승의 기치로 무궁하며 우리 혁명의 명맥은 백년이고 천년이고 끄떡없다고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진출자들이 부모형제와 스승, 조직과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청사에 길이 빛날 자랑찬 위훈과 함께 꼭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고 영예로운 조선청년의 존엄과 기개와 용맹을 떨치며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의 부름과 기대에 불가항력의 투쟁으로 화답하여 자연의 대재앙이 휩쓴 험지에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의 별천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기어이 떠올림으로써 청년전위들의 노도의 애국기세와 영웅성, 고귀한 명예를 혁혁한 위훈으로 빛내일 철석의 의지에 넘쳐 우렁찬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결의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자연재해를 당한 인민의 불행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전위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신 아버지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절절히 토로하였다.

토론자들은 다시한번 위기를 딛고 억세게 떨쳐일어나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원수님의 높은 뜻을 새겨안고 지극한 정성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모든 건축물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떳떳이 자부할수 있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하여 당과 인민앞에 내놓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버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랑독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전체 지휘관, 대원들은 백두대지와 수도건설에서 발휘한 불굴의 영웅청년정신과 집단적혁신, 무비의 돌진력으로 큰물피해지역에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발전상이 응축되고 지방진흥의 새로운 표준, 본보기로 될수 있는 인민의 보금자리를 당에서 정해준 전변의 시간표대로 훌륭히 일떠세울것을 엄숙히 결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출정보고를 올리였다.

이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출정행진이 개시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대표하는 미덥고 장한 젊은 주력부대의 행진대오를 향해 오래도록 뜨겁게 손저어주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전위답게 영광스러운 조선청년운동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거창한 투쟁과 영웅적위훈의 페지를 당당히 아로새겨갈 청년사회주의건설자들의 격동적인 진군의 장엄한 서막이였다.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여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멸사복무정신을 위대한 천품으로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한 불같은 사색과 진함없는 헌신과 로고를 깡그리 바치시며 위민헌신의 불멸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거룩한 자욱이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며 재난을 당한 인민들곁에 또다시 숭엄히 아로새겨졌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년 8월 8일과 9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전선을 펼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년 8월 8일 또다시 의주군의 수재민들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수된 의주군의 섬지역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압록강대안의 둔덕에 오르시여 륜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침수지역의 실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복구에서 나서는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피해복구를 단순히 자연재해가 몰아온 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전망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추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폭우만 내리면 《저수지》로 변해버리는 이 지역의 고질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수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압록강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따라 일방적으로 큰물피해를 입을수밖에 없게 되여있는 의주군의 현존강대안실태와 큰물방지능력을 수리공학부문과 설계부문이 협동하여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주군에 새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이번 기회에 도시 부럽지 않은 문명하고 현대적인 주택지구로 번듯하게 일떠세워 천지개벽을 안아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전기, 음료수보장과 오수처리에 이르기까지 도시경영과 관련한 제반 요소들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수재민들이 림시거처하고있는 가설천막전개지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찌는듯한 무더위를 헤치시고 자기들의 거처지에까지 찾아오신 원수님을 천만뜻밖에 뵈옵게 된 수재민들은 뜨거운 감격과 격정의 눈물을 쏟으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수재민들은 자기들이 생활하고있는 천막에까지 찾아오시여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를 눈물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불편한 점은 없는가, 식사는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앓는 사람은 없는가 따뜻이 물어주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헤아려주시였다.

수재민들은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으로 필수적인 생활조건들이 다 갖추어지고 온 나라가 떨쳐나 도와주니 불편한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직 원수님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할 일념뿐이라고 격동된 심정들을 아뢰이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객지생활이 왜 어렵지 않겠는가고, 조금만 참자고, 우리 이제 자연이 휩쓸고 간 페허우에 보란듯이 지상락원을 우뚝 세워놓

고 잘살아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에 감사하다고,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피해복구는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구입해오신 당과류들을 아이들에게 먹여도 주시고 귀여운 옷들을 입혀도 보시면서 아이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강해야 하는가를 더욱 무겁게 새기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찌물쿠는 날씨에도 불편을 무릅쓰시고 수재민들과 오래도록 담화를 나누시며 손도 따뜻이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신심과 용기도 백배해주시는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에 수재민들모두가 북받치는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원수님 품에 와락 안겨들며 환호를 올리는 격정의 바다, 눈물의 바다가 펼쳐졌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수재민들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다음날 또 만나자고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9일 의주군의 수재민들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재해복구와 관련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시면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재민들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를 자신의 전용렬차에 몸소 싣고 오시여 전달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도와 량강도안의 수재민들에게 보내시는 물자도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전달할것을 위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지원물자를 수재민들에게 안겨주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옷을 입은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고 귀속말도 나누시면서 친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앞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현지에서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복구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재포치하며 수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을 추가로 강구하기 위해 왔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불편의 내색없는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정말 큰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은 당과 국가의 기초이고 기둥이며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고 지향점이라고, 엄혹한 재난의 시기에도 이처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당과 정부를 믿어주고있는데 대해 긍지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수재민생활도모와 피해복구를 위한 당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시고 중요조치실시에 대해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당과 정부의 모든 사업이 피해복구전투에 총집중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들을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이 이미 전개되고 복구용물자수송이 비상체계에 따라 진행되고있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건설이 끝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의 두석달 기간에 제일 걸린 문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문제이라고, 보육과 교양, 교육문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제 1 의 국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복구기간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수재민가족들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 제공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키며 로인들과 병약자들, 영예군인들과 어린애어머니들에게도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혜택을 제공해주려고 한다는 중대조치를 발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것만큼 철저히 본인들의 의향과 결심에 맡기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최중시하고 내세운것만큼 당과 정부에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평양에 올라오는 수재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 돌보아줄것이며 성심성의를 다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이 큰물피해를 입은 기회를 악용하여 공화국의 영상에 흙탕물을 칠해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하고있는데 대하여 까밝히시면서 적들이 조작해내는 날조자료들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략선전

이고 엄중한 도발이며 피해없이 무고한 여러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을 가장 강력한 표현과 수사로써 지탄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따로 교양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런 생생한 사실자체가 적들이 얼마나 더러운 족속들이고 얼마나 아득한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날조와 정치적모략선전에 매달리고있으며 그 저의가 무엇이고 적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쓰레기라고 하는가에 대한 똑똑한 인식을 주는 좋은 교양소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우리앞에는 방대한 피해복구에 못지 않는, 그보다 더 심중하고 절실한 재해방지라는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상예보의 신속하고 정연한 통보체계를 세우고 재해위험요소들을 능동적으로 조절관리하며 특히 발전소와 언제를 관리하는 모든 단위들에 통합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인도주의적지원을 제공할 의향들을 전해오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우리가 국가사업의 모든 령역과 공정들에서 제일로 내세우는것은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과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문제처리방식이라고, 이번 피해복구에서도 당중앙과 정부는 첫째도 둘째도 열째도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와 용기, 우리 국가의 잠재력에 의지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가적인 집중력과 전인민적인 동원력으로 우리는 재해복구사업에서 확고한 승세를 틀어쥐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걸머진 시대적과제, 력사적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도전도 기꺼이 맞받아나갈것이며 반드시 충실한 복무와 훌륭한 결과로써 인민들의 믿음에 보답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난을 당한 인민들을 또다시 찾아오시여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생활안정과 피해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신 불멸의 화폭은 위대한 어버이의 위민헌신의 려정에 새겨진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전설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강령과

시책이 철저히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에 기초하고있음을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하고 당의 부름에 총분기해나선 전인민적진군에 기세찬 맥동을 더해주는 뜻깊은 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새겨졌다.

몸소 숙소에 나오시여 수재민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며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한몸에 떠안으시며 온넋과 혼신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서북변을 휩쓴 큰물속에서 수천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천지개벽의 거창한 복구전선을 펼쳐주신데 이어 수재민들이 만시름을 잊고 수도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혜택을 받도록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비상방조제공조치가 강력히 실행되여 수도의 4.25 려관과 열병훈련기지에는 수해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조건, 생활 및 휴식조건, 보양과 치료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갖추어져있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렬차로 해당 지역을 출발한 어린이들과 학생, 년로자, 병약자, 영예군인, 어린애어머니들 1 만 3 000 여명이 2024 년 8 월 15 일 평양에 도착하여 숙소에 입소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숙소에 나오시여 여러 지역 수재민들과 상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수재민들은 슬하의 천만자식들의 마음속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고도 또다시 친혈육을 반겨맞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몸소 숙소에까지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감격의 환호성을 목청껏 터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정과 의리로 일체를 이룬 조선특유의 참모습이 펼쳐

진 구내는 격동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믿고 따라준 여러 지역 수재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시고 평양에서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경연선과 북부내륙의 여러 피해지역들에서 불편하게 지내던 로인들과 애기어머니들, 영예군인들과 어린이들모두를 위한 성의있는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울인 당과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건강위주, 평안위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최상의 성의를 다할것임을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뜻밖의 자연재해로 국토의 일부분과 지역인민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난것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사회주의대가정은 아픔과 시련앞에서 더 굳게 뭉치고 고상한 정신으로 더 억세게 단결되였다고 하시면서 재난을 지방개화의 분수령으로 바꾸려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그 눈부신 전도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환해진 모습들로 개벽된 정든 고장에 들어설수 있게 4.25 려관과 열병훈련기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줄것을 당부하시면서 모두가 어머니조국의 수도에서 마음놓고 편하게 지내면서 체류기간내내 인상깊고 의의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따뜻이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사를 마치시자 자애로운 품속에 인민을 정히 안으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해 그 어떤 고행도 달게 여기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의 진정에 남녀로소모두가 눈시울적시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한한 감격에 겨워 오열을 터뜨리는 수재민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당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중대조치에 의하여 꿈같은 특전을 누리게 된 수재민들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에 두볼을 적시며 전체 수해지역 주민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의 식사실을 찾으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스스럼없이 안겨드는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주시며 어서 밥도 잘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가정과 나라에 웃음꽃을 더해주는 기쁨동이, 행복동이가 되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가 평양체류기간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를 다시금 기원하시였다.

국정의 천만사를 철두철미 인민을 위함에 지향복종시키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 삶의 주소를 정한 인민들은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사나워도 두려운것이 없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자자손손 무궁한 복락만을 누려갈것이다.

평안북도 큰물피해복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9 월 29 일 평안북도 큰물피해지역의 복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서게 될 살림집구획조감도를 보시면서 건설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애국의 호소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날마다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해가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고 피해지역의 생산 및 생활질서를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는 현시기 우리 당과 정부앞에 나서는 최급선무적인 과업이라고 재삼 강조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배가된 노력과 진정을 기울여 최단기간내에 살림집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수해지역 인민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사업은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원대한 지방발전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공정

인것만큼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언제나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변혁의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마다에는 우리의 사상과 정책, 미학관이 반영되며 이런것으로 하여 건설은 정치의 직관적표현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질보장이자 곧 당정책의 정확한 관철이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지키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임을 명심하고 설계상, 공법상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질제고를 홀시하는 사소한 현상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살림집건설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면서 조국과 인민앞에 무한히 충직한 그들의 정신세계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과 피해복구전구에 탄원진출한 청년돌격대원들은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위대한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투쟁의 앞장에 선 전위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그들의 생활조건보장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이를 위하여 당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섬지역의 제방공사정형도 료해하시면서 제방을 백년대계로 축성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피해복구전투는 당의 농촌혁명강령에 제시된 농촌문명의 발전단계를 한계단 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공정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우리 국가의 자존과 명예,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직접적 담당자, 실천자라는 자각을 신념으로 새겨주는 정치선전, 정치선동을 박력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송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제때에 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문제, 골조공사를 최대한 다그치고 마감시공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질적수준을 제고할데 대한 문제,

문명하고 현대적인 주택지구가 일떠서는데 맞게 주변환경정리와 원림조성사업을 관상적, 실용적측면에서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복구건설과 관련한 강령적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전면적국가발전을 향한 거창한 위업을 떠메고나가는 새시대의 창조자, 개척의 주인공이라는 자각과 확고한 자신심을 지니고 수해지역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명한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안겨주기 위한 영예로운 전구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복구건설현장에까지 찾아오시여 기적창조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탁월한 스승, 위대한 어버이를 격정속에 우러르며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자연의 광란을 이겨낸 조국의 대지를 인민의 행복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자강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0 월 21 일 자강도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24 년 7 월 큰물로 혹심하게 파괴된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피해지역에 하루빨리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강도일대의 피해복구전역으로 파견된 당원련대의 건설자들은 철야건설투쟁을 드세게 벌려 살림집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내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살림집건설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과 비상한 책임감, 완강한 실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당이 부른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깨

끗한 량심과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건설자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수고를 따뜻이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하여 삽시에 페허로 변하였던 피해지역들이 어느새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셔버리고 변모되여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정든 집과 일터를 멀리 떠나 피해지역 수재민들을 위한 들끓는 복구전투장에 몸을 잠그고 로동당원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에 충심을 다해가는 당원련대 전투원들의 값높은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새 마을, 새 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을 수재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될 그 기쁜 시각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지역의 다층, 소층살림집설계와 시공측면에서 일련의 편향들이 나타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피해복구에서 나타난 해당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지방건설투쟁을 활기차게 벌려나가는데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취할 대책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미 건축은 사상과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인것으로 하여 정치의 연장으로 간주한다는데 대하여, 따라서 하나의 건설물을 일떠세워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자존과 존엄, 명예를 걸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였다고 상기시키시면서 아직까지도 건설물의 질을 경시하고있는 편향들이 일부 제기되고있는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도처에 솟아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곧 일떠서게 될 수재민들의 살림집들도 다름아닌 백년대계로 담보해야 할 국가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고, 그런것만큼 사소한 결점도 완전무결하게 극복하고 완벽성보장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11 월초까지 끝내게 되여있던 재해지역 살림집공사를 12 월초까지 연장하여 완결할데 대하여 결정할것이라고 말씀하

시였다.

살림집건설이 지연되게 된것과 관련하여 평양에 체류하고있는 수해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생활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실무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우리 당원들과 청년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온 나라 인민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전국의 피해복구전역마다에서 수재민들을 위한 살림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떠서고있는데 이 방대한 사업은 단지 살림집을 세운다는 건설실무적인 문제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리념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을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과시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비상한 애국열의와 견인불발의 의지를 더욱 세차게 앙양시켜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재민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며 완공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감독기관들의 요구성과 역할을 보다 높일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또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게 자재수송과 보장을 적시적으로 책임적으로 하는 문제, 살림집건설과 함께 주민지역의 원림록화를 잘할데 대한 문제, 건설자들의 생활조건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등 중요과업들을 세심히 가르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렵고 힘든, 그러면서도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에 당중앙이 굳게 믿고 내세운 전체 당원들과 청년들과 인민군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의 건설전구에서 끝까지 자기의 무거운 사명에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다시한번 새로이 분발하여 피해지역에 훌륭한 인민의 지상락원을 반드시 펼쳐놓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당중앙의 열렬한 호소에 피끓는 맹세로 화답하며 충성의 불길, 애국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들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나오시여

조선식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뚜렷이 증시하며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들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 선경마을들이 즐비하게 솟아올라 의의깊은 준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다시한번 위기를 딛고 억세게 떨쳐일어나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해나가자는 당중앙의 열화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피해복구전구로 탄원진출한 전국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불과 넉달남짓한 짧은 기간에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을 억척의 제방들과 수천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등을 훌륭하게 일떠세움으로써 시련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충성과 애국의 줄기찬 창조투쟁으로 더 굳건해지는 주체조선특유의 불가항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국청사에 또 하나의 천지개벽을 아로새긴 이 경이적인 현실은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생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주하시며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한 애민헌신의 불멸할 려정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이 2024 년 12 월 21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국정의 천사만사를 인민을 위함에 무조건적으로 지향복종시키시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시는 위대하신 인민의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회주의의 억센 신념을 지니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수해지역에 인민의 보금자리

를 훌륭하게 일떠세운 전체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피해복구사령부 일군들, 평안북도와 신의주시, 의주군의 일군들, 근로자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장병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는 130 여일간에 걸치는 간고한 피해복구건설을 통하여 수해지에 영구할 보호의 장벽을 쌓고 지역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떠올린 자랑찬 결과를 총화지으며 의의깊은 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 거창한 변화는 우리 당이 정확한 결심을 내리고 보람있는 일을 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사회주의리상이 얼마나 훌륭하고 자기 힘과 분투로 난관을 격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업이 얼마나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인가를 재삼 실감케 하고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모든것의 첫자리에 놓는 자기 당의 정치리념과 구상을 받들어 무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온갖 고생을 이겨내며 억척같이 투쟁하여 조선식사회주의의 본태와 미래가 비낀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지구들을 일떠세운 인민군대장병들과 청년돌격대 대원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각지의 지원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이 준공식은 국가의 근본이자 전부인 인민을 절대적으로 받들고 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도도한 전진을 계속하고있음을 과시하는 중대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복구를 해놓고보니 이제 또다시 백년래의 큰물이 나도 이곳 압록강 하류지역은 끄떡없을것이라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옛 모양을 찾아볼수 없게 개변된 섬들에 새 생활이 깃들게 되였다는 안도감에 기쁨을 금할수가 없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몇달밖에 안된 공사기간에 있어서나 위치나 물동수송에 있어서 최대로 불리한 속에서 이같은

결실을 이루어낸 그 자체가 건설사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만 수재민들에게 굳게 약속하고 당결정으로 채택한 완공기일을 거듭 미루어 추위가 닥쳐든 년말에 와서야 완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 정말 미안할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지어 비상방역기간에도 중요대상건설을 련속적으로 전개하고 실행해오면서 이번처럼 긴장하게 공사기일을 맞춘적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계획수립에서 예단성이 부족한것을 비롯하여 건설과정에 일군들속에서 발로된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페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사실 이번 큰물피해복구를 시작할 때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우리에게 지원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우리가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문제처리방식에 일관할 결심을 피력한것은 우리자체의 힘에 대한 자신심과 함께 이 아름찬 공사를 통하여 더 자래우고 강하게 해야 할 자력의 정신물질적 자산이 그 무엇보다 귀중했기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수재가 자연의 변덕에 인한것만이 아니라 엄밀히 분석해보면 우리 국가 해당 재해방지기관들의 체계가 허술하고 여기에 일군들의 무책임성과 무경각성까지 합쳐져 막아내지 못한 인재였던것으로 하여 나는 스스로의 복구과정으로써 반드시 그 대가를 알고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앞으로의 위기대처를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남들의 도움을 기대하였더라면 이처럼 훌륭한 전변을 이룩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우리모두가 체감하는 귀중한 긍지도 없었을것입니다.

이번 피해복구사업은 단순히 불의지변을 가시기 위한것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에서 세기적인 개벽을 이루어내는 사업이여서 반드시 우리 힘으로써만 승리를 성취할수 있는 투쟁이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청년들, 인민의 힘을 믿고 온 나라의 단합된 위력으로 기어이 피해복구를 제기일에 결속하여 그 어떤 국난도 자력으로 뚫고나가

는 주체적힘을 더욱 키우려는것이 당의 의도였습니다.

다시한번 자생자결의 정신을 배양할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의의가 부여된 사업이 일군들의 비과학적인 사업태도로 하여 초기에 생각했던것처럼 진척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건설사업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진행하지 못하고있는 원인과 후과, 그로부터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에 들어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에 관한 우리 당과 정부의 구상을 정확히 반영하고있고 지역인민들의 리상에도 부합되는 지역의 새 계획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련속적이며 립체적인 사업들을 전개하여 이 지역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고자 우리 당이 내린 중대결정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여기 이 전망계획도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명년에 위화도와 다지도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온실종합농장을 크게 건설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최근 몇해어간에 동해지구의 중평과 련포 그리고 수도 평양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들을 건설하여 온실남새생산의 경제적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이제 여기에까지 온실바다를 펼쳐놓게 되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서 보다 큰걸음을 내짚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실종합농장건설사업을 인민군부대들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분담하여 치렬한 경쟁열속에서 우리의 창조력이 다시금 과시되게 하자고 합니다.

또한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위한 과학기술연구 및 보급거점으로서 현대적인 남새과학연구소와 시험재배온실들도 일떠세우고 일부 살림집과 편의시설도 새로 건설하여 섬지구를 발전잠재력을 가진 새 시대의 본보기농장으로 전변시키자고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압록강하류의 섬들과 신의주시, 의주군의 호안제방들을 더 든든히 보강하여 이 지역을 다시는 피해가 없게 완전히 요새화하며 새로 일떠선 주택구들에 정치문화생활거점과 봉사망과 같은 공공건물들도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일감들이 우리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거나 머물러있을수 없으며 이러한

건설사업은 나라의 국경관문도시들을 현대적으로 일신시키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필수적인 공정으로 됩니다.

덧붙여 설명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신의주시를 사회주의조선의 발전상과 위력을 직관할수 있는 현대성과 독창성, 민족성이 구현된 발전적인 도시로 개변시킬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여기 섬지역을 먼저 잘 꾸려놓고 신의주시까지 개변시켜놓으면 서북부의 지방도시가 정말 훌륭한 지역문화와 발전잠재력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명과 번영에로의 지름길은 열려져있으며 그 성공적인 질주는 우리의 투쟁여하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지휘부에서는 올해의 건설과정에 축적한 경험과 교훈들에 기초하여 공사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주도세밀하게 함으로써 당결정의 완벽한 집행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청년동맹일군들이 중요대상공사에 청년부대를 진출시킨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조직정치사업과 공사지휘를 잘하여 전 대오에 새시대 영웅청년들의 백절불굴의 전진기상이 시종일관 발휘되게 하고 대건설과정을 우리 젊은이들을 사회주의의 견결한 수호자, 믿음직한 건설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좋은 계기로 여기고 첨예한 정치투쟁의 전구, 거창한 개척투쟁의 불도가니속에서 그들모두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줄 알며 난관을 이기고 창조하는 법을 아는 시대의 힘있는 역군으로 육성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사업은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이 뚜렷이 발현되는 사업으로서 현시기 이 부문에서의 성과는 그 정치성과 직관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인민들에게 혁명위업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배가해주고 국가의 발전상을 힘있게 과시하는 정치적상징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사업의 전망적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대책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새시대 건설혁명, 지방건설의 새 전기를 급진적이며 지속적인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워 전면적국가부흥의 력사적위업을 실제적이며 동시다발적인 변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건설의 전문성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정책적요구로 내세우고 강력하게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건설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지출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으며 우리가 내세운 목표들에로 확실하게 도약해나갈수 있습니다.

머리수만 가지고 총동원가를 부르면서 건설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인해전술로써는 우리의 건설사업이 새로운 질적비약을 일으켜야 할 오늘의 시대에 부응할수 없습니다.

건설의 전문성을 높이자면 설계와 시공력량, 건설장비, 이 3 대요소를 중요하게 틀어쥐고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실력있는 설계가들을 많이 키워내는데 당적, 국가적인 품을 들이며 지방설계기관들을 재능이 있는 대상들로 잘 꾸리고 건설실천을 통하여 그들의 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주는것과 함께 설계에서 기능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보장하고 경제적효과성과 실리성을 잘 따지며 최적화, 최량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건설단위들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뚜렷한 목표와 방법론을 가지고 끊임없이 심화시켜 그 어떤 건설과제도 맡아 해제낄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의 전문화를 위한 3 대요소중 급선무는 건설장비를 개선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장기성을 띠는 건설사업의 특성과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작은 기공구로부터 시작하여 중기계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건설장비생산능력을 조성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전망계획을 세워 강하게 내밀어 건설부문의 발전을 든든히 뒤받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국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순간의 멈춤도 없이 줄기차게 끝까지 이끌어갈것임을 다시한번 굳게 확언하시면서 또다시 새로운 건설에 진입하는 전체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돌격대원들이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떨치고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당겨오는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의 참전자, 직

접적담당자라는 영예드높이 강의한 정신력과 애국적실천으로 조국번영사의 또 한페지를 빛나게 장식하리라는 믿음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새 살림집들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주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모든 가정들에 행복과 화목이 넘치기를 뜨겁게 기원하시면서 모두다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심이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올라 12 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새로 일떠선 농촌문화주택구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년대계의 제방들이 안전지대를 이룬 속에 고층, 소층의 현대적인 도시형농촌살림집들이 장관을 펼친 신의주시 하단리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몇달전 고무단정을 타고 침수지역을 돌아볼 때에는 집을 잃고 고생할 인민들생각에 마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던 이곳이 볼수록 훌륭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되였다고,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TV 와 가구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갖추어주기 잘했다고, 이제는 수재민들이 제 집에서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압록강류역의 재해복구건설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 국가고유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히였으며 지방중흥, 농촌진흥을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 발전공정을 경과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려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은것은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지켜주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고,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렇듯 훌륭하고 위대한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더욱 분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꾸려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국의 서북변에 높이 울려퍼진 위대한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만난시련속에서도 자기식의 발전관, 자기식의 발전방식을 확고히 견지하며 문명부강할 래일을 확신성있게 당겨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힘찬 전진기상을 과시하는 력사의 거대한 메아리였다.

3) 새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려

(1) 당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끊임없이 제고하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회의를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0 차 정치국회의가 2024 년 5 월 24 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전원회의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가 결정한 2024 년 국가사업방향과 제반과업들의 성과적집행을 위하여 상반년도 사업의 실태를 중간총화하며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전원회의를 소집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전원회의에 상정할 주요의정들을 개괄하시고 정치국 결정서초안을 제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6 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정치국은 당 및 국가사업에서 나서는 기타 중요문제들도 토의하였으며 최근 조성되고있는 군사정세에 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종합적인 보고를 청취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무력의 당면한 군사활동과업이 제시되고 그를 책임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지적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4 년 6 월 28 일부터 7 월 1 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4 년 6 월 28 일에 소집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가 결정한 2024 년 국가사업방향과 제반 과업들의 성공적관철을 위하여 상반년도 사업실태를 총화하고 하반년도 사업의 중심방향과 투쟁방침을 책정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본태와 인민적성격을 고수해나가는데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우리가 해마다 년말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집행을 위한 중간총화회의로서 6 월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있는 사업체계가 현재 우리 사업에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상반년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 그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하반년도 사업을 치밀하게 작전조직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도간부들의 사업작풍과 지도능력을 개선하는 문제, 나라의 사법제도를 보강완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전원회의에서 취급하게 되는 의안들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전원회의시작을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4 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2.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3. 중요부문의 사업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4. 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5.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참가자들은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당과 인민이 나라의 대내외적환경이 극도로 첨예한 속에서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적과업들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상반년기간에 이룩한 괄목할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상반년기간 당 및 국가경제정책집행에서 나타난 일련의 결점과 페단들이 자료적으로 통보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였다.

지도간부들은 자기 부문에서 전원회의결정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들과 편향적문제들을 분석하고 시급히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을 전원회의에 제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 《2024 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가 결정한 투쟁목표들을 달성해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요인,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사업과 사회생활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와 난점들이 조성된 속에서도 경제분야에서 이전과 명백히 구별되는 긍정적추이와 장성속도가 이룩되고 나라의 각 부문이 완강히 일어서고있는것은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특유의 발전력이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 급속히 자라나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상반년도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전면적인 고조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애국으로 굳게 단결되고 새시대 천리마정신으로 승화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패기만만한 투쟁기세와 불가항력적힘에 의해 이룩된 활기찬 형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 위

업과 투쟁전망에 대한 확신을 백배하면서 당 제 8 차대회 결정관철의 믿음직한 실천적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 하반년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계획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는것으로써 국가의 무진한 발전력과 전진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과 결함들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시고 5 개년계획에 예견된 경제발전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착실하게 밀고나가며 경제전반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상세히 밝히시였다.

결론에서는 현 경제사업실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내각이 경제전반을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하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예견성있게, 방법론있게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명확한 실천방도들이 제시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을 당적, 국가적으로 강력히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내각,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 해당 도, 시, 군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건설공사가 힘있게 진척되는데 맞게 설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원료, 자재준비를 책임적으로 하여 생산에 들어간 첫해부터 당의 지방발전정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해에 공사를 진행할 시, 군들을 선정하고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무적대책들을 명시하시였다.

또한 나라의 경공업발전토대를 다지는 사업을 예견성있게 전개하며 내각과 평양시에서 수도시민들의 생활개선과 관련한 올해 사업계획들을 무조건 집행하고 도, 시, 군들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력의 발동과 제고를 앞세우는것을 인민경제발전 12 개 중요고지를 비롯하여 2024 년에 계획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중대사업들을 성공적인 결실에로

이어놓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시였다.

결론에서는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확립하고 유리한 발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최근시기 전사회적으로 높이 발양되고있는 청년들과 근로단체동맹원들의 애국심의 전통적기질과 본때가 년말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도록 근로단체사업을 보다 목적지향성있게, 박력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방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 년의 사업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활동성여하에 달려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고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막중한 책임을 다해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인민들앞에 그 무조건적인 집행을 다짐한 혁명과업들의 무게를 항상 되새겨보면서 전면적발전국면을 힘차게 열고있는 무비의 전진력과 더 양양해지는 혁명전도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고 자랑찬 변혁적성과로 이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더욱 분투해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2024 년의 승리적결속에로 향한 전진보폭을 줄기차게 내짚을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로와 사회주의건설의 상승국면을 계속혁신, 련속도약에로 이어나갈 투쟁방략이 뚜렷이 명시된 **김정은**동지의 결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셋째 의정 《중요부문의 사업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넷째 의정 《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2024 년 하반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적극적

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기안하며 의정토의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심의하는 여러 부문들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협의회들을 지도하였다.

각 부문 분과들의 협의회들에서는 결정서초안에 대한 진지하고 동원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건설적인 의견들이 충분히 제기되였으며 과학성과 객관성, 실현가능성의 견지에서 엄격히 검토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1 차 정치국회의가 7 월 1 일에 소집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각 부문 분과들의 협의회들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심의하고 최종확정한 결정서초안들을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3 건의 결정서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권위와 위대한 혁명사상의 불패의 위력으로 공화국의 발전사를 존엄과 영광, 번영의 백년대계로 이어가며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인민의 리상사회를 펼쳐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와 전투적기상을 더욱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끝마치시는 길로 국가경제발전을 새로운 상승기에로 고조시키고 사회주의건설전반이 창조와 변혁으로 끊어번지게 하기 위한 구상을 안으시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7 월 2 일 나라의 방위력강화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국방공업기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나라의 산업건축과 생산공정현대화,

원림록화를 비롯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의 본보기단위, 표준기업소로 일떠선 국방공업기업소는 상반년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2024년도 군수생산목표점령을 위한 증산투쟁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가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지능화, 정밀화, 고성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무인흐름식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공업이 도달한 현대화의 높이는 기계공업부문만이 아닌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딛고 올라서야 할 기준이고 목표이라고 하시면서 경제부문의 모든 단위들의 생산공정현대화사업을 정확히 조직지도해나가기 위하여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부터 철저히 학습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통합생산지휘실에서 기업소가 구축한 통합생산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생산지휘의 정보화수준을 부단히 갱신해나가며 그 성과와 경험을 경제부문전반에 신속히 확대도입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날로 승화되는 주체적국방공업의 급진적인 발전상을 뜨겁게 체감하였으며 더 높은 현대화목표실행에 매진해가고있는 이곳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도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대책안들을 무르익히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자합숙과 문화회관, 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고 기업소에서 로동자들의 생활문화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기계공장을 찾으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공장의 발전전망에 대한 해설을 듣고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의 전초를 지켜가는 로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높은 증산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적극 고

무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날 저녁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의료기구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돌아보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수십종에 달하는 성능높은 의료기구들과 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위대한 국가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전위적, 핵심적역할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앞당겨오려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리념과 원숙한 령도력은 국가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창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치며 이 땅의 한해한해를 혁혁한 성공과 승리의 봉우리로 력사우에 거연히 떠올리고있다.

5 개년계획수행의 승산을 확정짓는 2024 년의 출발선에서 시대와 인민이 부여한 중책에 절대의 헌신으로 보답할 맹약을 영광의 당기에 담아 엄숙히 선언한 당중앙위원회는 명확한 투쟁방략과 전략적인 결단, 드팀없는 집행력으로 극난한 시련속에서도 2024 년을 확대장성된 성과들로 가득찬 변혁의 해, 도약의 해로 전환시켰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륭성기의 도래와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변하고 흥하는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의 중대한 변화를 눈앞의 현실로 체감케 한 지나온 한해의 영예로운 행적은 당 제 8 차대회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행과 계속하여 줄기차게 달성될 새 승리를 떠받드는 고무적인 초석으로 된다.

견인불발의 완강한 투쟁과 노력으로 딛고넘어온 무수한 도전의 고비들과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발전공정들을 경과하면서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잡은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불변의 신념이고 당당한 자부심이며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영광도 그 품에서만 꽃피고 담보된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다.

자기 위업, 자기 리상의 성공적결실을 확연히 내다보고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자주, 자립, 자위의 길로 줄기차게 용진하는 조선식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하며 보다 큰 승리에로 향한 거폭적인 전진발전의 힘찬 보무를 열망하고있었다.

시련보다 강하고 도전보다 거세찬 공화국과 조선인민특유의 불가항력으로 전취한 2024 년의 괄목할 성과들을 총화하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2025 년의 당 및 국가사업 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1 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4 년 12 월 23 일부터 27 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특출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령도실천으로 가장 정의롭고 존엄높은 륭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대표자이시며 주체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의 전 방면에서 새로운 변환적국면을 열어놓는 의의깊은 사변들을 이룩하였으며 이는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필수적인 괄목할만한 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한해 투쟁결과를 총화하는 마당에서 당중앙은 마땅히 성과보다 그것이 세부적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결점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것이 옳바른 태도이고 혁명적인 자세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

는 부정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당중앙위원회 제 8 기기간의 마지막해인 2025 년에 당대회결정을 드팀없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실속있게 세워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4 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5 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2.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 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

3.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

4.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

5. 2024 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 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6.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

7.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4 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5 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 제 10 차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9 차, 제 22 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이룩한 성과들과 그 과정에 발로된 결함들이 상세히 지적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분투와 변혁의 한해로 자리매김한 2024 년의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2024 년의 주요성과들을 개괄하시였다.

조선에서는 2024 년에도 정치군사분야의 강화발전에 계속적인 힘을 넣어 공화국의 절대적위세를 더욱 상승시키고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발전

을 확고히 담보하였다.

전당적으로 조선로동당특유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전체 인민의 애국적 열의를 새시대 천리마정신의 창조에로 승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가 강화되였으며 이 과정은 그 어떤 난국도 과감히 딛고 기적을 떠올리는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4 년에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사에는 또 하나의 전례없는 기록이 새겨졌다.

2024 년 일부 지역들에서 큰물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조선로동당은 적시적인 결심을 내려 방대한 복구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재민들을 수도 평양에 올려다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보장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키였다.

이 중대조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잃은것이상으로 위해주고싶은 진정과 성의, 후대육성을 제 1 의 국사로 내세우는 교육중시의 표시로서 당과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더한층 두터이 하고 당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결과를 낳았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사수와 주권수호의 근본담보인 강력한 자위국방건설에서 사변적인 성과들을 쟁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결론에서는 극도로 악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단호한 강경대응태세를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전력강화로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적억제력의 실체를 과시하고 국방과학기술력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과 현대성, 무시할수 없는 국제적지위를 세계앞에 똑똑히 시위한것을 비롯하여 강군건설위업수행에서 국방과학 및 군수공업부문이 거대한 활약을 보여준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결론에서는 국가경제전반이 장성추이를 확고히 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인민경제발전 12 개 중요고지들이 성공적으로 점령되였으며 금성뜨락또르공장 2 단계 개건현대화공사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비롯한 정비보강대상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자립경제의 발전동력과 잠재력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또다시 풍년을 안아오고 관개건설 및 환원복구 2단계 공사가 4월까지 전부 결속되여 농업생산의 물질적토대가 한층 강화되였다.

건설부문에서도 수도의 화성지구에 건축미학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발전된 1만세대의 살림집들을 또다시 일떠세우고 검덕지구의 2024년 살림집건설과제를 결속하였으며 많은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을 완공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에서 방대한 큰물피해복구과제가 완수되여 농촌문화도시의 새 변혁상이 펼쳐짐으로써 지방건설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무진장한 자생자결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당원들과 청년들, 인민군군인들을 애국적인 실천투쟁에서 성장시키는 성과를 쟁취하였다.

결론에서는 과학 및 문화분야에서 전인민적인 창조투쟁과 국가부흥발전을 촉진하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결실들을 안아온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점과제들이 완수되고 기간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의 생산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진일보가 이룩되였으며 교육, 보건, 문학예술분야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였다.

녀자축구선수들이 아시아컵경기대회와 월드컵경기대회들에서 련전련승을 기록하고 력기와 탁구, 권투, 태권도 등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확고히 쟁취한것도 2024년 총화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지방의 동시균형적발전과 전국인민들의 실제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책정하고 그 완벽한 첫 실체들을 떠올림으로써 전국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창조적의욕과 자신심을 배가해준데 대하여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맞다드는 도전과 난관들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당결정을 충실하게 관철함으로써 5

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인 한해를 줄기찬 분투와 애국헌신의 의의있는 창조적, 혁신적성과들로 가득채운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결론에서는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이 미숙하고 건설사업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진행하지 못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혁명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일련의 편향과 결점들에 대하여 지적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5 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단계의 발전로정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공정을 실속있게 추진하는것을 2025 년도 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전반의 장성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속, 화학, 전력, 기계,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이 점령해야 할 목표들을 명시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새 년도에도 방대한 건설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리상실현에로 또 한번 비약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2025 년에 화성지구 4 단계 살림집건설을 추진하여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마감하는것과 함께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농촌살림집건설을 계속 밀고나가며 특히 지방중흥의 대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및 공공시설건설에 힘을 넣으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또다시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 바다가양식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결론에서는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며 국가적으로 재해방지사업과 관련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구조용장비들과 구호물자비축 등 재해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큰물경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재해를 최소화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또한 나라의 경제구조와 구체적실정에 부합되면서도 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와 방법, 계획화사업과 가격사업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절실한 방법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 예견된 경제장성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기본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책정하고 추진해온 주요정책적과업들을 더욱 완강하게 내밀어 다음해에는 보다 뚜렷한 성과들을 안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025 년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것이다.

결론에서는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농사를 중시하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집행을 떠메고나갈 인재대오, 사회주의농촌을 변혁시킬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워내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질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초식품과 필수소비품들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책임적으로 집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였으며 수산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방도들이 명시되였다.

결론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에로의 첫단계 개척투쟁, 변혁투쟁을 결속하게 될 새 년도의 진군에서 과학과 문화전선의 역할증대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당 제 8 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마지막 돌격전의 승리를 확실하게 안받침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이어놓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루어내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치료예방사업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수 있는 방역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체육부문이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창조, 위력한 언론공세, 우승의 체육성과로 시대를 진감시키고 온 나라를 격동시키며 혁명적기세를 앙양시켜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조국의 발전사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리정표를 세우게 될 다음해 투쟁에서 활력있게 움직여야 할 력량은 근로단체조직들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우리당 청년중시정치에 담겨진 뜻과 의도를 명줄로 간직하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4 년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제고하고 대외적진지를 공고히 다지는데서 이룩된 성과들과 자주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립지가 급격히 약화쇠퇴되고있는 현 국제정세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공화국은 준엄한 지역정세와 류동적인 국제관계구도변화에 기민하고 령활하게 대응하면서 신성불가침적인 국가의 주권적권리들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전망적인 국익증대와 국위선양의 견지에서 중대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적립장과 투쟁방향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력량으로서의 국제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

결론에서는 대외부문에서 당의 대외전략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국면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적과업들이 제시되였다.

결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이 천명되였다.

대외사업부문이 국위선양,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주권적권리수호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공화국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명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당군으로, 사상과 기술강군으로 철저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를 군건설의 제 1 의 전략적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으로 억세게 키우며 특

히 투철한 대적의식과 절대불변의 주적관, 철저한 결전의지를 만장약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그리고 변화되는 적들의 전쟁기도와 수행방식에 대처하여 전법연구를 심화시키고 작전지휘의 정보화, 현대화실현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과학적인 훈련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적용하여 인민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한다.

민방위부문의 전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도 계속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증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가속적인 진보와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자위적전쟁억제력강화를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 8 차대회 결정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다음해의 투쟁은 해당 부문과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의 기능과 활동성을 보다 배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에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더욱 분발하여 제시된 투쟁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전당의 당일군들이 구호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에 담겨진 참뜻을 다시금 똑똑히 새기고 당중앙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앞으로도 극난한 형세는 지속될것이지만 건국이래 미증유의 새 변혁시대를 열어온 올해의 격렬한 투쟁행정에서 찾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 더 백배해진 자신심과 주체적힘은 우리가 목적한바를 반드시 빛나는 성취에로 추동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보다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두어깨우에 억척같이 걸머지고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2025 년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더욱 과감하게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당의 당원들과 전국인민이 충성과 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력으로 떠올린 2024 년의 영광을 2025 년에로의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에로 빛나게 이어놓고 국가부흥의 력사적진군을 비상히 가속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방략들이 뚜렷이 명시된 **김정은**동지의 결론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결론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에로의 장엄한 려정을 시작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투쟁목표의 완벽한 실행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고 거폭적인 확대에로 끊임없이 승화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실천강령이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 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해당 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새시대 당규률건설로선관철과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언급되고 각급 당검사위원회들에서 발로된 편향적문제들이 엄정하게 지적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4 년도 사업정형에 대해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중대한 정치적문제로,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간주하고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전국의 인민들에게 10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제공하며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 창당이래,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결단이며 전례없이 방대한 창조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도전과 난관이 의연 엄혹하고 이제 남은 5 개년계획수행기간에 추진,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아름찬것임에도 불구하고 근 80 년간 리상으로만 되여온 지방변혁의 중장기과제를 단연코 정책화하여 지체없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한것은 그야말로 새 력사를 창

조하는 일대 혁명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러한 거대한 변혁적로선, 지방발전의 실천강령을 확정하고 손색없는 실체로 옮겨놓는데는 정말 쉽지 않은 숙고와 용단, 분투가 요구되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흥시키는것은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인 동시에 당과 정부의 기본정치리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발양하기 위한 절박한 정치적과제로도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4 년 1 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9 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매해 20 개의 시, 군들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속속 일떠세움으로써 10 년을 기한으로 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지방발전정책실현의 전위에 선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존엄과 군대의 명예를 걸고 비상한 책임감과 량심으로 일관된 백방의 노력을 건설의 완벽한 질적보장에 기울임으로써 지방중흥의 첫 산아인 새 공장들을 시대의 사상과 국력, 문명의 높이에 상응한 창조물들로 손색없이 일떠세웠으며 기계, 건재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자재와 설비, 기술보장을 담당한 여러 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도 견인불발의 완강성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생산과제수행과 연구개발사업에서 귀중한 결실들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동해안의 신포시에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으로 되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가 건설되여 바다를 끼고있는 시, 군들이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는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고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과 장성을 이룩할수 있도록 적극 도모하고 추동하는 사업들도 각방으로 추진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첫 산아들이야말로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스러운 우리 투쟁의 결실이며 그 무엇에 비길데 없는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번영의 증명이라고 하시면서 비록 당과 정부앞에 일감이

배가되고 걸머진 중하는 더 무거워졌지만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비상히 상승, 확대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은 획기적전진의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시, 군들마다 몇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세우는것만으로는 지방에 남아있는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우에 올려놓기에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고 전국의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중심, 량곡관리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기로 한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3 대필수대상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구체적인 건설방향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 단계에서 상기 건설대상들을 정확히 실용성있게 완성하고 원만히 운영할수 있게 하여야 지방발전의 근간을 확실하게 세울수 있으며 시, 군들이 동시적으로 변모되고 부흥하는 활기찬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량곡관리시설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정식 포함시킬것을 전원회의에 제의하시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지방의 세기적락후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실행대책들이 뚜렷이 명시된 지방발전대강에 절대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방발전에서 필수적인 선진적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거점, 일체화된 량곡관리시설을 지방공업공장들과 병행하여 건설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고생을 천분으로 여기시고 만짐우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결행하실수 있는 중대국사이며 력사적대업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지방의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견인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완벽한 실행을 철저히 담보해나갈 굳은 결의

를 다짐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해당 의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넷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 1 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진흥의 선차성과 필수성, 그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 제 8 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에 따라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고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으며 교육자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는것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이 일관하게 집행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자부할만한 질적변화들도 가져왔지만 전반적인 교육토대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의 현 실태를 엄밀하게 분석하시고 교육토대강화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적힘을 투하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하고도 중장기적인 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국가건설을 목표한 이상 우리는 학용품과 교구비품, 교육기자재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조건, 학습조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에로 확고히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 상기의정을 특별히 상정시킨 의도와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교육토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실행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토대강화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학교개건현대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드팀없이 강하게 밀고나가며 앞으로 10 년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일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결론에서는 보통교육부문에서 기초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교육자들의 자질을 제고하여 교육부문을 전반적으로 추켜세우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일데 대하여서와 국가적으로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교육부문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고 사람들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교육사업은 마땅히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되여야 하며 오늘 우리 혁명실천은 교육지원사업에 더욱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당과 혁명의 전도, 조국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책임지려는 일군이라면 교육문제해결에 항상 주목을 돌리며 크든작든 자기 소관으로 떠맡아 풀어나갈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진흥에 국가의 전면적부흥, 지방중흥과 농촌진흥의 줄기참과 양양함도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창조와 변혁의 진폭이 커질수록, 부과된 혁명과제가 거창할수록 교육을 항상 선차에 놓고 우선권을 부여할것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가적지원과 투자를 계속 늘여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다섯째 의정토의와 관련하여 전원회의는 국가예산심의조를 조직하여 2024 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 년도 국가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의정토의에서 하신 말씀과 강령적인 결론들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2025 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2 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협의회들에서는 결정서초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2024 년의 투쟁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토의되였으며 이 과정에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4 차 정치국회의가 2024 년 12 월 27 일에 소집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결정서초안들을 수정보충하여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예산심의조가 2024 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 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한 정형을 검토하고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5 개년계획의 2025 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새로운 지방발전전략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길데 대하여》, 《나라의 교육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2024 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 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2 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5 년은 우리 당이 창건 80 돐을 맞이하는 의의깊은 해인 동시에 제 8 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앞에, 인민앞에 총화짓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개척과 약진의 4 년간을 초월하는 비상한 슬기와 용맹, 책임적인 노력과 줄기찬 분투로 임기의 마지막해인 2025 년을 우리당 령도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국가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기적적성과들을 쟁취함으로써 당 제 9 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떳떳하게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4 년 12 월전원회의는 수천만 인민들의 크나큰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정책관철의 제 1 서렬, 제 1 전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직책상임무에 끝까지 충실할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비등된 열의속에 자기의 책임적인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2)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천추만대로 이어나가시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두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 차, 4 차, 6 차, 9 차전원회의들은 당의 후비간부들을 체계적으로 튼튼히 육성하며 그들을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과 새시대 당건설로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문제를 현시기 당강화를 위한 중대요구로 제기하고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규모와 수용능력, 교육조건과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정치학원으로 새로 건설할데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왔었다.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지침들과 투쟁방략들을 명확히 제시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잘 꾸리고 당일군들을 훌륭히 키우는것은 조선로동당의 교대자들을 육성하는 당의 전망적발전문제, 나아가 혁명의 계승과 직결되여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건설부지도 몸소 잡아주시고 설계중심과업들도 세심히 가르쳐주시며 중앙간부학교를 대학우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일류급대학으로 일떠세울데 대한 당중앙

의 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 드높은 자각과 의지를 안고 낮과 밤을 불같이 이어온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2023 년 4 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 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거쳐 당의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건설이 드디여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현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존엄과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을 상징하며 권위있는 교육기관의 면모와 품위를 확연하게 드러낸 학교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흠잡을데 없는 **김일성-김정일**주의학원, 주체사상학원이 일떠섰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무 및 사무구획, 문화 및 체육시설구획, 생활구획 등 모든 구획들이 당간부양성기지로서의 성격에 어울리게 무게있으면서도 현대적으로, 자기의 사명과 기능,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잘 꾸려졌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설계부문 및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양구획건설에서 발로된 일부 결점과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그를 퇴치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기 위한 마감전투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완공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현지지도하시며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새시대 5 대당건설의 휘황한 진로를 따라 전당강화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인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주체건축과 주체교육부문의 본보기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5 월 15 일 완공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용한 기상과 성격을 진하게 비껴안고 솟아올라 조선로동당 천만년미래의 굳건함을 확신케 하는 웅장한 교육전당의 전경을 부감하시며 보면 볼수록 위엄있다고, 정말 본보기적인 교육기관다운 학교를 우리 손으로 일떠세웠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양구획과 교무행정청사, 교사 종합강의실, 다기능강당, 회의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와 식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3 월 30 일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들을 집행한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부문 및 시공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지난번에 지적한 문제들을 옳바로 퇴치하고 건축마감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과 조건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흠잡을데없이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축물의 구조적특성도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원리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원림록화사업도 세계적수준에 부합되게 높은 경지에서 실현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는 정치성과 현대성, 실용성이 확고히 보장된 만점짜리 교육시설이라고, 우리 나라 교육기관들가운데서 최고의 기준을 창조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시대를 대표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치학원으로 거연히 일떠선 중앙간부학교가 진짜배기 핵심골간들,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들을 키워내는 자기의 중대하고도 성스러운 사명에 항상 충실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영원무궁한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오는 개교식을 앞두고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하여서와 준공식을 정치적의의가 크게 훌륭히 조직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위대한 당중앙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인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유서깊은 금수산지구에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존위와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의 상징물로 거연히 일떠서 준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백년미래와 관련된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을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학교건설부지를 잡아주시였으며 설계도에 당의 조직사상적강화와 령도활동을 교육실천적으로, 학술적으로 안받침하는 연구중심다운 면모와 품위가 집대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장구하고도 영광넘친 조선로동당건설사에 커다란 공헌을 한 정치학원을 명실공히 세계일류급의 교육기지로 건설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당건설위업을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지를 무비의 전투력과 창조실력으로 받든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착공된지 불과 1 년 남짓한 기간에 주체건축과 주체교육부문의 본보기적인 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되였다.

조선로동당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으로서의 정치적성격과 교육환경적인 면에서 리상적인 터전우에 일떠선 학교는 13 만 3 000 여㎡에 달하는 연건축면적에 교무 및 사무구획, 문화 및 체육시설구획, 생활구획 등이 자기의 사명과 기능, 용도에 맞게 현대적으로, 실용적으로 꾸려져있으며 선진적인 교육체계와 높은 수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 5 월 21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을 기념하여 강령적인 연설 《창당리념과 정신에 충실한 새시대 당간부들을 키워내라》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로동

당 중앙간부학교가 자기의 지위와 무게에 상응하게 보다 새로와진 모습을 청사에 새기는 시각을 맞이한 격동의 심중을 피력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무궁한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여러해동안 품들여 준비하여온 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여 조선로동당 핵심육성의 원종장, 당건설과 당활동을 사상리론적으로 안받침하는 연구중심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세계일류급의 학원이 웅자를 드러낸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귀속말 마디마디까지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다 들으실수 있는 성지의 지척에, 주작봉에 오른 투사들이 늘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 우리 당의 계승의 원종장을 두었다는 사실은 영원불후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영원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위업에 충직할것을 맹세하며 투사들앞에 부끄럼없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기어이 완수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전체 당원들의 철석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사로운 준공식의 자리를 빌어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가장 정확하게 실천된 애국충성의 결정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시대의 걸작품을 높이 떠올리기 위하여 무비의 전투력과 창조실력, 비상한 사명감으로 충만된 나날을 불같이 이어온 근위 영웅건설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설계부문의 일군들에게도 감사를 표하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의 줄기찬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설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서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에 전심전력하고있는 중앙간부학교 교원, 연구사들과 당간부양성기관의 교육일군들, 훌륭히 꾸려진 정치학원에 첫 입교를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와 고무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전망적발전과 혁명위업의 계승과 직결되여있는 혁명가양성의 최고전당의 새로운 탄생이 가지는 심원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당의 투쟁강령과 성격을 고수하고 고유의 본태와

기풍을 유지강화하는 문제는 결코 집권력사가 오래고 과거의 훌륭한 전통이 있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의 당이 위대한 창건과 영광스러운 력사를 계승하고 집권력과 령도력을 유지강화하여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서 당간부양성의 든든한 거점이 가지는 중요성과 창당초기부터 당간부대렬의 순결성을 튼튼히 지켜내는 믿음직한 근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여온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성스러운 행로와 자랑찬 명함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집권력사를 떠받들어온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근 80 성상은 계승의 력사적위업은 당간부후비를 무장시키고 키우는 원종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당과 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지향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최우선시되여야 할 사업은 당간부양성기지를 훌륭히 꾸리는것이라는 진리를 깨우쳐준다고 하시면서 이는 곧 우리 당의 전략적가치관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적인 학원으로 건설하는것은 단순히 교육기관의 면모를 일신하는 사업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명맥과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천추만대로 이어나가기 위한 최중대사이라고 강조하시고 누구든지 여기에 와보면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절대적인 집권력과 령도력이 어떻게 영구화되는가 하는데 대한 명백한 대답을 찾을수 있고 앞으로도 당간부양성을 천사만사에 확고히 앞세워 주체혁명의 영원한 계승성과 불패성을 지켜내려는 조선로동당의 견결한 의지를 읽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발전로정에서 또 한차례의 전환기를 마주하고있는 오늘 당자체발전의 견지에서나,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수행의 견지에서나 환경과 조건은 지난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이로부터 조선로동당이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당건설로선을 책정하고 당건설의 중요 5 대분야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그 실행을 각방으로 추진해온 정형에 대하여 소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건설의 현 단계와 전망적발전에 있어서, 당

의 투쟁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핵적인 과제는 간부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3 대필수적기질로 철저히 확립하고 제고하는것이라고 지적하시고 당이 질적공고화의 중대한 시점에 들어선 현실적요구에서 출발하여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새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당창건위업을 완수한 1 세대 혁명가들의 리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것을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제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것이 우리 당간부대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가급적으로 이루어낼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당건설의 전성기를 실제적으로 열어나갈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확언하시면서 력사와 업적이 루적될수록 성스러운 첫 페지를 귀중히 간직하고 변함없이 꿋꿋이 이어나가는것, 이것이 곧 혁명적당의 불패성의 담보이며 집권법칙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준공식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당건설과 혁명위업계승의 합법칙성과 더불어 그 누구에게도 떠맡길수 없는 중앙간부학교의 사명과 임무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중앙간부학교를 새시대 공산주의자육성의 원종장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공정에서 나서는 제반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을 대학우의 대학, 교육부문의 본보기로 만드는것은 그 자체가 당사업의 주요요소이고 연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강력한 전략적거점을 가짐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교대자들을 훌륭히 질적으로 키워낼수 있는 밑뿌리를 가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중앙간부학교가 교육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원칙들을 밝히시고 각급 당간부양성기관들의 교육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편향들을 분석하시였으며 교육사업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조선로동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것이 우리 당건설사상의 중핵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은 바로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더욱 강해질것이며 우

리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다시금 위대하게 전환시키는 긍지높은 력사를 창조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전당의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념원, 사회주의리념에 가장 충실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정통성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며 전투력과 령도력에 있어서 탁월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의 불후의 존엄과 영광은 더욱 찬란히 빛날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직원들의 맹세문이 랑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새시대 5 대당건설의 휘황한 진로우에 거룩히 아로새겨질 력사적인 화폭이 펼쳐진 준공식장에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축포탄들과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준공식은 《인터나쇼날》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한 발기와 령도에 의하여 1946 년 6 월 1 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당간부들을 키워내는 상설적인 당학교로 창립된 때로부터 근 80 년간 전당강화와 당건설의 대를 꿋꿋이 이어놓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언제나 조선로동당의 힘으로, 자랑으로 되여온 중앙간부학교의 연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역할이자 우리 당의 강화발전이고 우리당 강화의 천사만사, 우리 당건설의 천만년미래가 이 정치학원의 매 걸음걸음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건당위업의 개척세대가 넘겨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순결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승함으로써 우리 당의 굳건한 존립과 승승발전을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 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교육과학전시관, 당건설과목학습실, 3 호강당 등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에서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년대의 력사적투쟁

행정에서 탐구, 정립하고 실현하고있는 중요한 사상리론들과 실천경험들을 계승성과 혁신성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신속하게 학술적으로 종합체계화, 풍부화하여 교육사업에 구현하고있는데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교직원들이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에 몸을 적시고 학생들의 온 넋을 붉게 만드는것이 당의 미래를 가꾸는 학교의 근본사명이라고 하시면서 각급 당간부양성기관들의 교육사업을 개선하는 견인기적역할을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당중앙의 높은 요구를 교육혁명의 일대 분투로써 받들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전략적, 력사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의 줄기찬 계승과 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교단을 지켜가는 교직원들과 사랑과 믿음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을 기념하는 공연이 진행되였다.

이민위천의 반석우에 주체혁명의 기치로 탄생하여 창당의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혁명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을 지닌 영웅인민을 키우고 자주, 자립, 자위로 굳건한 강국에로의 길을 개척하여온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격찬하는 전인민적송가들이 숭엄한 경의심을 분출시키며 울려퍼졌다.

공연이 끝나자 눈부신 축포의 화광속에 또다시 격정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과 뜻과 의지, 실천을 같이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더욱 견실하게 분투해나갈 충천한 열의에 넘쳐있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서 뜻깊은 기념사를 하시며

성스러운 창당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주체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억척같이 담보해나갈 당핵심골간들을 육성하는 권위있는 혁명대학으

로서의 면모를 최고의 경지에서 갖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뜻깊은 창립 78 돐을 맞으며 개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2024 년 6 월 1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교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사를 하시였다.

《동지들!

나는 오늘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창립일을 기하여 진행되는 이 개교식에 참가한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이 숭엄히 우러르는 혁명의 대전당에서 첫 교편을 잡게 된 교원동지들과 한생 잊지 못할 첫 수강을 하게 된 학생동무들의 긍지와 기쁨 또한 그 어디에 비길데 없을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보람차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새 교정에 이렇게 정렬한 동지들의 모습을 보니 커다란 기대와 더불어 고여온 진정이 충실한 열매로 맺어질 날이 눈앞에 보여와 감개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큰 몫을 감당할 끌끌한 기둥감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국방분야의 중책을 맡길 우리 당의 중진들이 나오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중에 가장 가치가 큰 일을 해놓았다는 자부로 가슴이 후더워집니다.

지난 년간에 우리의 추억속에 깊이 새겨진 성대한 축제들도 많았고 괄목할 사변들도 많았지만 여기서 조선로동당의 미래를 보는 오늘만큼의 체험은 한생 잊혀질것같지 않습니다.

력사는 지난 5 월의 준공식과 함께 이 개교식을 10 년, 20 년후에 그 의의가 더 선명해지고 부각될 전략적인 행보로, 우리 당과 조국의 앞길에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해준 뜻깊은 의식으로 빛나게 기록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건설의 새시대, 우리당 강화의 최전성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실제적인 막을 올리게 됩니다.

나는 오늘 영광스러운 정치학원의 개교식에 다시한번 가장 뜨겁고도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새시대 당건설의 주역을 맡을 동지들의 새로운 결의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건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다는것은 이미 구상이나 리론, 설계의 단계를 넘어 급진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현실적과제로 되였습니다.

당중앙의 사상과 로선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옳게 구현하여 강대하고 문명하고 선진적인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석이 될 당일군인재에 대한 요망은 지극히 절실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집권당에 있어서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만한 당간부인재야말로 가장 값있고 결정적인 자원이며 그의 역할은 혁명과 건설이 멀리 진척될수록 더더욱 중시되게 되여있습니다.

본 학교의 특징이 세계에 빛나는 인민의 국가를 건설할 당간부들을 키워내는것임을 상기할 때 학교의 사명은 더한층 영예로운것이며 동지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운것입니다.

중앙간부학교의 교원동지들과 일군들에게 기대하는것은 모든 학생들을 전당을 이끄는 능숙한 당간부로, 국가사회발전의 모든 분야를 선진적이며 문명한 발전의 궤도로 줄기차게 인도하는 유능한 지휘관들로 키워내세워달라는것입니다.

동지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총궐기한 천만대중을 이끌수 있는 정치활동가, 인민들이 자진해 따르는 그러한 당일군들을 키워내는데 교육자적자질과 당적량심, 혁명적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어야 할것입니다.

공화국 최고정치학원의 영예로운 학생동무들!

동무들은 앞으로 한개 부문, 한개 분야, 한개 지역의 당사업을 맡아할 우리당 중견간부후비들로서 정치지식과 실무능력을 하루빨리 겸비할수 있도록 학업의 높은 성과를 쟁취함에 진심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의 학습목표는 한곳에 정체되여서는 안되며 불타는 향학열은

식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정전체가 독서열, 학습열로 항상 달아올라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 9 기 연구원 2 년제당건설전공반과 제 33 기 2 년제당건설학과에서 공부할 동무들을 비롯하여 이번에 새로 입학한 170 여명 신입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창립이래 수십차의 개학식이 있었지만 새로 건설된 중앙간부학교의 첫 입학생이라는것은 자서전의 한페지에 당당히 기록될 자랑입니다.

이 긍지와 영예를 드높은 향학열과 학업성적으로써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동지들!

항상 행복한 날보다 준엄한 날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투쟁속에 놓고 사는것이 참된 조선로동당원의 자세이며 혁명가의 영광입니다.

나는 동지들이 오늘에 다짐하는 훌륭한 결의들을 꼭 실천하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나라의 힘있는 역군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성지에서 온넋과 피와 살을 붉은 일색으로 물들인 새시대 혁명인재들은 우리 당의 주력으로서 거창한 사회적변혁의 수레를 억세게 끌고나가게 될것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개교식이 새시대 우리 당건설사에 위대한 페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중앙간부학교가 당과 인민의 자랑이 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것임을 확언하며 개교식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나는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계승을 담보하고 실현하는 성업에서 중앙간부학교가 응당 전위에 서리라는 확신을 굳게 표명하면서 학교에 조선로동당기를 수여하겠습니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정치학원이 자기의 중차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휘황한 진로를 명시하시고 빛나는 성공과 줄기찬 도약에로 이끌어주시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혁명적당건설의 거장이신 위대한 스승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김정은**동지께서 성스러운 조선로동당기를 중앙간부학교 교장에게 직접 수여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기앞에서 전체 학생들이 선서를 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독창적인 5 대당건설리론과 당사업실무에 정통하며 붉은기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붉은기정신의 체현자, 조선로동당의 영광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주체혁명의 기수가 되여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과 당중앙의 령도에 충실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개교식은 《인터나쇼날》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교육강습에 참가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을 만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정의롭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혁명을 이끄는 우리 당의 무비의 향도력은 다름아닌 당간부진영의 능력과 질적수준에 기인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 특히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부터 당성, 혁명성단련의 용광로인 당학교에서 정기적인 재교육을 거쳐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수양하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부단히 혁신해나가는것은 전당강화에서 매우 의의있는 공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전교에 혁명적인 학풍, 엄격한 교풍을 세우는데서도 본보기, 거울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을 투쟁하는 당, 일하는 당으로뿐 아니라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 때 조선로동당은 명실공히 정치적으로 원숙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규률에서 엄격하며 작풍에서 건전한 가장 존엄높은 사회주의집권당의 위용을 계속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교육강습을 받는 학생들의 첫 강의를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의 전 과정을 주의깊게 청강하시고 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한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탄생하고 공고화되여 그 불멸의 생명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는 주체의 혁명사상은 선행한 리론들의 제한성과 미결과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한 위대한 혁명학설, 영원한 만능의 혁명대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간부학교의 사명과 임무, 시대적요구에 맞게 당성단련을 기본으로 하면서 원리교육과 실천교육을 원만히 할수 있게 교

육강령을 심화시키고 정확히 집행해나가며 모든 교육교양과정과 일상생활이 학생들로 하여금 당사업, 혁명사업에 필요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공산주의자적품성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어나가는 훌륭한 수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정치학박사이며 부교수인 **김일성-김정일**주의기본강좌 교원 주일웅동무의 강의수준이 정말 높다고, 우리 당사상리론의 대변자다운 실력을 소유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학교에서는 모든 교원, 연구사들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높은 교육자적자질과 실력으로써 학생들을 진정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 참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교육교양하는데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무행정청사와 도서관, 식당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가 선진적인 교육체계와 높은 수준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데 맞게 교수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현대과학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교수형식과 교수방법들도 적극 받아들이면서 교육의 질적수준, 인식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보의 갱신주기가 날로 단축되고있는것만큼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의 입수, 공유, 보급체계를 신속정연하게 세우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재학기간에 보다 폭넓고 깊은 지식들을 마주하고 습득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의 후방공급정형을 세심히 료해하시고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이 교수교양과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은정어린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간부학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를 항상 명심하고 온넋을 당의 붉은기사상으로 철저히 물들이며 새시대 당건설강령에 명시된 혁명리론과 지도방법들을 교육과 당사업실천에 능숙히 구현해나갈줄 아는 유능한 교육자, 쟁쟁한 정치활동가들로 튼튼히 준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4) 국가주권활동과 인민주권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전진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 참석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0 차회의가 2024 년 1 월 15 일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투쟁과 자랑찬 성과들로 가득찬 지난해의 승리와 영광을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2024 년에로 더 빛나게, 더 강용히 이어놓기 위한 공격전을 과감히 개시한 중대한 시기에 소집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0 차회의에서는토의할 의안들이 상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성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함에 고심하고 분투해온 대의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새년도 국정을 론하는 본회의의 중심의제와 금후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과제들, 그 실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

운 당과 공화국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거창한 혁명으로 되는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과 그 실행을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만장에 선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발발위험지역으로 화한 공화국의 안전환경과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대결망동의 위험성을 엄정히 분석평가하시고 가장 철저하고 비타협적으로 결행해야 할 대적투쟁방향과 전투적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연설에서는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 1 국책으로 틀어쥔 국가의 존위에 맞게 대외사업부문에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이 명시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년대계를 환히 내다보시며 강국건설의 근본지침들을 억척의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을 무한한 격동속에 경청하였다.

위대한 사명감과 필승의 자신심으로 충만된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이 영웅적존엄과 백절불굴의 기개로써 중첩되는 국난과 위기를 용감히 타개하며 강국에로의 승리적전진을 가일층 촉진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 불멸의 혁명대강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제기된 의정들이 성과적으로 토의결정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0 차회의는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굳건히 담보하며 국가부흥의 변혁적국면을 상승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전위에서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 월 15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0 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지난해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와 인민이 겹쌓이는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최대의 분발심과 투쟁력을 발휘하여 중대한 성과들과 사변들을 청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긴 잊지 못할 한해였다고 하시면서 장장 80 년을 가까이하는 공화국의 력사에 2023 년과 같이 국력강화에서 전방위적인 확실한 전진이 이룩되고 국권과 국위가 당당하게 떨쳐진적은 흔치 않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로선과 시정방침을 적시에 옳게 책정하고 해마다 국정을 신축성있게, 활력있게 조정하면서 중첩되는 국난과 위기들을 타개하고 목표한바의 국가발전로정을 견결히 유지하였을뿐 아니라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와 영웅적헌신성을 발동하여 확고한 상승추이를 쟁취하였다는것이 우리의 2023 년 투쟁을 통하여 립증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이 자기가 선택하고 강인하게 추진해나가는 강국건설위업이 정당한것임을 재삼 확인하고 국가의 현 장성흐름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실감하고 신심을 굳히게 되였다는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귀중한 성과들에는 인민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국가주권의 정바른 행사와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분투해온 대의원동지들의 노력도 깃들어있다고, 당과 국가의 성업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함에 노력하여온 대의원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3 년의 귀중한 성과가 2024 년에도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에로 이어지게 하며 다음기 정부앞에 든든한 발판을 확보해주기

위한 문제가 새년도 국정을 론하는 오늘 이 회의의 중심의제였다고 하시며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는 2024 년을 사회주의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로 규정하고 과학적이며 실현가능한 결정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그 결정들에는 우리 당이 사랑하는 인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이루고저 하는 숙원들, 위대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부단한 발전을 위한 방략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당결정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어느 하나도 놓침없이, 미결점이 없이 완벽하게 관철함으로써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사를 보다 확실하고 변혁적인 성과들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국가경제의 상승추이를 계속 고조시켜 나라의 경제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간공업부문들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이 부문들에서부터 자립성을 더욱 키우고 현대화를 실현하여 경제전반의 비약적인 상승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은 일관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기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경제사업에서 특별히 역할을 높여야 할 부문은 기계공업부문이라고 가르쳐주시였으며 특히 살림집건설은 당의 권위, 공화국정권의 인민적성격과 직결되여있는 중대사이고 인민들과 한 약속은 아무리 힘든 고비에 맞다들려도 무조건 지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본태이고 본도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철도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현존철도수명을 유지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무조건 보장하며 철도부문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하여, 정보산업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도시경영부문

에서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관리와 경제장성, 인민들의 문명생활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변해나가기 위한 당면과제들과 전망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가 자기의 우월성과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모든 부문이 공화국 내각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각에서는 당과 국가가 부여한 모든 권한을 책임적으로 행사하여 행정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서 지난해 알곡고지점령으로 신심과 열의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승세를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만이 인민생활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수산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불균형을 극복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리념에 배치되는 현상을 절대로 방치할수 없으며 지방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지원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적으로 결론짓는다면 우리가 지방의 락후한 현상태를 관조적으로 보고 대하며 경제적조건을 구실로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중대조치를 취하지 못할 아무러한 근거나 리유가 없다고, 어느 시, 군이나 조건과 실태는 다 비슷비슷하며 문제는 어떻게 지방공업공장들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찾아쥐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정확한 투쟁방침과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혁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대담한 실천행동으로 옮길 때라야 비로소 쟁취할수 있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는 당창건 80 돐이 눈앞에 박두해왔고 공화국정권이 선지도 75 년이 지났다고 하시면서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며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지향시키되 매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경쟁적인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놓는것은 우리 정부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이며 우리 당의 숙원이라고, 자신께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 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 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자고 한다고, 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것은 말로만 해오던것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혁,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에서 지역적편파성을 줄이고 해당 지역들이 자체로 살아갈수 있게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도 취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미 당중앙을 대표하여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으로, 강국의 지위를 결정짓는 척도로 규정하였다고, 우리는 투쟁을 더욱 재촉하고 더 큰 성과를 지향하는 계속투쟁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위적공간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전면적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위력, 인재

들의 활약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국가부흥을 위한 혁명사업에서 거대한 몫을 맡고있는 과학기술부문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문명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면 응당 교육과 보건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과 보건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국가이며 침략과 간섭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자주적발전의 길을 걸으려는 우리의 지향은 시종일관하고 그를 위해 바친 대가도 막대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국과 인민, 후손만대의 안녕을 목적하여 자위적 국방력강화의 일로를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고, 군력이자 국가와 인민의 안전이고 존엄이고 위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배, 천배 최상최대로 다져나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쟁준비는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에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올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억제력강화와 국가방위력증대를 위한 책임적인 투쟁에서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고하시면서 민방위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 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다고 하시면서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기회를 빌어 자신께서는 우리 공화국

이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자기의 목숨처럼 놓지 않고 강력히 틀어쥐고나가는 자위적국방력강화의 혁명적성격에 대해서 다시금 명백히 밝히자고 한다시며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이라고, 그러나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이라고,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며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정책적립장이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제자주를 절대불변하고도 일관한 제 1 국책으로 틀어쥐고 불법무법의 이중기준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탈하고있는 미국의 극악한 자주권침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대외사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존위와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결행되여야 할 성스러운 사업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 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인민정권기관들은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령도에 무조건 충실하는 강철같은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며 수동적이며 관조적인 자세를 완전히 소거하고 자

기 지역,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들을 주인답게, 용의주도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가일층 전진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년도 진군에서 대의원동지들이 지닌 사명과 책임은 의연 중대하다고 하시면서 대의원들은 잠시도 자기만을 위한 보신이나 안일해이에 빠질 권리가 없으며 적극적이고도 알속있는 행동실천으로 국정집행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국력이 강해지고 자신심이 커질수록 우리 인민이 걸어온 시련에 찬 려정을 한시도 잊지 말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하며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과 약속한 부유하고 문명한 시대를 기어이 펼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음 모두다 애국으로 굳게 단결하여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축하하시고 국가사업방향에 관한 중요연설을 하시며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일심일체를 이룬 충성과 애국의 힘으로 강국조선의 영웅전기를 써나가는 위대한 격동의 시기에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는 공화국창건 76 돐을 맞으며 2024 년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적분석에 기초하여 투쟁성과를 더욱 풍부히 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제반 지침들이 엄숙히 천명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9 월 9 일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축하하시고 금후 국가사업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력사적인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2024 년 당시까지의 국가사업전반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시고 국가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투쟁방향과 지침들을 상세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인민이 부여한 중책에 항시 헌신으로 보답하고저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있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번영에로의 줄기찬 창조투쟁에 순결무구하고 진함없는 애국충의심과 견인불발의 노력을 바쳐가는 소중한 자부심을 안고 국경절을 긍지높이, 떳떳하게 경축하고있는 전체 인민들과 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아울러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애국의 한길에서 변함을 모르는 총련의 애국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정의의 위업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고있는 친선적인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국가의 창건과 강화발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고귀한 생애와 위훈을 바치고 후세토록 본받을 훌륭한 전통과 모범을 창조한 전세대의 혁명선렬들과 애국렬사들, 공로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땅 어디서나 변함없이, 더욱 찬연하게 나붓기는 우리의 국기를 긍지높이 바라볼 때에도 그렇고 해마다 국경절을 맞이할 때에도 자연히 절감하군 하는것이지만 세상에 우리 공화국처럼 위대하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없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악독한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는 물론이고 력량상 비할바없이 우세한 제국주의련합무력의 침략을 물리칠 때에도 조선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들이 창조되였으며 페허우에서 사회주의국가에로 비약하던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력사적행로에도 언제나 기적이 충만되여있었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더욱 자부하게 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이같은 영예로운 행적이 비단 전세대가 걸어온 과거의 력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그 기적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분명코 계속 전진하고있습니다.

옹근 한세대가 바뀐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준엄한 도전과 시련을 무수히 겪으면서도 추호의 동요나 탈선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킨것은 **김일성**주의위업에 대한 가장 충직하고 완벽한 계승이며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실체인 우리식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생명력, 생활력의 영원불멸성을 실천으로 립증한 거대한 정치적승리로, 력사적기적으로 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혁명대오내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도 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한 사회주의는 절대로 좌절되지도, 흔들리지도 않으며 영원히 승승발전한다는 주체의 진리, 백승의 철리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당과 정부는 사회주의위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진도상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거창하고도 거폭적인 대업을 조직전개하였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당 제 8 차대회가 결정하고 포치한 5 개년계획의 네번째 해의 투쟁과업을 실천하고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투쟁령역에 지방진흥의 중장기적인 과제를 더 부가해 떠멘것은 우리 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자신심의 표현이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려는 우리 당중앙의 혁명적관점과 자세인 동시에 인민에 대한 철저한 복무정신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혁명위업의 전진도상에서 이러한 도전적인 고비, 력사적단계를 승산있게 과감히 딛고 넘을 확고한 자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내린 이같은 혁명적결정은 전국인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사회주의우월성을 실제적으로 발양시켜 우리 제도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국가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결단으로 됩니다.

아직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순탄하지 못하고 여력을 내기도 힘든 조건에서 앞으로 10 년안에 전국의 시, 군들에 다각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준다는것은 이전시기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였을것입니다.

하지만 당과 정부는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군대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충실성과 강한 전투력을 믿고 과학적인 전략과 현실적인 실천계획을 세웠으며 20 개 시, 군들에서는 주요지방공업공장들의 실체가 예상했던 그대로 뚜렷해지고있습니다.

이에 만족함이 없이 당과 정부는 지방의 락후성을 최대한 더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 추가적인 구상을 발기하고 철저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나는 이미 지방발전정책을 중대한 정치적문제로 보고 당과 정부의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간주할데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70 여년, 근 80 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했던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지방발전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립장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우리의 지방발전정책이 그 집행에서 담보가 있는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멀지 않아 10 년후에 우리는 오늘의 이 물음에 현실적변혁으로써 대답할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연히 난관과 애로가 겹치는 속에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장성추이를 견지하고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이 월별, 분기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면서 올해에 달성해야 할 정비보강목표들을 착실히 추진하고있는것도 우리가 쟁취하고있는 성과라고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는 경공업과 도시경영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안정과 직결된 부문들에서 보다 개선되고 변화된 결과들을 얻어낼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

하고있으며 농사작황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으며 그만하면 좋은 결실을 내다볼수 있게 되였습니다.

자연재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일련의 전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지난 7 월말에 압록강하류의 평북도지역과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물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도 받고 방대한 력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이 과정에 당과 정부가 자연재해대응에서의 허점과 공간을 새롭게 세밀히 투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적이고 불가역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게 된것은 중요한 진일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나라의 믿음직한 안전환경을 확보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방력의 급진적인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 커다란 획기적결과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특히 불과 몇달어간에 우리는 국방연구와 생산에서 중요성과들을 획득함으로써 경이적인 군사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모든 국가사업의 현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는 당중앙위원회가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작전하며 추가로 제시한 중요정책적과업들이 기본적으로 승세를 타고 옳게, 만족스럽게 진척되고있다고 분석할수 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 남은 몇달어간에 시간을 최대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올해의 투쟁성과를 더욱 풍부히 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긴장한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온 나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무한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더욱 승화시키고 확대시켜 성공적인 결실에로 이끌어가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앞에 나서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혁명임무입니다.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올해 경제사업결속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2 개 중요고지를 담당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부과된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데 현재의 투쟁분위기와 기세가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 높이고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숙한 작전과 혁신적인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부문전반에서 현존설비들에 대한 정상적인 정비보수로써 설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며 생산공정들과 설비들의 부단한 갱신이 생산물의 량적, 질적수준을 담보하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기간공업부문에서 2024 년까지 완결하게 되여있는 정비보강계획들을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여 국가적인 생산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이미 세운 국가적인 조치들의 실행여부를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부족한 문제들과 요소들을 더 찾아 결정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제는 물론 국가와 사회생활의 발전이 중요하게 건설물의 실체로 표현되는것만큼 건설부문에서는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올해 계획을 드팀없이 완결하여야 합니다.

화성지구 3 단계 1 만세대 살림집과 농촌살림집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여있는 건설물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건축설계수준을 세계적인 높이에로 끌어올리고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표준화, 현대화하는 사업에서도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삼지연시에 새로 건설한 려관들을 호텔로 전환하고 관광대상들을 더 개발하여 삼지연시를 세계적인 산악관광지로 전변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도록 완벽하게 꾸리기 위한 대상건설들도 착실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시대발전과 현실적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한 경제적수단과 방법들을 결정적으로 갱신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장악력, 지휘력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생산물의 원활하고 편안한 류통을 중요시하고 기업체들의 상대적독자성에 기초한 생산경영활동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지어주는데 선차성을 부여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것은 단지 농업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2024 년 농사결속과 다음해 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한 명확한 실천방도들을 명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재까지의 큰물피해복구사업정형을 분석평가하시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기일이 촉박하고 복구대상과 공사량이 방대하다고 하여 건설물의 질을 떨구면 절대로 안됩니다.

복구력량이 충분히 투입되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열의도 비등되여있는것만큼 공사를 제기일에 끝내는가 끝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건설자재와 설비, 륜전기재들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철도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강재와 세멘트, 연유, 통나무, 유리를 비롯하여 건설자재, 설비들을 계획대로 제 날자에 어김없이 보장하며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공사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복구사업을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내여 수해지역 인민들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피해를 입은 인민경제부문들도 자기 궤도에 올려세워 자연과의 투쟁도 승리적으로 종결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당과 정부가 특별히 중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선결과업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무조건적이고도 완벽한 실행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혁명과 건설의 천사만사를 인민의 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에 있어서나, 지방의 세기적인 변혁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하여 제일 중대한 과제로, 필수불가결한 요구로 급부상한 현시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절실하게 나서는 혁명임무는 없습니다.

수도에 새로 일떠선 몇개 거리를 놓고, 또 수도시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놓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특성과 우월성에 대해 평가하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류례없이 엄혹한 난국이 겹쌓인 속에서 이만큼 한것도 큰 성과라고 자부하여서는 더욱 안됩니다.

이러한 견해와 관점은 혁명발전에 해롭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층, 초고층건물들을 지으려면 그만큼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건축공학적, 구조력학적원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가 굳건하자면 그 우월성을 확신하는 민심적인 기초가 든든하고 전체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여기에 적극 공감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고 대를 이어 지켜가려는 전인민적인 일념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전 령토를 이루고있으며 국가제도를 떠받드는 지역적거점, 말단단위인 시, 군, 농촌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지방발전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처럼 지방발전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로, 우리 혁명의 전도와 직결된 매우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로 부상되기때문에 나는 올해초에 전원회의사업토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강력한 실행에 더없이 중대한 정치적의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지방공업공장건설과 함께 매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기지, 량곡관리시설건설을 병행시켜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새로운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는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관철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 해인것만큼 지금까지의 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계획한 대상과제들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 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발전혁명의 본격적인 시행단계를 확신성있게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실현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서는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년말에는 반드시 20 개 시, 군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완공의 실체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방건설에 동원된 각급 군부대 관병들은 당의 존엄, 인민군대의 명예를 걸고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공사를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20 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공사가 90%계선에 들어섰는데 설비제작과 수입을 맡고있는 단위들에서도 분담된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하고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중앙의 경공업공장들과 해당 대학들, 도, 시, 군들에서는 현대적으로 일떠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을 관리운영할수 있는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제정된 기일안에 철저히 집행하여 우리당 지방발전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성, 중앙기관들과 해당 도, 시, 군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이 완공되는 차제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들을 준비하고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이 현실로 전환되고 지방인민들의 생활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는데서 매개 시, 군들이 자체의 예비를 조성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바다가양식업의 표본기지로 건설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3 개 대상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미 추가대상으

로 예견하였던 과학기술보급중심은 종합적인 문화생활거점으로 확장하여 건설하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시, 군들에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들을 갖춘 과학기술보급거점만이 아닌 주민들이 영화도 관람하고 체육문화생활도 하며 위생환경조건이 보장된 상업망들과 기타 각종 편의시설들까지 포함된 다기능화된 복합형문화중심을 리용할수 있게 건설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종합적인 문화생활중심은 지방건설력사에서 개념조차 없던 새로운 대상인것만큼 나는 지대적조건과 인구수에 따라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형성안을 비롯한 건축설계를 잘하고 그에 맞게 건설예산안을 명확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20 개 시, 군들을 훌륭히 일신시켜나가면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도농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이 도시사람들 못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해질수 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군사적안전환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쁠럭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초한 군사쁠럭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앞에 다가왔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이러한 현실적위협들은 전망적으로 기필코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것이며 따라서 이런 형세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군사적강세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보다 중대한 조치들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것을 요구합니다.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력량과 그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데 대한 핵무력건설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고있으며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안에서 운용되고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입니다.

항시 엄중한 핵위협을 받고있는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을 위협적이라고 떠드는 그런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려는 적의를 품고있다는것을 자인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으로부터 가해지는 각이한 위협들,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안전환경하에서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우리 당과 정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며 생존권리입니다.

강력한 힘,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우리 국가발전의 절대적인 담보입니다.

우리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부단히 강화발전시켜 지역안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력한 힘으로 국가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는것은 당과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중차대한 국사이고 혁명의 제 1 대과업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을 보유한 적수국가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행동에도 철저히 대응할수 있는 핵력량을 부단히 강화해나갈것이며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준비태세에 있게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배가해나갈것입니다.

다시금 확언하건대 우리의 지향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공화국의 군사력은 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할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할 한계점을 찍어놓지 않을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결정관철의 확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2024 년 투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헌신적으로 분투하고 적극적으로 활약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혁명의 요구와 맡고있는 책무를 똑바로 자각하고 자기 사명을 깊이 명심하여 올해 투쟁과업들을 무조건,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문, 단위앞에 시달된 정책적과업들과 그 실행을

위해 채택한 당결정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정확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적실한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과 재포치사업을 심화시키면서 립체전, 전격전을 완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조직력과 지도력, 실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올해 투쟁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격적으로, 박력있게 전개해나간다면 얼마든지 년말까지 실속있는 결과물들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계획목표점령을 위한 사업을 행정일군들에게 밀어맡기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극복하고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조직사업과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은 대중의 정신력과 지혜를 얼마나 높이 발동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높은 책임성과 분발력을 발휘하여 생산자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하게 전개함으로써 전국이 들끓고 그 어느 단위에서나 집단적혁신운동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제시된 정책적과업들이 모든 조건과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고 세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투쟁목표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는 관점을 심어주어 그들이 자신심과 배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들끓는 투쟁현장들에 투입하여 강력한 사상공세를 잠시도 중단없이 줄기차게 들이댐으로써 대중의 뜻과 마음이 올해 계획목표점령에로 총지향되고 일터마다에서 앙양된 혁명열, 투쟁열이 식지 않고 계속 고조되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의 조직자, 집행자인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도성, 창발성, 활동성을 더 높이 발

휘해나가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당의 신임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투쟁목표들을 실속있게, 완벽하게 집행해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분투하도록 당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과 정부내 각급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지도간부들이 맡은 책무를 무겁게 자각하고 항상 긴장한 책임의식속에서 어떻게 하면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직책상임무를 똑바로 수행하겠는가를 모색하고 치밀하게 작전하며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해나가도록 장악통제하면서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이 당결정관철로 들끓는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가장 힘든 모퉁이, 누구나 선뜻 나서기 주저하는 곳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대중을 혁명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며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장애물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서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여야 하겠습니다.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올해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수행의 사활이 결정될수 있다고도 할수 있는 이 기간에 보다 책임적으로 사업해야 할 일군들이 바로 경제지도일군들입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관철할것을 맹약한 시효기간이 이제 110 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하루한시도 허술히 보내지 말고 맡은 임무수행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정신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의 전반사업이 당과 혁명, 인민의 요구, 격변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원활하게 진행되여나가도록 하는데서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

할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올해 우리 당과 정부는 국가의 전면적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거창하면서도 보람찬 사업들을 설계하고 강력히 추진시키고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다 수월치 않고 난관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확고한 자신심과 완강한 의지로 괄목할만한 실적들을 반드시 이루어냄으로써 올해를 국가발전사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을 마치시면서 어머니조국의 평안과 륭성, 거창한 번영을 위해 그리고 전국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해나간다는 긍지와 자신심을 백배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개척정신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복무관을 지니시고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특기할 대변혁을 줄기찬 상승국면에로 추동하며 국가의 강대성과 견결성,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해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방략을 명시하시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은 만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애국의지를 만장약하고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내세운 목표의 방대함에 있어서 미증유의 거창한 투쟁이 전개되고있는 가장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부흥강국의 리상을 향해 전진하는 혁명의 도도한 기세를 거폭적인 비약과 성공에로 이어가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엄숙한 결의를 다짐하였다.

5)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1)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0돐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시여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수령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30 년이 되였다.

지나온 날과 달들은 20 세기의 중심에서 주체의 기치밑에 자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강성하는 동방의 첫 사회주의국가, 현대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절세위인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의 세계사적의의가 누리에 거연히 부각되고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대로 부국강병의 력사적대업실현에서 눈부신 승리를 이룩하여온 숭고한 계승과 거창한 변혁의 년대들이였다.

이 격동의 나날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거룩하신 영상은 천만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배가해준 등대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백승의 방략을 가르쳐주는 투쟁의 기치로, 줄기찬 전진과 비약의 튼튼한 반석으로 되였다.

위대한 영생의 서른돌기 년륜이 숭엄히 새겨지는 때에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세대뿐 아니라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존함을 가슴마다에 정히 새겨안고 성장한 새세대들모두가 후손만대에 참된 삶과 투쟁의 귀감으로 영원히 빛날 혁명의 대성인의 한평생을 가장 경건하고 숭엄한 추모의 마음으로 되새기며 절세위인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0 돐 중앙추모대회가 2024 년 7 월 8 일 **김일성**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추모대회장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70 성상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이

세상 그 어느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헌신적이며 성스러운 투쟁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심심한 추모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광장국기게양대에는 조기들이 띄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추모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중앙추모대회 개회가 선언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가 추모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를 하였다.

그는 세월의 흐름속에 옹근 한세대가 새로 자라나고 산천도 몰라보게 변한 30 년의 날과 달들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높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존엄과 영광의 절정에 받들어올렸다고 하면서 세계에 초유의 강대함과 무상의 영예를 떨치는 오늘의 조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이 그대로 꽃펴나는 수령영생의 기념비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바쳐 력사가 알지 못한 기적과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영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한생이라고 지적하고 그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 모든 령역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개척의 세기적인 성과들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후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영상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본령으로 간직하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다져주신 인민의 수령의 불멸할 초상이며 **김일성**동지와 같으신 불세출의

위인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고 긍지이라고 그는 토로하였다.

그는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이 가장 순결하게, 완벽하게 계승되는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국가특유의 모습이며 전통이라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어 국력강화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김일성**강국전기를 계속 써나가며 수령님의 강국건설리념을 반드시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력사는 주체혁명의 거세찬 숨결속에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라고 하면서 애국의 한마음을 간직하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강성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빛나게 실현된 보다 존엄높고 보람찬 새 생활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추모대회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 전체 인민의 억척불변한 신념의 뢰성인양 장중한 포성이 오래도록 7 월의 대지를 뒤흔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에 강국의 무궁한 존엄과 휘황한 래일이 기약되여있음을 만고의 철리로 새겨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공화국을 위대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대국으로 떠받들어나갈 의지를 백배로 가다듬으며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0돐 추모음악회를 관람하시며

건국의 위대한 어버이, 혁명의 영원한 수령의 성스러운 생애와 만고

불후의 업적에 드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장 숭고한 경의심을 뜨겁게 승화시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 30 돐 추모음악회가 2024 년 7 월 8 일 삼지연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합창과 관현악 《우리 수령님》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절세의 위인을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살며 투쟁해온 조선인민의 최대의 영광과 긍지로 충만된 추억깊은 명곡들과 수령영생송가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10 대의 시절로부터 장장 70 성상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사대와 망국으로 암담하던 민족수난사를 주체의 기치밑에 영광찬란한 민족번영사로 전환시키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열렬히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강국조선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고귀한 재보라는 철리를 격조높이 구가한 음악회는 전인민적인 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절정을 이루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이라는 성스러운 명함을 귀중히 간직하고 이 땅의 장엄한 부국강병의 력사가 백년, 천년의 **김일성**강국전기로 흐르게 할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에 즈음하여

백두의 붉은기와 더불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3 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2 월 17 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백옥같은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진흥을 줄기차게 이룩함으로써 전면적국가발전의 새 전기를 끝없이 빛내여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2) 혁명동지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고 최태복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훈자인 전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2024 년 1 월 21 일 새벽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함께 조의방문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장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오랜 정치활동가를 잃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투철한 혁명적원칙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최태복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믿음과 각별한 보살핌속에 교육부문의 유능한 일군으로 성장하여 생의 말년까지 조선로동당 과학교육정책의 실현과 사회주의문화발전을 위하여, 혁명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위하여 혼심을 다 바쳐 분투한 로혁명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최태복동지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위로해주시였다.

고 김기남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훈자이며 로력영웅인 전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2024 년 5 월 8 일 새벽 2 시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조의방문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장내는 주체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거대한 공적을 남긴 당과 혁명의 원로, 권위있는 리론가, 저명한 정치활동가를 잃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투철한 인생관과 당적원칙성, 높은 정치리론적자질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대

오의 사상적일색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공헌한 김기남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상부문의 능력있는 일군으로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조선로동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의 사상건설과 령도력강화를 위해 투신해온 오랜 혁명가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김기남동지의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위로해주시였다.

고 김기남동지의 장의식장에 나오시여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훈자이며 로력영웅인 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의 장의식이 2024 년 5 월 9 일 수도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고인의 령구가 안치된 서장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정렬해있었다.

국가장의식장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존엄높고 강대한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온 귀중한 로혁명가, 당사상전선의 중진을 잃은 커다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장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와 각 도당위원회, 무력기관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고 김기남동지의 령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있었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의 참된 충신, 견실한 혁명가, 저명한 정치활동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고 김기남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고 김기남동지의 령구가 발인되였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경의를 담아 명예위병들이 고 김기남동지의 령구우에 붉은 기폭을 숭엄히 덮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에게 다시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며 령구를 바래우시였다.

수도의 연도들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생애의 전기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정신문화적성장에 뚜렷한 자욱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고 김기남동지와 영결하는 애석함속에 령구차에 조의를 표시하였다.

령구차는 승리와 영광의 당기가 나붓기는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구내를 통과하였다.

60 여년세월 당중앙위원회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면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 크게 공헌한 당의 충신원로와 작별하는 비통한 마음을 안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령구차를 전송하였다.

고 김기남동지와의 영결식이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령구를 맞이하기 위하여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렬사릉입구에서 고 김기남동지의 령구를 맞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고인의 유해를 앞세우시고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유가족들과 함께 렬사릉에 오르시였다.

고 김기남동지와의 영결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고 김기남동지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있었다.

당과 조국앞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저명한 정치활동가와 영결하는 비통함을 담아 180 발의 조총이 발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의 귀중한 원로와 영결하는 크나큰 상실감을 누르시며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흙을 덮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혁명가의 고결한 삶을 뜨겁게 회억하시며 비분을 금치 못하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묘에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고 김기남동지를 추모하여 전체 영결식참가자들과 함께 묵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된 혁명생애와 불멸할 공적으로써 우리 당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고 우리모두에게 큰 힘이 되여준 김기남동지와 같은 혁명의 원로들이 있어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주체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혁명가가 지녔던 고결한 풍모는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 고귀한 넋과 정신은 우리 당의 위업, 위대한 우리 국가의 눈부신 강화발전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려정에 값비싼 희생과 애국적헌신으로 조국해방과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년대들을 빛내인 전체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전사들의 생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값높이 빛내여주는 위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에 떠받들려 렬사들의 공적은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을것이며 그들이 념원하던 주체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현철해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존경하는 혁명전우였던 현철해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2024년 5월 19일 오후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인생관을 지니고 한생 변함없이 당과 조국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혁명전사의 생애를 회억하시며 현철해동지의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이 낳은 특출한 혁명가이며 능숙한 군사정치가였던 현철해동지가 모두가 가장 높은 존경심으로 우러러보는 영광의 단상에서 조국의 존위와 더불어, 장군님의 위대한 존함과 더불어, 백전백승하는 인민군대의 빛나는 명예와 더불어 영생할것을 기원하시며 경모의 마음을 담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당의 무장력인 우리 군대의 정신적기둥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정치사상강군건설을 위해 바친 현철해동지의 특출한 공적은 후세토록 불멸할것이며 그의 넋과 친근한 모습은 우리 군대 전체 장병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렬사릉의 추모비앞에서 조국청사에 수놓아진 렬사들의 고귀한 삶이 영원무궁 공화국 국기의 빛나는 별처럼 가장 아름다운 빛을 뿌리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전승절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1 돐에 즈음하여 2024년 7월 26일 오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를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인 충성으로 받들어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쳐부시는 거대한 력사적공훈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1 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억하시면서 오진우동지, 김일동지, 최춘국동지, 강건동지, 김책동지, 안길동지, 류경수동지, 최현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과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룬 위대한 단결의 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인민과 인민군대의 불굴의 정신력이 세상에 없는 기적을 낳을수 있음을 항일의 혈전만리와 전화의 철비속에서 만고의 진리로 립증한 투사들은 오늘도 후손들의 마음속에 억척의 기둥으로 거연히 간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의 승리전통을 반제반미승리의 전통, 영원한 조선의 백승의 전통으로 승화시키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비상히 증폭시킨것이야말로 렬사들이 조국과 혁명앞에 남긴 공적중의 공적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정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진함을 모르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룰 때 7.27 은 사회주의조선의 불멸의 상징으로, 필승의 대명사로 후세토록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국가와 인민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을 마련하고 불멸의 혁명전통을 창조한 렬사들의 넋과 정신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위대한 전승 71돐에 즈음하여 전쟁로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여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높은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전화의 영웅렬사들을 숭엄히 품어안은 석박산기슭의 영생의 언덕으로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의심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었다.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1950 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혁명정신을 숭엄히 새겨보며 국가지도간부들도, 인민군지휘관들과 근로자들도, 혁명학원 원아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새세대들도 전쟁로병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송이를 정히 받쳐들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1 돐에 즈음하여 2024 년 7 월 26 일 오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의 불멸할 영웅정신과 값비싼 희생을 뜨겁게 회억하시며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7.27 의 기적을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은 모두가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열혈의 혁명가들이였으며 자기의 더운 피로 온 세상이 경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세대가 소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 시대와 력사우에 거연히 떠올린 불멸의 7.27 이 있어 가장 존엄높고 자주적인 불패의 강국으로 영광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

승세대의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변함없이 이어나갈 때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계승과 번영의 려정으로 빛날 공화국의 강국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가실 굳은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참가자들은 숭엄한 마음으로 렬사묘를 돌아보면서 국가존망을 판가름하는 가렬한 전화의 결전장마다에서 수령만세, 조국만세를 높이 부르며 승리를 향해 돌진해나가고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억척불변한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영웅들의 고결한 넋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맹세를 담아 렬사들의 묘앞에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넌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숭고한 경의와 주체조선의 전승사를 백년, 천년으로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불굴의 투쟁의지가 축포의 뢰성이 되여 뜻깊은 7 월의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2024 년 8 월 15 일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8.15 는 우리 인민이 민족적자주독립을 이룩한 일대 경사이고 자주강국건설의 광활한 길을 열어놓은 거대한 정치적사변이였다고 하시면서 주체조선의 존위와 명성, 과감하고도 줄기찬 투쟁으로 자기 위업의 진리성을 립증해가는 강용한 위세도 이날에 새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개척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신념과 숭고한 리념, 이룩한 업적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추호의 탈색을 모르고 무진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이며 항구적인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혁명유산, 사상적피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백승사와 억년청청함을 담보하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후세토록 진함없이 순결하게 계승될 때 그 시원에 있어서 숭고하고 력사와 전통에 있어서 성스러운 우리의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멈춰세울수 없고 거스를수 없는 백절불굴의 힘을 터치며 무궁한 영광과 승리에로 노도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2. 지방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명을 개시하시여

1) 지방발전의 새로운 리정표-《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 월 15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0 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금후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과제들, 그 실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거창한 혁명으로 되는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과 그 실행을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만장에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불균형을 극복하는것이라고, 지방마다 지리적환경과 자원, 경제적잠재력과 생활환경에서는 차이날수 있지만 공화국령역에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절대불변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지방인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작전하고 내밀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개성시 시내지구와 재령군, 연탄군, 우시군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으로 꾸리는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 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수 있는 준비를 다그치는것으로 반영되였는데 이렇게 소극

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시, 군들에서 김화군처럼 마음먹고 달라붙어 지방공업공장건설과 원료기지조성사업을 다같이 내밀면 얼마든지 지방경제를 추켜세울수 있으며 지방인민들의 생활에서 실제적인 개변을 가져올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적으로 결론짓는다면 우리가 지방의 락후한 현 상태를 관조적으로 보고 대하며 경제적조건을 구실로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중대조치를 취하지 못할 아무러한 근거나 리유가 없다고, 어느 시, 군이나 조건과 실태는 다 비슷비슷하며 문제는 어떻게 지방공업공장들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찾아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줄이며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지향시키되 매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경쟁적인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놓는것은 우리 정부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이며 우리 당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절박한 과업들이 당면한 인민경제계획수행을 토의하는 금번 전원회의에서도 두드러지게 정책화되지 못함으로 하여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것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나는 이번에 중대사안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의하고 정책화할것을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자고 한다고, 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한다고 하시며 이것은 말로만 해오던 것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혁,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개변을 가져

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이어 **김정은**동지께서는 김화군에 지방공업공장들을 시범적으로 꾸린 경험에 기초하여 당에서 책임지고 매 군에 자금, 로력, 자재를 지속적으로, 년차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국가적지도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에 대해 피력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를 따로 내오고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을 하고있다고, 이를 위하여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실무토의하고 결정하자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는 세기적인 숙원을 달성하는 실제적인 큼직한 조치를 취하여 우리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앞에 마땅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나서야 하며 이러한 실제적변화를 안아오는것으로써 인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한다고, 모두다 애국으로 굳게 단결하여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며

이민위천, 위민헌신을 혁명적당풍, 불변의 존재방식으로 하는 진정한 인민의 당,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선언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온 나라 인민에게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로 약동할 조국의 벅찬 숨결과 미증유의 대변혁을 예고해주며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었다.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의 려정에서 세대를 이어 신념으로, 락관으로 그려보던 전국의 동시적, 균형적, 비약적발전이라는 휘황한 변천을 엄연한 현실로 펼쳐놓게 될 조선로동당의 지방공업발전전략은 인민의 웃음과 행

복을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신성한 정치리념과 발전관, 투철한 복무정신이 집대성된 전면적국가부흥의 전투적기치, 불멸의 혁명대강이다.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0 차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당중앙은 온 나라 인민들이 열렬히 반기고 환호하는 세기적인 숙원사업의 무조건적인 집행을 담보할수 있는 방도들을 심도있게 모색한데 기초하여 철저한 실천계획과 방략을 엄숙히 선포하는 중대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지방공업발전의 획기적인 리정표를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9 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2024 년 1 월 23 일부터 24 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10 차회의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전국의 모든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일신하는 문제를 중요한 국책으로 정하고 강력히 밀고나갈데 대한 구상을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여 내놓은데 대하여 소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3 년전인 2021 년 3 월 제 1 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군의 실정에 맞게 규모를 정하고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현대적으로 꾸리고 지방군의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경험을 창조해보게 하면서 그 효과성과 실리성, 가능성을 검토해본 후 그에 토대하여 앞으로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다 새로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의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며 새로운 지방발전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방향적지시를 주었습니다.

앞서 지난 1 월 15 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간략해 소개했지만 김화군에서는 실지 그 덕을 톡톡하게 보고있으며 우리에게 전국의 모든 시, 군들, 지방의 물질문화생활발전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적형편과 방대한 이 과업수행을 놓고 당안의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있었으며 금번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개의 시, 군들에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 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혁명적인 결단과 용기가 없이 불리한 주객관적조건에 포로되여 말로만 굼때고 앉아있다가는 도농격차를 줄이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발전정책을 똑똑히 집행할수 없으며 언제 가도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수 없음을 군말없이, 구실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시점에서 혁명적인 방략을 세우고 시, 군의 경제적자원과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각방의 조치를 강구하며 매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대한 투자의 폭을 확대하며 서로 경쟁하는 풍조를 만들어 다각적인 장성을 추동하는것은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림에 있어서도 대단히 절박한 당면과업으로 되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지방발전정책의 전망적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시기적중한 선택과 결단으로 됩니다.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방침으로 천명된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난 시기 말로만 해오던 리상과 선전적인것이 아니라 실지 계획성을 띤 실행담보를 바탕으로 결단한 하나의 거대한 변혁적로선이고 지방인민들의 초보적인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근본적인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인 동시에 세기적인 숙원사업으로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욕망이나 열의만 가지고서는 바로 진행할수 없으며

반드시 과학적인 투쟁방략과 옳은 방법론, 구체적인 대책을 치밀하고 대담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혁명적인 실천행동으로 옮겨야만 달성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이고 지방마다 지리적환경과 경제적잠재력, 생활환경에서 심각한 불균형, 격차가 심한것만큼 구체적이면서도 실천가능성이 뚜렷한 계획과 똑똑한 방안들을 내놓고 하나하나 과학적타산밑에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킬수 있는 실제적인 변혁을 안아올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를 열어놓기 위한 전환적국면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의 새로운 리상농촌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미 포치한 농촌진흥의 대변혁을 방대한 투쟁으로써 이룩해나가고있는 조건하에서 지방공업의 전면적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전선, 또 하나의 거창한 혁명단계를 병행하여 엄격히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자는것입니다.

소극적인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할수 있는가? 반드시 할수 있으며 또 할것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나는 기어이 지방공업발전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해냄으로써 인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다 함께 발전하는 문명한 사회건설을 다그치며 특히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인 힘을 넣는것은 우리 당이 현시기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며 사회주의전반적발전기를 열어놓기 위하여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정치투쟁과업입니다.

내가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바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형세와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기 인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더 많은 일감을 찾고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새로운 정책들을 책정하고 그 실행에 자신만만히 도전해나서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하시면서 확대회의에서 토의할 의안들을 제기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문제가 기본의정으로 취급되였으며 주요정책대상공사들의 신속한 결속과 도, 시, 군들의 자립적발전을 위하여 강구해야 할 대책적문제가 상정되였다.

기본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게 될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총비서동지께서 지방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피타는 고심과 고뇌속에 정책방향을 정립하시고 경험축적단계를 거쳐 그 실현가능성까지 각 방면으로 확정하신데 기초하여 국책으로 엄숙히 선포하신 가장 혁명적인 지방공업발전의 전략적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으로,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거창한 혁명으로 되는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이 책정됨으로써 국가부흥의 전면적발전기를 더욱 확신성있게 열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조선로동당의 근 80 년사와 공화국의 75 년사를 돌이켜보아도 이번 지방공업발전정책과 같이 그 성격과 폭과 심도에 있어서 그처럼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독창적인 정책은 찾아볼수 없다고 말하였다.

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먼 앞날이 아니라 가까운 10 년안에 년차별로 완전히 개변함으로써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으로 현대적인 농촌살림집에서 살게 될 농촌주민들을 비롯하여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시려는 총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전면적국가부흥실현에서의 관건적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 관철을 위한 한해한해의 완벽한 실행과 드팀없는 결속은 어떤 형세하에서도 국가발전로정을 정확히 유지하게 하는 혁명적기치로, 전인민적인 애국열의를 하나의 지향점에로 집초시켜 내세운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수 있게 하는 백승의 무기로 될것이며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더 빨리, 더욱 활력있게 추진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공화국력사에 혁명적전환의 긍지높은 년대기를 수놓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정신과 위대한 혁명가의 결연한 의지가 집대성된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독창적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집행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으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명하면서 당중앙의 혁명로선을 빛나는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성업의 전위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방발전 20×10 정책》 집행에서 나서는 경제실무적문제들을 대책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정책집행에서 나서는 경제실무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목적한 중대사업이 실제적인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데로 지향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별로 해마다 2 개 군씩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 조건에서 계획성과 집중성, 전망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군들의 순차를 바로 정할데 대한 문제, 일률성을 경계하고 해당 시, 군들의 경제적잠재력과 전문성, 지역적크기와 인구수에 맞게 생산지표를 옳게 설정할데 대한 문제,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예견성있게 양성할데 대한 문제, 건설력량편성과 정연한 사업체계의 수립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연구협의를 심화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토의방향에 따라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량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연구 및 협의회들을 지도하였다.

연구 및 협의회과정에 제기된 합리적이고 현실가능한 방안들과 혁신적이며 발전지향적인 의견들이 결정서초안에 충분히 반영되였다.

완성된 결정서초안이 정치국에 제기되였다.

김정은동지의 제의에 따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과 전체 방청자들에게도 결의권이 부여되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지방공업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9 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관철투쟁에 인민군부대들을 동원할데 대하여》가 전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명령에 친필서명하시고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직접 전달하시였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다음의정들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정책대상공사들의 성과적인 완결을 위한 당적인 중대조치가 토의결정되였으며 도,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이 강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대하여》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9 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금후 지방경제의 확실하고도 급속한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될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실행대책들과 주요정책대상공사들을 다그쳐 결속하기 위한 문제들을 심중하게 토의결정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묘향산 정치국 확대회의가 가지는 전략적의의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일관되여있는 조선혁명특유의 투쟁전통과 본때를 가세하여 과감한 행동실천으로써 오늘의

의의있는 결정들이 반드시 결점없이 변혁으로 펼쳐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정치국회의에서 토의결정한 사항들을 집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수천만 인민들의 크나큰 믿음을 생의 명줄로 간직하고 본 회의 결정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관철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백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위대한 우리 위업의 새로운 변혁적결실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국의 국격과 국위에 맞게 온 나라를 인민의 리상향으로 힘차게 부흥시키는 세기적변혁의 방대한 과제를 용의주도하게, 성공적으로 실행해나갈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작전도와 명철한 방법론이 천명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강령적결론에 폭풍같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최고강령으로, 기본투쟁원칙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와 인민적성격을 더욱 명백히 하고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성취하기 위한 력사적인 지방진흥의 활로를 열어놓은 특기할 정치적사변으로 되였다.

2) 지방의 획기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앞당기시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2 월 7 일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의 첫해인

올해부터 각지에 본격적으로 새롭게 일떠세우게 될 지방공업공장들의 구체적인 건설방향을 확정짓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꾸린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실태와 경영실태, 공장별 건축형식을 다시한번 료해하러 현지에 나오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료공장과 일용품공장, 종이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들을 돌아보니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이 현대적으로 일떠서 경영활동을 잘하고있으며 제품의 질도 높아 군내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 실지 이바지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바로잡을 일련의 문제들도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별로 생산공정설계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바로하지 못한 결점들이 적지 않게 있으나 이에 대하여 경제지도일군들이 바로 보지도 못하고 똑똑한 일가견도 없이 대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제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처럼 기계적으로 모방하겠다고 하고있는것은 당정책을 대하는 태도와 잡도리부터 잘못된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설계가 공장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실용적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되지 못한 결함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산업건물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기에 앞서 원료기지조성과 그 조건 및 보장가능성에 대하여 잘 따져보고 경제적타산을 바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추진에서 해당 부문들이 재고해보아야 할 문제, 다시 심의하고 결정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생산을 활성화하는것은 현시기 지방인민들의 물질생활보장에서 나서는 초미의 과제이자 혁명의 성격문제, 정치적문제라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들과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 년부터 새로 건설하는 지방공업공장들의 건축형식과 현대화수준을 김화군보다 더 높게 정할것을 당중앙이 결정한데 대하여 상기시키시면서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집행에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경험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며 모방할것이 아니라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자세에서 부단히 새로운것을 받아들이고 결점들을 극복하면서 책임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시, 군의 구체적인 특성과 경제적잠재력, 발전전망성과 인구수 등 세부조건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과학적인 타산밑에 지방공업공장의 규모와 생산능력, 건설부지가 설정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산업건물설계가 실용적견지에서 개선되고 치밀한 건설계획밑에 집행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시고 제품분석실들을 규정대로 꾸리고 제품검사체계를 바로세우는 등 품질제고를 위한 사업에 지속적인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들의 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 원료기지를 튼튼히 갖추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책임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문제, 시, 군 지방공업공장건설에 지출되는 자금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 등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과업들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에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정확한 집행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눈앞의 현실로 반드시 펼쳐놓음으로써 전망적인 10 년목표의 첫 돌파구를 기세차게 열어제끼고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 우리 국가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도일군들과 지휘관들, 군인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숙원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분기하여 지방진흥의 위대한 대변혁을 기어이 안아오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국정의 천만사를 오직 인민의 권익과 숙망을 실현함에 지향복종시키는 위대한 당중앙의 력사적인 선택과 중대결단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변혁적인 로선으로 책정명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거창한 지방공업혁명이 개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9 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실행되는 전국적범위에서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은 금후 10 년안에 지방경제의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여 온 나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에 거대한 활력을 더해주기 위한 미증유의 창조대전이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이 2024 년 2 월 28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착공식장은 인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숙원을 인민군대특유의 혁명적인 창조본때, 완강한 실천력으로 드팀없이 받들어나갈 군인건설자들의 불같은 열의와 한해후 번듯하게 일떠설 부흥번영의 실체들과 더불어 윤택해질 새 생활을 확신하는 성천군근로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국력평가의 절대적기준으로, 조선식사회주의의 강대성의 상징으로 내세우시며 인민의 모든 리상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시는 희세의 걸출한 령도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위대한 투쟁을 선포하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군인건설자들과 비상설추진위원회 성원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련관단위 일군들, 평안남도와 성천군의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숙원실현을 위한 지방발전혁명의 전위에 인민군대를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시고 지방공업발전정책집행에서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를 엄숙한 본분으로 간직하고 지방의 발전을 급진시키는 대변혁의 시대를 신심드높이 창조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문명, 가장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위민헌신의 웅지와 거창한 지방공업혁명의 앞장에 선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크나큰 기대가 구절마다 뜨겁게 어려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접한 전체 참가자들은 무한한 감격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방발전 20×10 정책》 관철을 위하여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124련대들에 련대기들을 몸소 수여하시였다.

거창한 대건설전장을 인민군대에 통채로 맡겨준 당중앙의 무상의 신임이 실려있는 진군의 기치를 받아안은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변혁의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인민군의 강용한 기개를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고귀한 명함을 지켜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을 기념하여 건설의 첫삽을 뜨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격정이 분출되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발파단추를 누르시자 력사적인 지방공업혁명의 개시를 알리는 장쾌한 폭음이 울려퍼졌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천명한 중대결심을 지상의 명령으로, 절대의 진리로 새겨안고 그 실행을 위한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대건설투

쟁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는 건설련대들의 군정지휘관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지방경제의 동시다발적, 균형적발전을 가속화하여 지방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지방발전혁명의 개시를 온 세상에 선포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의 착공은 애국으로 단결하여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기세차게 열어나가는 총진군대오에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백배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새겨졌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위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새시대 사회주의건설강령과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활동은 존엄높은 국가의 전면적발전행로우에 지방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략들과 그 빛나는 결정체들을 줄기차게 탄생시키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공화국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다양어와 양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력사적인 《지방발전 20×10 정책》실현을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있는 벅찬 현실속에서 바다를 낀 시, 군들이 바다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방이 자기 조건에 맞게 특색있게 발전할수 있는 시범창조사업을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내밀데 대한 **김정은**동지의 특별지시에 따라 2024 년에 전형적인 해안지역이며 주민수에 비해 경지면적이 적은 함경남도 신포시가 그 시범단위로 정해지고 준비사업이 추진되여왔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7 월 15 일 당과 정부의 주요간부들

과 함께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를 찾으시여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부지를 돌아보시고 사업계획들을 료해하시면서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훌륭히 꾸리고 이를 일반화하여 바다를 낀 시, 군들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며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협의회를 소집한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선 지방발전혁명의 세기적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해안연선지역 시, 군들이 바다의 경제적잠재성과 자원의 효과적개발 및 리용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것이 지방경제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끌어올리는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 지방, 지역들이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여 전체 지역에 균형적이고 경쟁적인 발전풍을 조장시켜야 지방경제가 발전하고 지방경제가 발전할수록 전반적인 경제의 큰 동력이 생기고 전략적인 경제력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경제적수익과 효과성에 대한 자료보고를 청취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정책이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엄중하게 분석하시고 경제생활에서 도농의 격차를 줄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온 정책과 방침들은 국가적으로 지방의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만 실현시킬수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풍어동지구앞바다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시마양식을 잘하면 척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4 년후에는 공화국의 시, 군들가운데서 제일 잘사는 《부자시》가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새 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꾸려 신포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을 령도하는 당이 무엇을 하나 구상하면 군대가 그것을 언제나 영예로운 력사적사명으로 받아안고 무조건 실천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의 특유한 뉴대이고 가장 성스러운 전통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을 인민군부대들에 위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과 령도, 명령지시에 절대충실한 인민군대가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바다가양식업의 본보기창조대상을 자기의 투철한 혁명적자세와 애국애민정신의 응결체로 당과 인민앞에 훌륭히 내놓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과 관련하여 련관단위들에서 분담된 임무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현대적인 바다가양식기지건설을 강력하게, 실속있게 내밀어 전국도처에 확대도입할수 있는 창조적모범을 만들어낼데 대하여 지시하시고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안에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분과를 조직하여 바다를 낀 이여의 시, 군들에서 양식기지를 전개하는 사업을 관할하고 지도하도록 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부문에서 보고한 양식사업소형성안이 새 세기 양식산업의 본보기적창조물에 걸맞는 수준에서 작성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과정이 산업시설설계에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발전단계로 되도록 보다 혁신적인 안목에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새로운것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방향을 밝혀주시였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식업의 발전 역시 과학적인 담보와 타산에 기초하여야 하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

자혁명을 앞세우고 양식장관리, 생태환경유지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과학화수준을 최대로 높이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시, 군 책임일군들이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과 경제적잠재력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와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할데 대한 문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혜조치가 은을 낼수 있게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완비할데 대한 문제, 시, 군들에서 핵심기술자들과 기능공육성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실무적인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포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협의회를 마치신 후 바다가양식장수역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시험적으로 시작한 조개양식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풍어동지구앞바다가 수질, 수심, 수온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양식조건이 량호하다고 하시면서 이곳 바다가지역의 훌륭한 변천과 더불어 행복해질 신포시인민들의 앞날을 그려보시며 감개를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협의회에 참가한 전체 일군들은 바다가양식업의 확고한 전망과 발전가능성을 신심에 넘쳐 확신하면서 지방진흥의 새로운 국면을 거폭적인 확대에로 승화시키는 투쟁행정에서 자기들의 막중한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여 가장 긍지스럽고 값높은 투쟁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8 월 24 일과 25 일 여러 지방공업공장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배치 및 원림계획도를 보시면서 지휘관들로부터 건설진척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공사현장들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착공의 발파단추를 누르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공장들이 자태를 드러냈다고, 전반적으로 총공사량의 80%계선을 다 넘어섰다고 하는데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비들의 가동에 지장이 없고 로동생산능률을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공정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이 되였는가, 벽체들의 보온대책은 철저히 세워졌는가, 벽체타일붙이기가 손색없이 되였는가를 세심히 살펴보시면서 시공의 질적수준을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건설을 다그쳐 끝내겠다는 조바심에만 사로잡혀 질제고라는 정책적요구를 홀시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당이 인민들과 약속하고 인민군대가 인민들에게 선물하겠다고 결의한 지방공업공장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지휘관들과 건설감독기관들의 요구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일솜씨도 오래도록 보아주시면서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 시, 군당조직들과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 공장건설이 완공되는 즉시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그 혜택을 볼수 있게 원료기지조성과 기능공양성을 비롯한 준비사업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착실히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실행해나감에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있는 지방공업공장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건설을 병행시킴으로써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당중앙의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전면적으로 흥하는 새

시대를 보다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열어제끼기 위해 당에서는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내리기에는 매우 힘든 결심이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에 중대결단을 내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역의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맡은 인민군부대들이 전개된 기회에 저리 과학기술보급거점도 완공하며 병원과 량곡관리시설도 건축골조공사를 먼저 완성하고 년차별로 국가적인 대책을 뒤따라 세워가며 완공하여 운영에 들어갈수 있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건시설의 현대화수준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시, 군들에 큰 규모의 발전된 병원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지방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방대한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건물건설을 지방공업공장건설일정에 맞추어 선행시키고 설비들은 국가적인 차후계획에 따라 갖추어놓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과학기술보급거점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농촌을 도시화하는데서 우리가 목적하는바는 순수 건축미학적인 모방이 아니라 도시에 못지 않은 농촌력량의 선진화, 로동계급화, 과학기술인재화를 빨리 실현하자는것이라고, 그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로서 시, 군마다 《과학기술보급중심》을 내오고 여러 분야의 필요한 지식들을 보급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당의 정책에도 부합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낟알을 가공하고 보관하는 여러 시설들을 통칭하여 《량곡관리소》라는 개념을 만들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량곡관리소도 이미 있던 시설들을 보수나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틀어쥐고 새로 건설해주어 애써 거두어들인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보관관리를 잘하며 특히 인민들에게 질적으로 가공된 식량을 보장해줄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공업공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시공력량과 자재보장, 지휘체계가 비교적 정연하게 세워져있

는데 이 기회에 매개 시, 군마다에서 현대적인 병원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건설사업을 동시에 내미는것이 시기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최적의 선택으로 된다고 거듭 확신하시면서 지방발전정책이 경공업공장건설에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되여야 진정으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될수 있고 지방발전의 효률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 군들의 농촌건설로력으로는 살림집들을 모두 개변시키자고만 해도 아름찬 일이므로 여력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여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사업들을 외면한다면 지방진흥이라는 꿈이 한갖 빈구호로 끝날수 있다고 강조하시고 우리 당은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지지자, 관철자이며 새시대의 문명의 개척자이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우리 군대를 믿고 용단을 내렸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동원된 군부대들에서 로력편성과 력량조절을 잘하고 공사일정조직을 빈틈없이 하여 새롭게 부과된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보다 방대해진 지방발전 10 년목표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들과 구체적인 수행방도들을 해당 부문 책임일군들이 깊이 연구하여 12 월전원회의에서 토의심의 및 결정채택하고 년차별로 실속있게 집행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임무는 방대하고 조건은 비록 어렵지만 좀더 품을 들이고 보다 분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리상을 실현할수 있다고, 어려운 때 어려운 사명을 스스로 걸머지는것은 조선혁명가들의 특질이라고, 이러한 웅대한 목표들이 달성될 10 년후에는 지방과 농촌이 말그대로 세기적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변하게 될것이며 우리 국가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질것이라고, 그날을 그려보면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고 그날을 그려보면서 오늘을 딛고 일어서자고 호소하시면서 지방중흥의 변천과정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중대한 행보로 될 거창한 계획들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로 맺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방공업공장건설장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조

선로동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더욱 풍부히 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는 강령적지침, 전투적기치가 제시된 중대한 계기로, 인민의 념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는 건당초기의 본도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로동당의 령도활동에서 또 하나의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지도

혁명령도의 천사만사를 오직 인민의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데로 지향시키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부단히 확대심화시켜나가는것을 본도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사명감과 원대한 리상, 완강한 실천력은 인민이 제일 바라고 반기는 변혁의 설계도들을 련이어 펼치며 국가의 전면적부흥장성을 강력히 견인하고있다.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전략에 따라 전국적판도에서 농촌의 세기적후진성을 타파하며 현대적인 농촌살림집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지방경제를 완전히 새롭고 선진적인 토대우에서 재건하기 위한 지방발전혁명이 본격적인 시발을 뗀 시기에 당중앙은 또다시 중대결단을 내리고 전국의 시, 군들에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중심, 량곡관리시설들도 훌륭히 동시다발적으로 일떠세우는 력사적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사변적인 정책결정채택준비사업에 들어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의 획기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조치를 당정책으로 책정하는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2024 년 8 월 31 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현시기 혁명의 발전과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가는데서 더욱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제기되는 시, 군보건시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시면서 당의 지방발전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단순히 공장이나 건물 몇개를 세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리념으로 하는 국가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들에게 사회주

의위업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깊이 심어주고 굳건한 계승을 담보하는 중차대한 정치사업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우리 당이 지역적거점인 시, 군들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에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정책을 내놓고 그 실행을 각방으로 힘있게 추진하고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국 지방인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롭게 추가부과된 3 대건설과제는 우리당 지방건설정책과 과학기술중시정책, 인민적시책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전국의 균형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국가건설강령실현에서 필수적인것으로 하여 이를 시행함은 시급한 당면과업으로 제기된다고 하시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실행을 위해 인민군부대들이 각 도와 시, 군들에 전개되여있고 전국가적인 자재공급체계, 지휘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된 현시점이 이 중대한 혁명사업을 개시하기에 최적기로 된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은 마땅히 경공업공장건설에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되여야 하며 그래야 진정으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고 지방발전의 효률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진적인 시, 군병원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을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 원칙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실태를 개선하고 지방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 군병원건설은 자신의 제일가는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건설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해년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가 당과 정부에게 부과하는 제 1 의 임무로 간주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문화보급거점도 통이 크게 훌륭하게 완공하여 지방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기술과 지식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며 종합적이고 일체화된 미곡처리시설들도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하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과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지방발전정책집행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배가하여 새로 건설하는 대상들의 운영준비를 비롯하여 자기 몫을 명백히 찾아 실속있게 전개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진흥을 위한 필수 3 대건설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 관건적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조선인민군 각급 지방건설부대들의 력량을 증편하고 건설부문에 대한 중앙적인 정책지도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화된 실무적대책들이 토의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전개하는 이 거창한 사업들은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중대사항이며 100 년후에도 지방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중앙의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 우리 군대가 무거운 짐을 배가하여 떠멜수록 그만큼 지방변혁의 새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고 전국인민들의 복리가 더 증진될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근 80 년간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지방변혁의 대업을 지방발전혁명기간내에 수행하는 위대한 년대가 흐르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당의 지방발전정책의 요구에 맞게 전국이 변천되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새로운 모습을 반드시 펼쳐놓을 완강한 의지와 확고한 자신심을 지니고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진흥의 력사적위업이야말로 정말 고생은 커도 자부할만한 혁명사업이라고, 해가 바뀔 때마다 20 개 시, 군들에서 인민의 행복과 지방발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창조물들이 솟아오르고 온 나라가 천지개벽의 노래로 들끓을 때 우리는 과감한 투쟁과 분투를 각오하고 내짚은 오늘의 힘찬 보폭을 더욱 긍지높이 여기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투쟁방향은 인민의 숙망을 풀어주고 행복넘친 미래를 안아오기 위

한 만짐을 과감히 떠메는것을 혁명적당풍으로, 최대의 숙원으로 간주하는 조선로동당의 책임적인 선택, 보람넘친 혁명사업으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복무정신과 가장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의 성스런 보무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을 위대한 투쟁에로 궐기시키시며 사회주의문명부강의 새 전기를 힘있게 펼쳐가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지방발전사업협의회는 확대심화된 조선로동당 지방발전정책의 실천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계기로 되였다.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8 월 31 일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전략을 실행하는데서 중책을 맡고있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조선인민군 각급 지휘관들과 함께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현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시며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진척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지방진흥을 향한 전망목표의 첫 돌파구를 신심있게 열어나가며 성스러운 혁명사업의 성공적실행에 완강히 분투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의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첫해부터 전국의 20 개 시, 군들에 일떠서는 산업시설들은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직접적표현의 실체들이며 이는 우리의 량심과 리상, 우리의 분발력과 투지 그 모든것이 그대로 비껴있는 축도이라고, 인민의 재부로 길이 남을 창조물에는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며 속도일면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요소는 그것이 사소한것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행위로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건설전역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질제고의 된바람을 일으키자면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기계로부터 건설자들이 휴대하는 각종 기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장비들을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하는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지방건설에서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들과 건설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건설물의 평가를 질적지표에 엄격히 준하여 하는 기풍을 더욱 조장확대해나가야 할 필수성을 언급하시고 설계상요구, 공법상요구에 맞게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의 범위가 부단히 넓어지고 지방건설의 전면적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 어디보다 선행발전해야 할 부문은 설계부문이라고 하시면서 산업시설설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포괄적인 원칙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신 후 동행한 지도간부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정책관철의 성패여부는 전적으로 지도간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전면적국가부흥을 향한 혁명전구마다에서 견인기가 되여야 할 지도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이 현행당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해당 건설대상의 중요성과 특성에 대한 인식이 미숙한 결과 실질적이며 실무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대중의 심리와 년령에 맞지 않는 뜬 구호나 웨치는 유람식, 멋따기식지도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상들을 분석하시면서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 관철에서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자세와

관점을 확립할 때 한차례의 현장지도를 해도 그것이 현실성있고 반드시 필요한 지도로, 아래에 대한 정치적령도로 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 근절되지 못하고있는 무지향적인 경쟁에 대하여서도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건설부문에서 경쟁을 하나 조직하여도 그것이 사회주의문명개화를 착실히 추동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창조와 건설의 질적발전을 저해하는 속도위주의 경쟁은 혁명하는 우리 시대의 대중운동과는 무관하다고 하시면서 지방진흥의 력사적임무를 떠멘 군부대들에서는 부대내 관병들의 기능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다양한 기능경기나 기능공양성, 질제고, 환경정리와 같은 실리있고 의의있는 주제의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군대의 충실성과 전투력을 굳게 믿고 자력으로 열어나가는 지방변혁의 방대하고 성스러운 력사적공정을 위임했다고 하시면서 영예로운 건설대전에서 인민군대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모든 면에서 완숙한 전위대오로 되기 위해서는 군인대중에게 인민을 위한 물질적부의 창조자, 문명한 새시대의 개척자라는 자각을 심어주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참신하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인민의 군대답게 현지인민들과 늘 고락을 같이하고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휘하며 그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혁명군대의 영상을 더욱 빛내이고 혁혁한 명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중장기적인 투쟁의 선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있는 군인들 한사람한사람은 더없이 귀중한 혁명전사들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군부의 지휘성원들이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다 원만한 작업조건,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을 갖추어주는 사업에도 각방의 진정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군 각급 지휘관들과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고 인민에 대한 가장 충실한 복무와 훌륭한 결실로

써 당결정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실행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평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사업을 지도하시였다.

해당 지방공업공장건설에 인입된 관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건설의 질을 보장하는것을 제 1 차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건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군인건설자들이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높은 질적수준을 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시공을 정말 잘했다고, 건설물마다에 우리 군대의 당정책관철정신과 립장이 그대로 깃들어있다고, 이것이 곧 애국심이고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이며 고향애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서도 사상관점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될 때 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군인대중이 건설과정을 통하여 애국의 참뜻을 알고 조국과 인민을 깨끗한 량심과 실천으로 받들줄 아는 시대의 개척자, 창조의 주인공들로 성장한것이야말로 그 어디에도 비할바 없는 귀중한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일부 시, 군의 지방공업공장건설에서 발로되였던 결점들을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고, 현실에서 창조된 우리 식의 우수한 공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질제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시, 군들에 파견된 건설련대들이 이곳 지방공업공장건설에서 이룩된 경험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지방공업공장건설을 지방진흥을 앞당기는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숭고한 의도를 명심하고 각급 건설부대 지휘관력량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공사를 강력히 추진시킨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건설사업에 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질을 우선시하는 기풍이 건설전역을 지배하고 있는것은 우리 건축의 발전성을 담보하는 긍정적인 추이로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건축물들에는 우리의 사상과 정책, 우리의 미학관이 반영되고 당대의 시대상이 비끼게 되며 이런것으로 하여 건축은 정치의 연장으로, 축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건설물을 일떠세워도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명예를 걸고 후대들앞에 떳떳한 시대의 상징물로 훌륭하고 완벽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량곡관리시설들의 설계를 해당 건물의 용도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산업시설설계에서 실리성과 현대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기능공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지방건설을 확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군인건설자들이 앞으로도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을 혁혁한 건설성과로 받들며 지방중흥을 위한 사업의 전위에서 선도자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1 월 14 일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웅대한 력사적과제를 기

어이 훌륭한 결실로 펼쳐놓을 신심에 넘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의 기세찬 투쟁에 의하여 전국의 20 개 시, 군들에서는 조선식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며 지방공업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날에날마다 더욱 뚜렷한 면모를 과시하고있었다.

지방공업공장건설에서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당중앙의 강령적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에 동원된 관병들도 마감시공의 질제고에 총력을 집중하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료공장, 일용품공장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설비제작 및 조립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긍지로운 지방발전혁명의 첫해 투쟁에 떨쳐나섰다는 중대한 책임감에 무한히 충실하여 거창한 세기적변혁을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건설사업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발휘함으로써 인민의 재부로 길이 전해갈 귀중한 실체들을 손색없이 창조해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충심으로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년말이 다가오고 공장완공이 마감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모든 건설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조급성을 극복하고 건축공사를 더욱 치밀하게 내밀어 마지막까지 시공의 질적수준을 완벽하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비제작 및 조립실태를 알아보시고 이 사업이 순수 실적총화로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운영 첫단계에서부터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제작하고 설치와 시운전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술자, 기능공양성정형과 원료기지농사정형,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자재확보정형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이 완공되는것과 동시에 생산에 진입하여 시작부터 은을 내야 한다고, 말그대로 공장이 꽝꽝 돌아갈수 있게 모든 준비사업을

완강하게, 착실하게 추진하여 지방발전혁명의 첫해부터 성공적인 성과로써 지방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건설은 단순한 건설사업이기 전에 우리 당의 원대한 정책이며 지방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제라고, 그렇기때문에 공장건설에서 실적수자만을 론하기에 앞서 깨끗한 량심을 묻는것이 보다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하루하루에 애국의 진한 땀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나간다면 지방변혁의 눈부신 시대는 반드시 현실로 펼쳐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렬한 애국충성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충만된 군인건설자들이 진함없는 과감한 투쟁으로써 《지방발전 20×10 정책》실행의 첫해를 빛나게 결속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1 월 19 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지방발전의 새시대를 알리는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정책이 책정되여 그 집행을 위한 첫해의 투쟁을 시작한 2024 년에 벌써 20 개 시, 군들에서는 당결정관철의 확신성있는 성과들이 달성되고 전국의 동시적이고 균형적이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전망성이 현실적으로 확증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체로 생산한 기계설비들의 제작수준과 조립실태, 건축공사정형 그리고 원료, 원자재준비와 기능공양성실태 등을 료해하시고 지방공업공장들의 경영과 관리, 전망적발전방향에 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2024 년 12 월전원회의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사에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사업정형을 정확히 총화하고 이룩한 경험과 발전성과를 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새 문명을 지향, 창조하는 끊임없는 건설혁명의 시대적요구와 임의의 방대한 건설사업들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추진시켜나가는데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선결적인 과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대책들을 연구하고 국가적으로 조치할 문제를 당중앙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할데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제는 년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2024 년에 진척시켜온 20 개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건설사업을 완벽하게 결속하는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과 2025 년도 지방건설계획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시를 내리시였다.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새로 일떠서고있는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을 찾으시고 공사실태와 양식장조성 및 관리운영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7 월 15 일 력사적인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각 지방의 경제적자원과 잠재력총체를 실정에 맞게 바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계획을 옳게 작성하고 중앙의 강력한 지원밑에 지방경제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울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울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가능성을 확증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포치하신 과업에 따라 지난 몇개월간 공사를 진행해온 중요지방건설정책대상이다.

이 기간 당의 지방경제발전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군인건설자들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 기술자, 종업원들은 사업소 건축공사와 양식장조성 및 관리운영준비사업을 병행하여 드세게 다그침으로써 현재 총공사량의 70 여%단계에서 진척되고있으며 100 정보의 양식장을 조성하고 밥조개와 다시마시범양식을 진행하고있었다.

사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업의 과학화수준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양식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주기가 짧은 우량품종의 밥조개사름률을 80%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생산확대의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다시마양식의 선진기술도입에서도 중요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중앙의 직접적인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사업소에서 리용할 각종 어구자재와 수지배, 양식모선을 비롯한 필수생산수단, 설비, 장비들이 그쯘하게 갖춰지고 가공장에 설치할 설비일식의 제작과 확보도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규제한 매 지방의 고정건설대상들외에 지역의 각이한 자원과 자연지리적환경을 적극 리용하여 지역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 역시 당의 지방경제발전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우리는 지방들에서 자체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매 시, 군들의 조건과 환경을 자기 지방경제발전에 옳게 리용하기 위한 전망적인 발전방향과 계획부터 정확히 작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번 대상건설설계사업을 통하여 산업시설설계분야에서도 비과학적이며 실리성이 없이 일률적으로 평면을 조직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성, 경영관리의 편의성을 위주로 하는 다양한 공간리용방식을 적극적으로 살린 설계에 대한 새 개념들을 터득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추이로 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로, 산업시설설계에서의 부진이 극복된것으로 평가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러나 아직 우리의 건설사업전반에서는 기술과제서작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설계, 심의, 합의, 예산작성 등 모든 공정이 건

설법에 준한 과학적이며 법규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지 못하고있으며 최근년간에는 건축설계가 해당 시설의 용도와 능력, 기능성측면보다는 직관적효과에만 치중되고 타산없이 규모를 정하는 등 취미본위적이고 무규률적이며 경제적실리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페단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실례들을 지적하시였다.

경제적효과성과 실리성을 잘 따지고 최적화, 최량화방안을 반영하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별기능성을 높이는 원칙에서 설계전반이 보다 갱신된 사업체계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를 감찰하고 심의승인하는 체계도 보다 강화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의 해당 기관들에서는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업의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보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재 건축공사실태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당중앙위원회 12 월전원회의전까지 올해 중요정책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결속하자면 기능공력량을 더 증강해주는것이 필요하다고 결론하시고 해당한 포치사업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잘 건설, 운영하여 바다가양식의 본보기로 만들고 온 나라에 적극 일반화해야 한다고, 국가적으로 해안연선의 시, 군들에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할수 있는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실현하자면 나라의 모든 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지방들이 발전할 가능성을 최대한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거폭적으로 확대심화되고있는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수행에서 각 지방, 지역들이 자기 발전의 과학성과 효률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수 있는 명확한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을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서 적극 추진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실천적담보를 마련해준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3) 국가건설사에 처음으로 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의 첫 실체들을 일떠세우시고

지방중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 지방공업혁명의 고귀한 첫 실체 -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사상과 원숙한 지도력에 의해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변혁적창조물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다련발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는 속에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과업이 빛나게 완결되여 전국의 20 개 시, 군들에 수십개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훌륭하게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9 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을 받들고 총궐기해나선 건설련대 전체 관병들은 혁명군대특유의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지방공업혁명이 개시된 때로부터 불과 290 여일만에 지역적특성에 부합되고 생산의 자동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일떠세우는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발전행로에 특기할 창조대전의 고귀한 첫 실체들이 탄생한것은 인민의 복리증진과 리상실현을 당과 국가의 최고활동원칙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혁명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며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거창한 격동의 년대가 눈앞의 현실로 도래하였음을 실증하는 고무적인 사변이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2024 년 12 월 20 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준공식장은 력사적인 착공식을 가졌던 영광의 터전우에 부흥번영의 재부들을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 당의 은정속에

지방변혁의 새 문명, 새 생활을 향유하게 된 성천군근로자들의 감격과 환희로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불철주야의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며 조국땅우에 세기적인 지방중흥의 새시대, 전면적국가발전의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혁명의 걸출한 수령, 위대하신 인민의 령도자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각급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 성원들, 평안남도와 성천군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지방공업혁명의 개시를 선언하던 력사적인 장소에서 10 개월만에 그 첫 결실을 놓고 준공의식을 가지는것은 우리 사업의 진의와 전도를 확인하는 의의깊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지방공업혁명의 시발이자 그 성패를 가늠하는 축도라고도 할수 있는 2024 년에 전국의 각 지역들에 새로운 실체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지방이 변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주고 지방발전정책을 다각적이고 풍부한 경험에 립각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의 지방공업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이 모든 지역의 인민생활과 나라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추켜세우려는 의도에 배치되게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한 원인들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며 랭철한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20개 시, 군이 변하는 위대한 년대는 어김없이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하며 가시적인 성과보다 교훈과 전망을 더 중시하면서 전진의 보폭을 더 크고 정확하게 내짚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새년도 건설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강령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력사적인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과 농촌혁명강령을 100년후에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더욱 확대심화시킬것이며 지방의 한가지라도 더 훌륭히 개변시키는데 더욱 과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인민들이 변천된 고향땅, 흥하는 고장에서 문명부유한 삶을 누려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감히 분투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심이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오르는 속에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새시대 지방발전사에 긍지높은 첫 페지를 아로새기는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준공식장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성천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불멸할 정치리념, 확고부동한 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전국인민의 영원한 평안과 무궁한 행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를 격정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참가자들과 함께 성천군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름생산실, 간장, 된장생산실, 밤졸임생산실, 빵생산실, 음료생산실, 비누생산실, 목재가공작업반을 비롯한 식료공장과 일용품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시험적으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의 가지수와 질적수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생산공정들을 최

대한 활용하여 인기제품, 자기 지방고유의 특색이 살아나는 명상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평가는 군내주민들이 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활동과 질보장, 기능공양성 등 경영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호상 경험을 교환하고 서로 배우며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풍을 조장확대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운영에서 기본은 생산정상화와 질제고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이 두가지 문제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월별로 강하게 총화대책하여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정책이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지방발전의 효률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제품검사체계를 엄격히 세울데 대한 문제,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부단히 제고해나갈데 대한 문제, 제품포장에서 편리성과 실리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지방공업공장들의 경영활동과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을 강화하여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그 우에 더 높은 탑을 쌓아올리자는것이 우리 당의 국가건설전략이라고, 지금 건설하는 하나하나의 지방공업공장들은 우리의 량심과 리상, 우리의 높은 분발력과 투지 이 모든것이 그대로 비껴있는 축도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련대의 전체 관병들이 지방진흥을 위한 투쟁목표의 첫 돌파구를 기세차게 열어제낀 그 기세, 그 본때로 명년도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변혁의 개척자, 행복의 수호자로서의 영예로운 본령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준공식참가자들은 식료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의 혁명사적실, 연혁소개실들과 여러 생산실을 돌아보면서 지방의 획기적발전과 전국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이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헌신의 려정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으며 당중앙의 원대한 지방발전구상을 일심전력을 다해 충직하게 받들어갈 굳은 맹세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방중흥의 첫 창조물로 훌륭하게 일떠선 성천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은 주체위업의 양양한 전도와 더욱 문명부강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당 제 8 차대회가 펼친 전면적국가부흥의 력사적진군을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비상히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선진적인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가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에 훌륭히 일떠섰다.

2024 년 7 월 력사적인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에서 각 지방의 경제적자원과 잠재력총체를 실정에 맞게 적극 개발리용하여 지방경제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바다가양식업의 시범을 창조하도록 하시고 불멸의 령도자욱을 거듭 새기시며 공사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은 당중앙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불과 몇개월만에 동해기슭에 휘황한 전변상을 펼쳐놓았으며 그 기간 양식사업소의 일군, 기술자, 종업원들도 생산장성의 튼튼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신포시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선물인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준공은 전국의 동시균형적발전을 위한 지방중흥의 세기적대업을 결단하고 완강히 실행해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바다를 낀 모든 시, 군들의 미래의 변혁상을 보여주는 자랑찬 축도이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이 2024 년 12 월 28 일에 성대히 진

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며 울려퍼지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위원회 2024 년 12 월전원회의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부흥을 강력히 견인하는 새로운 전진과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고도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려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를 크나큰 격정속에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각급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 성원들, 함경남도와 신포시의 일군들, 근로자들, 군인건설자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다섯달전만 해도 솔숲에 백사장뿐이였던 이곳에서 지방변혁의 특색있는 창조물로 솟아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준공을 선포하는 감격적인 시각을 맞이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전국적판도에서 동시다발적인 진흥을 지향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착실한 진전을 이룩해가고있는 중대한 사업이 첫걸음을 뗀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지방공업혁명이 실질적담보를 가지게 하자면 확실하고도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토대를 축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신포시처럼 인구수가 많은데 비하여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시, 군일수록 지역의 자연부원과 경제지리적특성에서 유리한 점을 옳게 찾아쥐여야 하며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력으로 살아나가고 발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가 준공됨으로 하여 우리가 얻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소득은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쇄신하게 될 바다가양식에 신포사람들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묘술을 과학으로 터득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자생자결을 빈말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실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양식사업소의 기술자들과 종업원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관, 병사들이 당정책을 굳게 믿고 비상한 각오와 불굴의 노력으로써 그 진리성, 정당성을 명명백백히 립증하였으며 인민군대의 해당 부문에서 새형의 양식모선을 건조, 기증하여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큰 몫을 맡아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일감을 찾았을 때의 기쁨도 크지만 그 결심에 호응해주며 성실하고 완강한 로력투쟁으로써 당정책이 정당함을 증명해주는 한결같은 성심을 대할 때 받아안는 긍지와 보람은 더욱 뿌듯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처럼 값있는 조국과 인민의 재부를 창조하여 당결정집행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전체 군인건설자들과 신포시를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련관부문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루어놓은 사업들에 못지 않은 방대한 일감들, 보다 거창한 투쟁과업이 우리앞에 있다고 하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이 첫해 바다농사의 좋은 경험을 적극 살려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하고 그를 위주로 하여 수산업의 구조를 개변시키는데서 계속 선구자적역할을 하며 기업관리를 깐지게 하여 지방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는 해안선이 길어 바다를 낀 시, 군이 적지 않으며 우리 바다는 깨끗하고 생태조건이 아주 좋다고, 이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해안지역들에서 바다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력대 굴지의 어장도시로 유명했던 신포시에서 대규모양식의 새 경험이 창조된것은 장차 바다가양식을 주되는 령역으로 하여 나라의 수산업을 재건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주고있다고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또다시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 바다가양식사업소를 일떠세우기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책정한데 대하여 소급하시면

서 앞으로 건설될 바다가양식기지들은 마땅히 신포시의것보다 더 선진적이여야 하며 지역특성에 철저히 부합되면서도 지방경제의 발전을 실속있게, 전망성있게 담보하는것으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바다를 낀 곳만이 아니라 기타 시, 군들에서도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과 유리한 경제적조건을 개발, 활용하여 지방경제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리상과 우리의 용기, 우리의 분투와 창조는 기필코, 끊임없이 더 자랑스러운 재부들을 우리들자신앞에 가져다줄것이라고 하시면서 지방이 변하고 흥성하는 시대에 신포시가 번창하고 말그대로의 《부자시》가 되여 이 고장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라 의의깊은 12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지방진흥의 빛나는 력사에 거룩히 아로새겨질 숭고한 화폭이 펼쳐지는 준공식장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새 생활, 새 행복에 대한 환희가 크나큰 감격의 파도되여 끝없이 설레이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실 강렬한 열망을 지니시고 거창한 지방발전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호하는 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신포시인민들의 밝은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과 함께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밥조개가공장, 초급동실, 종합지휘실, 제품견본실 등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 및 양식물가공정형을 상세히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건물의 내외부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실리있게 잘 건설했다고,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시대를 대표

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당의 명령지시에 언제나 충실한 우리 군대의 애국적헌신과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은 앞으로도 지방중흥의 력사적대업을 가속화해나가는 투쟁의 선봉에서 문명의 개척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마, 밥조개, 해삼, 성게 등을 가공하여 만든 여러가지 제품들을 보시면서 당에서 품을 들여 훌륭한 바다가양식사업소를 건설해준것만큼 신포시에서는 양식사업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익성과 효과성을 최대로 높여 그 결과가 지역경제의 비약적인 상승발전과 이곳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향유에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망성이 확고한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완공으로 지방경제발전의 새로운 령역이 또 하나 개척되였다고 하시면서 신포지구의 눈부신 변혁은 자력, 자존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륭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식 발전관, 우리식 투쟁방식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양식모선과 양식배, 잠수배들이 줄지어 늘어선 부두를 돌아보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는 볼수록 훌륭하다고, 저 배들이 신포인민들의 행복을 가득 싣고 부두로 들어서는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러워지고 새힘이 솟는것같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력대초유의 공력을 기울이는 지방진흥의 력사적위업을 강력히 실행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관광자원이 있는 곳에서는 관광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시, 군들이 지방경제를 확고한 발전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참가자들은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지방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기 위한 중대결단으로부

터 시작되고 그 실현을 위한 중대사변들로 이어진 **김정은**동지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으며 당중앙의 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국가의 부흥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하게 진행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은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의 휘황한 전망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11 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투쟁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뜻깊은 2025 년을 전면적국가발전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 승리의 해로 빛내일 철석의 의지로 충만되여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3. 국가방위력의 급진적발전을 위하여

1) 국가의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시기 위하여

건군절에 즈음하여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6 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2 월 8 일 오후 국방성에 도착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천리혜안의 지략과 강철의 담력과 배짱, 불철주야의 로고와 헌신으로 위대한 국가의 존위를 세기의 단상에 올려세우시고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미증유의 기적과 거창한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영웅성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존엄과 빛나는 영예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와 영광의 륙, 해, 공군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주요지휘관들과 대련합부대장들이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건군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군지휘관들은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인민군을 국가의 주권사수, 국위선양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강대무비한 혁명무장력,

애국의 선봉부대로 억세게 키워주시고 시대의 전렬에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을 맞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을 축하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탄생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76 성상 시대와 력사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을 충직히 걸머지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권익, 당의 사상과 위업을 철저히 보위하며 부국강병에로의 위대한 전환을 주도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인 발전행로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까지 합쳐 전군의 장병들에게 뜨거운 건군절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투쟁사는 혁명의 전위에 군대를 세우고 전진하는 국가와 인민만이 어떠한 도전과 위기속에서도 끄떡없고 줄기찬 발전과 륭성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력사의 벽에 새겼다고 강조하시고 견결한 혁명신념과 투철한 애국정신, 무쌍한 영웅성과 기개, 헌신적인 복무로 조국의 신성한 주권과 인민의 명예를 굳건히 수호해가고있는 혁명무력의 위대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절대의 사명을 지닌 조선로동당이 앞으로도 언제나 혁명무력의 용감성과 충직함에 의지하여 부흥창창한 공화국의 래일을 앞당겨올것임을 선언하시면서 전군의 장병들이 위대한 새 승리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안고 한마음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당과 정권,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최고의 영예로 간주하고 주체혁명의 혈통,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며 국가의 존립과 발전,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는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열화의 정과 믿음으로 충만된 **김정은**동지의 열정넘친 연설은 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2월의 하늘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장의 믿음을 더없는 영광으로 간직하고 영

원히 당중앙과 사상과 뜻, 운명을 함께 하며 이 땅의 영원한 평화와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혁명강군의 위용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우렁차게 웨쳤다.

건군절에 수놓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국방성에 대한 축하방문은 개척도 위대하고 계승도 위대한 백전백승의 영웅군대 조선인민군이 존엄높고 부흥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려정에서 그 명성을 더욱 떨치며 당중앙따라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강력히 견인해나가야 할 숭고한 사명감과 분발력을 백배해준 력사적계기로 청사에 거룩히 새겨졌다.

조선인민군창건 76돐 경축연회에 참석하시여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6 돐에 즈음하여 2024 년 2 월 8 일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연회에는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초대되였다.

언제나 인민군장병들을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두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며 인민군대의 영광과 명예를 최고의 절정에서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연회장에 넘쳐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군장령들은 70 여성상의 장구한 전투적려정에 자랑찬 승리와 혁혁한 무훈만을 아로새겨온 인민군대를 영원히 백전백승하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비상히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천하제일명장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연회에 앞서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불세출의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가장 정의롭

고 강대한 조선인민군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전투적기백이 맥박치는 혁명군가들을 들으며 군장령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인민군대의 명성과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고있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연회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인민군대가 태여난 뜻깊은 명절에 즈음하여 몸소 국방성청사를 찾으시고 전군의 장병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며 최상의 평가와 고무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또다시 한자리에 모시고 건군절의 온 하루를 무한한 영광속에 의의깊게 보내는 군장령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군지휘관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베풀어주신 믿음과 특전을 깊이 간직하고 작전과 책략을 하나 세우고 구령을 한번 내려도 당중앙의 의도와 0.001mm 의 편차도 없는 정확하고 무조건적인 실천력을 발휘하여 인민군대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을 영예롭게 수호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세계최강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시고 필승불패의 한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국가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걸머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줄기찬 강화발전과 불멸할 위훈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장에는 위대한 령장과 전사들사이의 각별한 정과 의리의 세계가 군력사에 또다시 아로새겨지는 의의깊은 감격과 환희의 시간이 뜨겁게 흘렀다.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중요작전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3 월 6 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중요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하시여 훈련시설들을 돌아보시고 부대들의 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작전훈련기지의 시설들과 여러 훈련

장요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이 군대앞에 제시한 중요군사정책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여러가지 훈련을 실전과 같은 환경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할수 있게 모든 요소들을 실용적으로 꾸린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실지 인민군대전투력강화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그 리용을 적극화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정상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이날 예견된 부대들의 실동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에는 계획에 따라 모집된 각급 단위의 전투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사수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여 전투력강화를 위한 훈련길에 아낌없는 땀을 묻으며 무적의 힘을 억세게 키워온 영용한 전투원들은 이번 실동훈련에서도 각자 부대들의 명예를 걸고 싸우면 반드시 적을 타승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된 자기들의 실전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의 훈련모습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완벽한 림전태세를 유지하고있는 전투원들의 강의한 혁명성과 불굴의 전투성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실전과 같은 훈련환경에서 진짜배기싸움군의 용맹한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군인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고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가슴속에 싸움마당을 안고 자기의 본분에 전심전력해나가는 군인들의 견결한 애국심을 힘있게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현시기 훈련열풍을 더욱 비약적으로 일으켜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실지 전쟁마당에서 승리를 확신할수 있는 실용적인 실전훈련을 보다 강도높이 전개할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가 적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압도적인 힘으로 견제하고 사소한 전쟁도발기도도 철저히 제압하며 유사시 부과된 중요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준비완성에 있어서 변화발전하는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항상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전투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각급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쟁준비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떠맡아안고 시대의 앞장에서 돌진해나아가는 인민의 참된 수호자, 복무자인 우리 군대가 있기에 나라가 굳건한것이고 인민의 안녕이 지켜지며 행복이 창조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는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무겁게 새겨안고 위대한 우리 시대의 주역을 계속 믿음직하게 담당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훈련에서 강의한 의지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일당백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한 미더운 전투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전체 전투원들은 몸소 자기들의 훈련을 지도하여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무적의 담력과 배짱을 백배해주신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충성을 맹세하며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며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군의 앙양된 투쟁기세가 날로 비상히 고조되고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3 월 7 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하 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능력을 위력시위와 경기진행의 방법으로 검열평가하여 포병들의 전투동원태세와 실

전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적의 수도를 타격권안에 두고 전쟁억제의 중대한 군사적임무를 수행하고있는 국경선부근의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으로 시작된 훈련은 추첨으로 정한 사격순차에 따라 각 대련합부대들에서 선발된 포병구분대들이 화력진지를 차지하고 목표를 사격한 다음 명중발수와 화력임무수행에 걸린 시간을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포사격훈련을 진행하는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은 포병들의 가슴가슴은 독창적인 포병중시관, 포병철학을 밝혀주시고 주체적포병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최강의 병종으로 자라난 자기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열망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에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자기 부대의 포병구분대들에 대한 화력지휘를 맡아하였으며 포사격방법은 그들의 결심에 따라 규정하는것으로 하였다.

대련합부대장들의 《쏴!》 구령소리와 함께 하늘땅을 진감하는 포성이 지심을 울렸다.

포사격훈련에 참가한 영용한 포병들은 조국수호의 사명감을 항상 자각하며 포병전쟁동원준비를 위한 실전훈련의 나날들에 꾸준히 련마해온 신속정확한 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일당백으로 준비된 만능포병의 높은 전투능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에 동원된 모든 포병구분대들이 경상적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직접 화력진지에 나가시여 인민군대의 위용과 일당백포병의 명예를 남김없이 떨친 영용한 포병전투원들을 뜨겁게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모든 포병들속에 훈련열, 경쟁열을 더욱 고조시켜 그들을 포병전의 능수로, 일당백의 명포수로 키워냄으로써 실전에서도 오늘훈련에서와 같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어떤 전투임무도 신속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포병전쟁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포병구분대들이 실전에 진입하는 시각에 무자비하고 빠른 타격으로 주도권을 쥘수 있게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더욱 완강히 내밀며 있을수 있는 각이한 정황을 예견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목표를 세우고 포병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기 위한 실동훈련을 보다 실속있게 조직진행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자랑이고 기본핵인 포병의 위력을 계속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강령적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훈련에 참가한 전체 포병전투원들은 당의 훈련혁명방침과 포병중시사상을 굳은 신념으로 다시금 새겨안고 새년도 훈련에 매진분투하여 포병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2024 년 투쟁에서 기어이 비약적혁신을 안아올 만만한 투지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땅크병대련합부대간의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3 월 13 일 조선인민군 땅크병대련합부대간의 대항훈련경기를 지도하시였다.

훈련경기는 땅크병들의 실전능력을 엄격히 검열하며 각이한 전술적임무에 따르는 전투행동방법을 숙련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훈련경기에는 땅크병대련합부대들에서 선발된 땅크승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기들의 전투행동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기쁨과 긍지에 넘쳐 훈련경기장에 나선 땅크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조선로동당이 지펴준 훈련혁명의 불길속에서 무쇠철마의 당당한 주인으로 억세게 준

비해온 일당백땅크병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할 전투적신심이 세차게 용솟음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땅크병대련합부대간의 대항훈련경기진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경기를 지켜보시였다.

대항경기가 시작되자 멸적의 전투정신으로 만장약한 땅크병들의 영용한 기세가 그대로 무쇠철갑들의 요란한 동음으로 이어지며 무적의 땅크들이 일제히 힘차게 돌진하였다.

여러가지 극악한 전투정황들이 조성된 경기주로를 빠른 속도로 누벼나가며 육중한 땅크들은 강력한 타격으로 목표들을 일격에 료정냈으며 높은 기동력으로 견고한 방어계선들을 극복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심을 뒤흔들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무쇠철마들의 치렬한 진격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장관이라고, 우리 군대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배짱이 도도히 전진하는 저 땅크들의 웅장한 기상에 다 응축되여있는것만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대항경기는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춘 강한 전투대오로 억세게 성장해가는 영용한 땅크병들의 완벽한 실전능력과 무비의 전투정신 그리고 전쟁수행의 위력한 수단의 하나인 땅크들의 믿음직한 성능과 경상적전투동원준비태세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기에서는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 105 땅크사단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시면서 사단의 땅크병들이 정말 잘 준비되여있다고, 지금까지 인민군대 각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 구분대들의 훈련을 많이 지도하였지만 오늘 땅크병들의 준비정도가 제일 만족스럽다고, 전군의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오늘 대항경기에 참가한 제 105 땅크사단관하 구분대들처럼만 준비되여도 전쟁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겠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은 적의 수도를 점령했던 자랑스러운 력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부대라고, 전화의 근위땅크병들의 불굴의 넋과 영웅적기개가 오늘날 새세대 땅크병들의 전투정신에

도 그대로 높뛰고있는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시면서 사단의 용감한 땅크병들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땅크병대항경기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놀라운 전투적성능을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낸 신형주력땅크가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데 대하여서도 만족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땅크를 장비하게 되는것은 크게 자부할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땅크부문 전쟁동원준비에 총력을 다해가고있는 땅크병대련합부대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고 격양된 투쟁기세를 더욱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준비완성의 비약적인 성과에로 이어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에서 땅크병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유사시 각이한 정황속에서 임의의 전투임무도 신속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전투능력향상을 위한 실전훈련들과 훈련경기들을 강도높이 조직진행하며 만능승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전쟁준비완성에 철저히 복종지향시켜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적의 용맹으로 자랑찬 위훈만을 아로새겨온 전화의 영웅땅크병들처럼 전군의 모든 땅크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준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각급 땅크병부대, 구분대들에서 전세대들의 영웅적무훈을 오늘의 전장에서도 힘있게 떨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일관하게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용감한 땅크병들이 견결한 대적의지로 만장약하고 일당백의 무쇠주먹을 더욱 억세게 벼리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충실함으로써 전투력있는 무쇠철갑대오의 영용한 기상을 계속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항훈련경기에 참가한 대련합부대별 땅

크승조들을 사열하시면서 땅크병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훈련장에서 영광의 군기와 함께 나란히 위대한 령장의 사열을 받고 크나큰 신임과 고무를 받아안은 땅크병들은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땅크승조들을 사열하신 후 몸소 신형주력땅크에 오르시여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직접 땅크를 몰아가시며 인민 군대 땅크병들의 충천한 전투적사기와 기세를 백배해주시고 투철한 대적관, 전쟁관을 깊이 새겨주시였다.

전체 땅크부대 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위용찬 모습을 삼가 우러르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전체 땅크부대 장병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만만한 배짱을 굳게 간직하고 무적의 철마를 질풍같이 몰아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제끼는 진짜배기싸움군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항훈련경기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의 땅크병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훈련경기참가자들은 몸소 훈련장에 불멸할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며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고 전투적기상과 용맹의 날개를 달아주신 **김정은**동지께 영원히 충성할 맹세, 조국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갈 신념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3 월 15 일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항공륙전병들이 불의적인 전시정황속에서 하달되는 임의의 작전적기도에 따라 동원될수 있는 태세를 검열하고 그에 맞는 각이한 전투

행동조법에 적응되여있는 실전능력을 판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최정예전투대오로 키우시기 위하여 불멸의 군령도자욱을 끊임없이 아로새기시며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또다시 훈련길에서 만나뵙게 된 전투원들은 용맹한 싸움군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나날에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자기들의 비상한 실력과 영웅적전투정신을 남김없이 과시할 드높은 자신심과 열정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항공륙전병부대들의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항공륙전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상공에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같이 가상적진에 쏟아져내렸다.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어렵고 힘든 훈련길에 충성과 애국의 힘찬 발자욱을 찍어가며 백절불굴의 전투력을 억세게 다져온 항공륙전병들은 무적의 싸움군다운 배짱과 기질을 안고 적진을 찌르는 멸적의 비수가 되여 가상작전지대를 뒤덮으며 이제 당장이라도 명령이 내린다면 적지역을 일격에 타고앉을 완벽한 전투능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상적인 적의 주요군사대상물들을 단숨에 깔고앉는 항공륙전병들의 능숙한 전투훈련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용맹한 저 모습들에서 우리 군대의 백승의 싸움본때와 강용한 기상이 그대로 안겨온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실전훈련의 불도가니속에서 애국충성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리며 일당백의 전투력을 억세게 다지고 다져온 전투원들의 공훈을 치하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정치사상적각오가 매우 투철할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잘 준비되여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진행된 주요훈련들을 통하여 전쟁수행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인 우리 군대가 각 방면에서 전쟁에 철저히 준비되여있을뿐 아니라 투철한 주적관을 새기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확고히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를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실지 싸움마당에서 최대의 전투적효률을 달성할수 있는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부단히 연구적용하는데 기본을 두고 훈련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하여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한가지 훈련을 해도 그것이 전쟁과 직결된 실전훈련으로 될 때라야만이 군인들을 유사시 생사판가리의 준엄한 결전장에서 무조건 싸워 이기는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각이한 지형조건과 기상조건, 주야조건에 일일이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전투훈련, 가장 극악한 조건과 불의의 전투정황속에서의 행동에 익숙시키기 위한 강도높은 훈련들을 방법론있게 조직함으로써 전군의 훈련장마다에서 용감하고 능력있는 미래의 전투영웅들을 억세게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의 직접적담당자인 훈련일군들이 맡은 책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훈련일군들의 높은 실력이 곧 실속있는 훈련성과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만큼 맹렬한 실력경쟁속에서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새롭고 가치있는 훈련형식과 방법들을 계속 모색탐구하고 훈련진행에서 항상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여 뚜렷한 훈련실적으로 자기 부대, 구분대의 전투력강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기본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준비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기어이 력사를 갈아치우고야말겠다는 확고한 대적의지, 투철한 전쟁관으로 억세게 무장하고 지금의 앙양된 훈련열의를 더욱 세차게 고조시켜 전쟁준비완성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과 신념의 위력으로 강하고 무적의 자위적힘으로 억센 인민군대의 영원한 필승을 힘있게 고무격려하시고 전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항공륙전대 전투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훈련참가자들은 전군에 끓어넘치는 훈련열, 투쟁열을 필승의 신심과 락관으로 백배해주시고 백전백승의 투쟁방략을 환히 밝혀주신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면서 뜻깊은 2024 년을 전쟁준비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중요화력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서부지구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을 지도하시며

당중앙이 지펴준 훈련혁명의 불길속에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전투력강화훈련의 드세찬 포성이 전군의 훈련장마다에서 련발적으로 울려퍼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인민군대의 새세대 핵심타격수단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를 장비하고 중요화력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서부지구의 포병부대 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3 월 18 일 해당 부대관하 화력구분대의 일제사격훈련을 직접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600 ㎜방사포병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능력을 확증하며 방사포병들의 전투사기를 증진시키고 동원태세를 검열 및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당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세계유일의 초강력병기로 세상에 출현한 초대형방사포로 처음으로 되는 중대단위일제사격모습을 시위하게 된 포병들의 가슴가슴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며 군력강화의 화선길을 쉬임없이 걷고걸으시는 **김정은**동지께 완벽한 훈련성과로 기쁨과 만족을 드릴 크나큰 열망과 전투적사기로 충만되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력진지들을 돌아보시면서 자동화력지휘조종체계를 료해하시고 발사대차들의 전투전개시간과 전술적제원 등을 알아보시며 포병들의 화력복무동작을 살펴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로 이동하시여 초대형방사포병중대의 사격훈

련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중앙감시소로부터 사격구령이 내려지자 초대형방사포병중대 전투원들은 일당백포병의 자신심을 한껏 발산하며 일제히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

천둥같은 폭음이 천지를 뒤흔드는 속에 서슬푸른 강철포신들에서 용암마냥 거세차게 뿜어져나온 육중한 초대형방사탄들이 원쑤격멸의 기개드높이 섬멸의 화염을 토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다.

훈련에 참가한 포병들은 비상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백발백중의 명포수로 준비해가는 나날 포병전쟁준비완성의 불도가니속에서 무적의 전투실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자기들의 훌륭한 명사격술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신속하고 철저한 전투동원태세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들이 불의적인 전투임무수행에서 높은 기동력과 정확하고 강한 타격력을 보여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군인들모두가 세계최강의 조선식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에 완전히 정통하고있으며 확고한 림전태세에서 전투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중대일제사격이 있은 후 초대형방사포탄에 의한 목표상공 설정고도에서의 공중폭발모의시험도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억제력으로 하여 무력충돌과 전쟁의 가능성자체를 완전제거하고 국가의 평화와 안정, 주권을 굳건히 사수하실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포병무력강화와 포병전쟁준비완성을 위한 중대전략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장비된 초대형방사포가 전쟁준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600 ㎜초대형방사포들은 다른 효과적이며 파괴적인 공격수단들과 함께 우리 무력의 핵심중추타격수단으로서의 전략적임무를 수행하게 되는것만큼 그를 중핵으로 하여 포병무력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에게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길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군대가 보유한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

의 수도와 군사력구조를 붕괴시킬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써 전쟁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초대형방사포병중대수를 계속하여 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작전배치와 작전운용에서 지침으로 되는 원칙적문제들을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장거리포병들을 유사시 부과되는 임무에 따라 적을 주저없이 전멸시켜버릴 기본전투원들로, 전쟁의 주력으로 억세게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모든 포병들이 언제나 고도의 림전태세, 격동상태를 엄격히 견지하며 전쟁준비완성에서 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준엄한 시각에 가장 강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포화력으로 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영웅포병들로 튼튼히 준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훈련에 참가한 전체 전투원들은 몸소 자기들의 훈련을 지도하여주시며 포병무력을 명실공히 인민군대의 제 1 병종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필승의 지략과 멸적의 투지를 안겨주신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포병전쟁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해나감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한목숨바쳐 결사보위하는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지휘부와 직속 제1땅크장갑보병련대를 시찰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3 월 24 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 지휘부와 직속 제 1 땅크장갑보병련대를 시찰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충성과 위훈의 력사만을 아로새기는 억척의 무쇠철갑대오로 자라난 근위부대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해갈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견결한 조국결사수호정신이 용암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단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전체 장병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 정력적인 헌신으로 인민군대를 불패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인도하시는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제 105 땅크사단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사단과 관하 련합부대군기와 지휘관대렬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 전체 사단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군인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단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1948 년 8 월 공화국혁명무력의 첫 땅크부대로 조직되여 강철의 정예사단으로 명성을 높이 떨쳐온 부대에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과 전투적위훈이 수많이 아로새겨져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성스럽고 긍지높은 부대의 발전행로에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가 력력히 슴배여있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무적의 철갑대오로 충성의 한길을 걸어온 근위땅크부대의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의 력사속에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당과 수령을 목숨바쳐 보위한 영광스러운 수령결사옹위의 투쟁전통과 무수한 전투위훈이 기록되여있다고 하시면서 근위부대의 충실성의 고귀한 전통, 위대한 승리의 전통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쟁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단장으로부터 사단의 공격 및 방어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전투문건들을 검토하시면서 사단관하 련합부대들의 작전전투임무와 전투훈련방향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준비완성을 위한 훈련열풍이 세차게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투쟁에서도 우리 군대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부대인 제105 땅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땅크병들을 압도적인 사상정신력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고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단련시키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에서 사단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예술선전대원들은 혁명적이며 기백이 넘치는 공연을 통하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영용한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갈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단의 모든 장병들이 전화의 화선땅크병들이 발휘하였던 불굴의 전투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오늘의 조국사수전, 혁명보위전에서도 근위부대의 기개를 더 높이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지휘부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장병들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혁명군대의 무적필승의 기상을 백배해주신 위대한 령장을 우러러 불같은 충성과 보답의 맹세를 다짐하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우렁차게 웨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 땅크사단직속 제 1 땅크장갑보병련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대에 도착하시자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지닌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장병들이 터쳐올리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며 힘차게 울려퍼지였다.

제 1 땅크장갑보병련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땅크병대련합부대간의 대항훈련경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련대의 땅크병들을 또다시 만나주시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련대지휘부청사에서 련대지휘성원들과 담화하시고 구분대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련대훈련장에서 땅크병들의 장애물극복 및 고속돌파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일제히 돌격에 진입한 무쇠철마들은 육중한 동체를 기동성있게 움직이며 견고한 방어계선들을 단숨에 극복하면서 주체전법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한 영용한 땅크병들의 능숙한 공격능력과 당당한 자신심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땅크병들이 그 어떤 전투임무도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의 만능승조들로 튼튼히 준비되여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땅크병들과 련대군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분대식당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고기와 남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식물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병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진정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정일군정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4 월 10 일 공화국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정일**군정대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교정에서 인민군대의 핵심골간들을 육성해가는 남다른 보람과 자부를 안고 꿈결에도 그리던 원수님을 뵈옵는 무상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학구내에 들어서시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군정대학을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조선로동당의 강군건설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명에 계속 충실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은**동지를 맞이하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군정대학 학장이 영접보고를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승리의 전투적기치인 영광의 군기에 경의를 표하시고 대학의 지휘성원들과 대학당위원회 집행위원들, 주요교원들의 도렬앞을 사열하시였다.

대학의 교원과 학생이 오매불망 그립던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으로 엮은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인 교직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의 원대한 강군건설위업에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 대학안의 전체 교직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학교정을 둘러보시며 조선인민군의 백승사와 더불어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겨온 대학의 자랑찬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1973 년 3 월 7 일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군정대학은 지난 50 여년간 조선로동당의 군사

교육혁명방침을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군대의 핵심지휘성원들을 수많이 키워냄으로써 주체위업의 순결한 계승과 줄기찬 전진에 특출한 공헌을 하였으며 나라의 군사교육기관들을 대표하는 대학우의 대학으로서 교육사업과 과학연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뚜렷한 진보를 이룩하며 주체의 군사교육과 강군건설을 힘있게 견인하여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의 강대함과 불패성은 50 여년의 연혁을 영광과 공훈으로 수놓아온 정예하고 관록있는 최고급군사정치간부육성기지인 이 군정대학의 존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군사정치활동가들의 원종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강실에서 진행하는 학생들의 작전전술상학을 참관하시고 교육방법연구 및 훈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학에서 당의 군사교육혁명의 제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주체군사학의 원리와 변화되는 현대전쟁의 양상을 반영하여 교육강령과 내용을 개선하고 우월하고 참신한 교수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적용하였으며 다양한 설비수단들을 도입리용함으로써 교수의 당정책화, 실용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대한 고무적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침실과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학생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침실에 들리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졌는가, 난방은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도 일일이 알아보시며 학생들이 불편없이 학습에 전심할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당에서는 개건현대화사업을 조직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식당에 들리시여 학생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몸소 마련해오신 갖가지 음식들로 교직원, 학생들의 저녁식사를 차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작전연구실을 돌아보시면서 적의 주요작

전행동기도들과 적군에 대한 연구정형, 교원, 학생들이 작성한 군종, 군단 작전계획들을 보아주시고 현대작전에서 중요하게 견지하고 구현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최강군건설을 목표하고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우리 당은 조선인민군이 지닌 백전백승 영웅군대의 고귀한 명함과 존위를 떨쳐나가는데서 군사인재육성사업을 각별히 중시하고있으며 우리 군대의 최고급군정지휘관육성의 모체기지인 군정대학사업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군정대학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든든한 밑천이며 강군건설의 성패와 우리 혁명의 전도가 달려있는 중대한 전략적거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군대의 위력은 군지휘관들의 령군술에 달려있으며 군지휘성원들의 사상적풍모와 군사적자질은 군사학교들의 교육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서는 혁명적당군의 고위지휘관들을 육성하는 임무와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과 주체의 군사전략로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교육사업의 모든 공정과 계기를 현대전과 완전일체화시킬 목표를 세우고 교육구조와 내용을 과학적으로 혁신하여 높은 통합작전능력과 실전지휘능력을 지닌 유능한 군사간부들을 더 많이 알차게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사상과 전법의 우세로 타승하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할수 없는 전승의 법칙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폭력과 무력충돌의 다발적인 확대로 심히 과열되고 있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공화국주변의 군사정치정세에 대하여 개괄하시면서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전쟁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할 때이라고, 우리는 단순히 있을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에 보다 확고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이 만약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적들을 우리 수중의 모든 수단을 주저없이 동원하여 필살할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대학에서는 전군의 각급에 적을 사상정신적 및 전투도덕적 우세로, 전법적우세로 압도하는 자질과 기질을 특질화, 체질화한 능력있고 다재다능한 지휘관들로 꽉 채울수 있도록 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쟁취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당군의 용장들을 키워내는 대학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 공화국무력의 핵심진지를 반석으로 다져나가는 최우수군사인재육성의 원종장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끝없이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600㎜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첫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며

국가핵무력의 신속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억제력을 제고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체계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2024 년 4 월 22 일에 처음으로 진행되였다.

훈련은 공화국핵무력의 신뢰성과 우수성, 위력과 다양한 수단에 대한 시위, 핵무력의 질량적강화를 기본목적으로 하였으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들의 군사적대결소동이 그 어느때보다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감행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신호로 된다.

지난 4 월 12 일부터 대한민국 군산공군기지에 100 여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끌어들여 《련합편대군종합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은 미국과 한국군부호전광들은 이전시기의 연습들에 대해 《방어》니, 《억제》니 하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 무슨 공화국으로의 《진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면서 하루평균 100 회정도의 출격을 횡행하며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하고있었다.

공화국의 주변지역에 빈번히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전쟁연습들을 벌리고있는것도 모자라 공화국을 정조준한것이라고 내놓고 광고하며 감행되고있는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도발추태는 4 월 26 일까지 지속될 예정이였다.

4 월 18 일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들이 임의의 지역에 신속하게 침투하여 《표적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련합공중침투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었다.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국가의 안전환경이 심히 위협당하고있는 간과할수 없는 현실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해나갈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가속적으로 비축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초대형방사포병이 참가하는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국가최대핵위기사태경보인 《화산경보》체계발령시 부대들을 핵반격태세에로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훈련과 핵반격지휘체계가동연습, 핵반격임무가 부과된 구분대를 임무수행공정과 질서에 숙련시키고 핵모의전투부를 탑재한 초대형방사포탄을 사격시키는 순차로 진행되였다.

훈련을 통하여 전체 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통제운용체계의 믿음성을 다각적으로 재검열하고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신속히 핵반격에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행동질서와 전투조법들을 숙달하였다.

훈련에는 해당 련합부대에서 당선된 화력습격중대가 참가하였으며 처음으로 《핵방아쇠》체계에 망라되여 진행하는 훈련과 일제사격훈련을 관련부대, 구분대 지휘관, 군인들이 참관하였다.

견결한 대적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만장약하고 섬멸의 불줄기를 일제히 쏟아낸 초대형방사포들은 독보적인 위력과 완벽한 실전태세를 힘있

게 과시하며 사거리 352㎞의 섬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초대형방사포들의 높은 명중정확성에 대하여 마치 저격수보총사격을 본것만 같다고,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최강의 우리식 전술핵공격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태세에서 유사시 중대한 자기의 전략적임무수행에 충실히 동원될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여가고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초대형방사포병까지 인입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공격의 운용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중앙의 핵무력건설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되였다고 만족하게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억제전략과 전쟁수행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으로 전법과 작전을 계속 완성해나가며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화국전략핵무력강화를 위한 투쟁행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종합전술훈련을 통하여 초대형방사포까지 인입된 우리 핵전투무력의 위력과 효용성은 비할바없이 증대되고 모든 구분대들이 커다란 자신심에 충만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4.25명절에 즈음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2 돐에 즈음하여 2024 년 4 월 25 일 공화국 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무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가는 혁명무력의 강대무비한 자위력이 만방에 떨쳐지고있는 시기에 맞이한 조선의 진정한 첫 무장력의 창건일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교정에 모시는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안게 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높뛰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경사로운 4월의 하늘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 대학의 교육일군과 학생이 전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공화국혁명무력의 고귀한 명함과 영광스러운 력사와 하나로 잇닿아있고 그 영웅성과 불패성의 진함없는 원동력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당의 강군건설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체 교직원, 학생들을 따뜻이 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학축하방문을 기념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동지들과 학생동무들!

동지들!

조선의 첫 무장력이 탄생한 의의깊은 날에 나라의 맏아들군사전당이며 우리 군대 핵심간부양성의 믿음직한 원종장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하여 이렇게 동지들과 마주하고보니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깊게 경축하며 그 심원한 의의를 경건히 되새겨보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이 걸출하고 성스러운 우리 군력사의 시발이였다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창립과 발전연혁은 그 줄기찬 전진에 백승의 포석을 깔아준 자랑스러운 로정으로 됩니다.

유능한 군사인재들의 핵심적역할과 더불어서 우리 혁명무력은 장장 90 여성상에 걸치는 세월 언제나와 같이 승승장구의 일로만을 줄기차게 걸어왔으며 그 빛나는 공적의 전렬에는 마땅히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같이 격렬했던 전화속에서 발족하여 당에 가장 충실한 전투대오로 자기의 전통과 력사를 자랑차게 아로새기며 군력강화와 혁명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여온 고등군사학원, 종합적군사교육과학기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뜨락에 본적을 둔 수많은 군지휘관들, 이 교정의 튼튼한 산아들이 지금 각방의 모든 전선과 초소들을 반석으로 지켜가며 신화적인 조선인민군의 승적우에 존엄과 영예를 쌓아가고있는 사실만으로도 대학의 명함은 길이 찬양받을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나는 무비의 애국적헌신과 혁혁한 교육과학성과로 세기와 세대를 이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굳건히 담보하고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온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강력한 군대는 강국의 기둥이고 미래이며 국가의 존망과 성패는 군사력의 강약에 전적으로 기인됩니다.

기둥이 든든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것처럼 인민군대의 골간을 이루는 핵심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야 강력한 군대도, 막강한 군사력도 키워질수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떠메고있는 주권사수와 평화와 안전보장의 성스러운 사명, 우리 군대가 앞장서 개척해야 할 조국과 혁명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에 비추어 현대전에 만반으로 준비된 군사인재, 당군의 믿음직한 군사지휘관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는것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앞에 나서는 주되는 임무입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자기앞에 부여된 성스러운 책무에 충실할수록 우리 군의 전투적위력은 백방으로 장성강화될것이며 이와 정비례하여 적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증대될것입니다.

우리 군을 자래우는 요람이고 군의 승리를 떠올리는 터전인 군사종합대학이 절대충실한 당의 대학으로, 혁명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법혁명

의 거점으로, 군사인재육성의 근거지로 굳건히 자리잡고있는한 백전백승에로 향한 력사의 수레는 절대로 거꾸로 돌지 않을것입니다.

동지들!

우리 무장력의 첫 세대들이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새겨놓았던 신성한 리념과 백승의 진리를 위대한 전승으로 우리 시대에, 마주한 력사에 더 선명히 부각시켜야 할 비상한 사명이 우리 세대에 지워져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의 심오한 력사적의미와 더불어 오늘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우리 군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시금 무겁게 체감하게 되는 이 시각 뜻깊은 이 자리에서 여기 모인 모든 교원, 연구사동지들과 학생동무들에게 열렬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가를 위하여,

세계최강을 길이 떨칠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견실한 혁명정신으로써, 군사교육의 변혁으로써, 학업의 열정으로써 충실히 복무해나갑시다.

대학의 휘황한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백두에 시원을 둔 주체의 혁명무력의 존위와 영웅적인 승전사를 최강의 힘과 영예의 절정에서 빛내여주시며 부국강병의 거창한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천하제일명장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의깊고 영광스러운 기념일을 성스러운 력사에 대한 크나큰 자부와 계승의 의지속에 경축하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다시금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대학을 창립해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공화국무력의 눈부신 승전사에 무적필승의 기상과 위엄찬 명성을 백배해준 력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인민군대 핵심골간육성의 중심기지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나날에나 시련의 나날에나 일편단심 당과 뜻과 보무를 같이해온 군사종합대학이 충성의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빛

내이며 자주강국의 천만년사를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유능한 지휘성원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학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강실에서 진행하는 상학과 교육방법연구실에서의 토론회를 참관하신데 이어 통합교수관리지휘실에서 교육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대학에서 이룩한 교육성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교육전선은 당군의 핵심진지강화의 보루이고 전초선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전도가 우리 군의 강대함과 무적의 전투력에 달려있다면 현시대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되고 발전해야 할 우리 군의 전투력은 대학교수진영의 높은 실력과 훌륭한 교수결과로 담보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4 대강군화로선과 군사교육내용을 실전화, 종합화, 현대화할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지혜롭고 용맹한 만능지휘관으로 육성해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수교양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도약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학방문을 기념하여 교직원, 학생들과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앞으로도 공화국혁명무력의 백년지계를 군사교육의 자랑찬 성과로 담보하여온 관록과 명예를 변함없이 떨치며 강군건설의 새로운 앙양기를 선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조선인민혁명군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진행된

김일성군사종합대학팀과 **김일성**정치대학팀사이의 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체육경기를 하게 된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기쁨과 랑만이 경기장에 차넘치였다.

시종 치렬한 공방전속에 진행된 경기는 군사종합대학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 저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명절을 맞이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교직원들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도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국방상 강순남동지가 연설하였다.

연회는 당의 강군건설사상을 군사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사의 의의깊은 명절에 진행하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대한 축하방문은 두자루의 권총에 주체의 사상을 재워 탄생한 혁명적당군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백년, 천년의 영웅성과 위대한 명성으로 굳건히 계승해나가며 세계최강의 자위력을 목표로 승승발전하는 공화국혁명무력의 영광넘친 려정에 무한한 활력을 부어준 력사적인 행보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제5차 전국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5 월 5 일 제 5 차 전국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언제나 그리며 뵙고싶던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촬영장에 차넘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안전기관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며 꿈결에도 소원했던 무상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김정은**동지를 격정속에 우러르며 최대의

경의를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며 혁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전초를 지켜 헌신하고있는 전국의 분주소장들을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분주소의 강화이자 사회안전기관의 강화이고 분주소장들의 활동성이자 분주소의 전투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분주소장들과 안전원들은 높은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지니고 인민을 진정다해 보살펴주는 성실한 보호자, 언제나 고락을 같이하는 한식솔이 되여야 하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예리한 칼날이 되고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혁명위업에 대한 신심을 배가해주는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안전기관의 모든 활동은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사회안전사업전반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안아오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사회안전정책의 직접적집행단위이며 인민보위의 기본거점인 전국의 모든 분주소들이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인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는 성새가 되고 인민을 보호하는 방탄벽이 될 때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을 향한 우리의 위업은 더욱더 줄기차게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분주소장들이 사회주의조국의 정치적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보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위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막중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인생의 제일재부로 간직하고 조선로동당의 군중관, 인민관을 사회안전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공화국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사수하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불

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600mm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을 지도하시며

국가의 당당한 주권적권리행사에 위험천만한 무력시위라는 서뿌른 대응판을 벌려놓으며 결코 좌시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국권침해도발행위를 감행한 대한민국 깡패정권과 군대를 정조준하여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전쟁수단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력사용을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 자위권을 발동하여 선제공격도 불사할 공화국의 대응의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위력시위사격조직을 명령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수호를 위한 군사적 보복력을 가동시키는것은 공화국헌법이 승인한 공화국무장력의 의무이고 사명이라는데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해들려는 적들의 정치군사적준동이 발악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정세하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은 우리의 적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단언하시였다.

화력구분대의 일제사격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의 구성계통인 통합화력지휘체계를 가동시켜 진행되였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서부국경의 중요화력습격임무를 맡고있는 포병련합부대관하 제 331 붉은기포병련대 제 3 대대가 참가하였다.

제 3 대대 화력습격중대들에 화력임무에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밀암호지령문이 전송되고 통합화력지휘체계에 의한 대대일제사격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감시소에서 사격명령을 주시자 미싸일총국장 장창하 대장이 화력습격지휘를 하였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이 터지는 속에 괴력을 자랑하며

섬멸의 불줄기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공화국의 주권사수의지, 대적대응의지를 뚜렷이 새겼다.

견결한 대적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만장약한 일당백포병들은 사거리 365km 의 섬목표를 명중타격하고 부과된 위력시위사격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최강의 전쟁공격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태세를 유지하고 엄격히 준비되여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더욱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큰물피해지역 수재민들을 구출하는데서 특출한 무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를 축하방문하시여

평안북도 서북부지대에 엄습한 자연의 광란을 맞받아 침수지역에 신속투입되여 4 200 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무사히 구출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한 인민공군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투쟁기질은 조선로동당의 영용한 붉은 비행대의 전설적위훈으로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8 월 2 일 공중구조전투의 기적을 창조한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붓기는 부대의 정비장에는 침수지역 주민구출에 투입되였던 직승기들이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부대에 모실 영광의 시각을 앞둔 전체 관병들의 가슴가슴에는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과 결사의 수호의지를 안으시고 범람하는 큰물이 분분초초 신변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재해현지에서 인민사수의 구조전투를 직접 조직지휘하시여 놀라운 기적을 안아오

시고도 그 모든 영예를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위대한 령장께 드리는 공군장병들의 최대의 경의와 영광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예의 조선인민군 공군군기와 부대군기에 전투적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공군의 주요지휘관들과 부대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심을 안고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관철하는 긴박한 구조전투에서 인민공군의 명함을 혁혁한 군공으로 빛내인 미더운 전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성스러운 인민보위전에서 빛나는 무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에 대한 훈장수여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정적인 격려의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늘같은 우리 인민을 지켜내는 무비의 공적을 쌓은 직승비행부대 비행사들을 떠들썩 더 높이 자랑하고싶은 마음에 피해복구현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부대를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창식을 크게 하고 전군이 따라배우고 세상이 알게 하고자 하는것부터가 비행사들이 쌓은 공적의 높이이며 우리 당이, 우리 조국이 주는 평가의 높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압록강류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물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제일 컸던 신의주지구에서 인명피해가 한건도 나지 않은 이 사실이야말로 기적으로밖에 표현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시의 매우 위험한 일기조건속에서도 위기앞에서 무한히 용감하고 련이은 임무수행에서 전문성과 완벽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훌륭한 전과를 이룩한 공군장병들의 무비의 전투력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웅적인 우리 군대의 무훈사에 또 하나 길이 전해

갈 가장 값지고 영예로운 기록을 남겼다고 하시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구름속, 비줄기속을 날으며 하늘같은 인민을 지켜내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의 믿음을 굳게 지켜준 공군장병모두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하시였다.

임무수행중 1 대의 직승기가 구조지역에서 불시착륙한 사실이 있으나 비행사들이 모두 무사한것 역시 고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한 구조전투에 투입되였던 해군 저격병려단과 국경경비대 해상경비편대, 정찰총국의 전투원들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직승비행부대의 비행사들이 이번에 전군이 따라배워야 할 군인의 본연의 자세와 준비된 부대라는것이 과연 어떤 부대인가 하는것을 판정을 위한 훈련장이 아닌 목숨을 내건 전투장에서 실전능력으로 증명해보인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받들어 야간에 즉시 구조전투에 진입하여 악천후속을 뚫고 생소한 피해지역에서 모두가 하나같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주춤없이 전투행동을 펼치는것을 보면서 참다운 전형부대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후더워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령을 웨치기 전에 전위에 설줄 아는 부대장의 전투정신과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특별히 평가하시면서 우리 당은 현대전이 요구하는 이런 야전형, 실력가형, 행동형의 지휘관을 필요로 한다고, 그날도 정찰, 구조, 수색비행임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련속적인 반복임무를 힘든 내색없이 해내는것을 지켜보면서 깊이 감동되였다고, 단 몇시간안에 크지 않은 직승기들로 4 200 여명을 구출한것, 수상구조임무를 수행한 기타 부대들이 세운 기록까지 합쳐 5 000 여명을 구출한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는 적기 10 대, 100 대를 격추한것보다 더 큰 성과로서 마땅히 영웅적이다, 기적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칭해야 할 불멸의 공훈이며 인민보위전이였다는 임무의 성격으로 하여 더 빛나고 길이 전해가야 할 찬양의 위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늘의 조화는 천변만화이고 그 아득한 만리대공에

리정표는 따로 없어도 우리 공군의 항로는 당과 혁명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비행사들이 만리대공에 남기는 위훈의 비행운은 그토록 영예높은것이라고 지적하시고 부대의 비행사들과 전체 관병들이 지금까지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열렬한 애국충성과 영웅적인 전투정신으로 당의 위업을 억척같이 옹위하고 국가의 령공주권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보위전에서 용감했고, 능숙했고, 주저없었던것처럼 훈련혁명을 다그쳐 원쑤를 격멸하는데서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언론들은 우리 피해지역의 인명피해가 1 000 명 또는 1 500 명이 넘을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임무수행중 여러대의 직승기들이 추락된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모략선전에 집착하는 서울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은 변할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깎아내리고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자고 악랄한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는 한국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본색을 신랄히 지탄하시였다.

우리는 재해복구나 인민생활을 위해 국방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것이며 국방을 위해 인민생활을 덜 관심하는 일도 없을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의 공군무력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인민공군은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것임을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은 우리의 하늘이라고,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피지역에 소개된 수재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루빨리 재해복구를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온 나라에 차고넘치게 해야 하며 여기에서도 우리 군대가 인민의 아들딸다운 지

극효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보위전에서 성스러운 무훈을 새긴 부대의 공적에 다시금 감사를 표하시면서 영웅적인민공군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열렬히 축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공군장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뢰성처럼 메아리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그 이름도 성스러운 인민공군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였을뿐인 자신들을 당과 국가의 자랑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영광의 군기에 새겨진 구호그대로 조국의 주권수호와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언제나 철저하고 용감무쌍할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비행부대에 자유독립훈장 제 1 급을, 부대를 인민보위전에로, 위훈의 항로에로 이끈 부대장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을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훈장을 수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군기에 영예의 자유독립훈장 제 1 급을 손수 달아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직승비행부대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 1 급을 수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표창장이 47 명의 비행사, 승무기사들에게 수여되였다.

공군장병들은 자신들을 당중앙의 친위군,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제일결사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복무의 길에서 세우는 군공을 금별의 위훈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령장을 무한한 감격속에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부대를 대표하여 부대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을 단 한명도 잃을수 없는 자신의 살점, 살붙이로 여기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희생적인 헌신이 쏟아지는 폭우, 휘몰아치는 강

풍도 두려움없이 맞받아나가는 불가항력의 추진력으로, 류례없는 공중구조전의 기적을 안아오게 한 전투력의 비결로 되였다고 하면서 영용한 공화국비행대의 붉은 매들은 앞으로도 최고사령관동지와 당중앙의 믿음을 생의 전부로 간직하고 0.001 ㎜의 편차도 없는 충성과 보답의 항로만을 날을 엄숙한 맹세를 다짐하였다.

수훈식장은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온 견결한 혁명신념과 애국정신,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권익을 결사보위해나가는 투쟁에서 인민공군의 정신적특질과 본때를 힘있게 떨쳐갈 전투적열광으로 끓어번지였다.

조선인민군 공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보위전에서 혁혁한 위훈을 새긴 비행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군기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과 뜻과 의지, 실천을 함께 한다는 긍지이상 더 큰 행복이 없다는 혁명관,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복무의 한마음으로 분투의 보무를 같이하는 견실한 공군장병들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중의 자랑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비행사들이 오늘의 영예를 더 눈부신 위훈으로 줄기차게 이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신념의 기둥으로 억세게 간직하고 그 어떤 불구름도 폭풍우도 뚫고 날으는 로동당의 붉은 불사조로 용맹떨쳐갈 하늘용사들의 불같은 맹세가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되여 8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졌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영예의 훈장을 수여받은 부대관병들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고 수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위대한 령장과 친위전사들사이의 혈연의 정과 믿음으로 충만된 행복의 시간이 연회장에 흘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승비행부대에 대한 축하방문은 조국수호, 인민보위의 항로우에 영웅적무훈의 항적만을 새겨온 인민공군의 빛나는 전통과 백전백승의 전투적기질을 시대의 단상에 값높이 내세워주고 줄기찬 위훈에로 힘있게 떠밀어준 뜨거운 사랑과 고무의 행보로 건군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졌다.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제 8 차대회에서 부국강병대업실현을 위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을 제시한 조선로동당은 그 실행을 강력히 령도하여 공화국무력의 급진적인 현대화와 초강력위세로써 전면적국가부흥을 표대로 하는 전인민적대진군을 굳건히 수호하고 완강히 견인하여왔다.

당과 혁명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기적창조로 화답해온 군수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근년간 조선인민군에 필승불패의 힘을 장전해준 첨단무장장비들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자위강국의 명함과 강자의 존엄을 각인시켜주고 막강한 군력으로 담보되는 국가의 밝은 전도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혁명의 백년대계를 줄기찬 쾌승으로 이어가는데서 강위력한 지탱력, 추동력으로 되는 국가방위력의 무진한 발전과 강군현대화의 거대한 약진을 과시하며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 대의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 1 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중요군수기업소 로동계급은 무장장비증산이자 곧 나라의 존엄사수, 국권수호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 제 8 차대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들에서 제시된 군수생산의 중대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비상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관철하는데서 필수적인 주력타격무장장비들을 단기간에 계렬생산해내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이 2024 년 8 월 4 일에 진행되였다.

공화국무력의 중추무장장비로 자리잡게 될 군사전략적가치가 대단히 큰 또 하나의 방위자산이 특유의 자태를 시위하며 장엄하게 정렬한 기념식장은 위대한 당중앙이 확신성있게 령도하는 제 2 차 국방공업혁명의 성공적인 실체들과 더불어 더욱 강대해질 성스러운 조국의 존위에 대한 크나큰 자긍심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식장에 나오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후손만대의 강성과 번영을 위한 애국투쟁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 가슴후련히 성취되는 주체강국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념식에 앞서 공화국무력의 새로운 핵심적인 공격형무기로 취역하는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한개 국가에 있어서 경제건설이나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 자연재해복구 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업이고 기본기능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큰물피해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을 진행하는것은 인민사수, 주권수호의 근본담보인 국방력강화를 어떤 환경속에서도 정체없이 밀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가 국가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불변의 원칙적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의 강세를 순간의 주저나 멈춤도 없이 최강으로 고도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결심과 구상을 혁명의 요구로, 삶의 본령으로 받아들이고 무한대한 혁명열과 투쟁의지, 철저하고 완벽한 창조정신과 본때로 받든 군수로동계급의 순결한 량심과 고결한 인생관이 응축된 첨단무장장비에 경의를 표하시였다.

기념식에는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일군, 기술자, 로동자들, 평양시안의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 대련합부대장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가 군수생산과 관련한 특별명령을 관철하였다는 영광의 보고를 삼가 올리였다.

그는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을 높

이 받들어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 250 대 생산을 결속하고 인민군부대들에 인계할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군수로동계급이 새로 개발생산한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친히 구상하시고 완벽하게 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식의 위력한 첨단전술공격무기이라고 그는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결사의 투쟁을 벌리는 나날 국방공업전사들은 그이의 비상한 혁명열과 웅대한 구상에 심장의 박동을 정확히 맞추고 과학적인 작전과 절대적인 실천을 따라세운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을 끊임없이 달성할수 있음을 철리로 새겼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국방공업전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은**시대 강군건설위업을 떠메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공업전사라는 영예로운 부름에 변함없이 충실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였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와 제 8 기기간내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들에서 결정한 군력강화의 실천지침들가운데서 중대한 한가지 사항이 현실로써 결속되였음을 긍지높이 선포하시고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국가의 자위적국방력을 부단히 강화하는데서 전략적의의가 막중한 혁명과제를 자랑스럽게 완수한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전사들,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국이래, 창군이래 처음으로 되는 위혁적인 장관이 시사해주는 중대한 정치군사적의의와 국가가 직면한 군사적안전환경의 중대변화 그리고 미국과 그 주구들의 날로 흉포해지는 군사적대결기도에 대한 엄정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공화국무력의 무진한 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뒤받침하는 자립적방위산업의 줄기찬 진보를 위한 제반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주와 정의, 평화는 절대무비의 자위력에 의해서

만 굳건히 담보되며 부단히 갱생하는 강대무진한 힘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진정한 평화,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주적발전과 우리 인민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삶을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전진적성과들을 창조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힘과 힘의 대결이 곧 생사존망을 결정하는 오늘의 엄혹한 세계에서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정의롭게, 가장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위력을 한계를 모르는 고도화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명철한 방략과 투쟁지침이 천명된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 조선로동당의 강철의 신념과 혁명의지를 만장약하고 공화국의 수중에 틀어쥔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이며 불가역적인것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압도적으로 강화해나갈 불같은 맹세를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형전술탄도미싸일들을 국경제 1 선부대들에 장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를 조선인민군 총참모장과 전선대련합부대장들에게 하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미싸일병부대들의 군기와 군기증서들을 해당 부대들의 부대장, 정치위원, 참모장에게 직접 수여하시였다.

주체적강군현대화건설사에 특기할 엄숙한 화폭이 펼쳐진 기념식장은 우렁찬 환호성으로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종합군악대의 군악례식이 있었다.

군악대원들과 명예위병들은 혁명군가의 힘있는 선률속에 다양한 대형변화, 재치있는 무기기교로 대경사의 환희와 전투적열광을 더해주었다.

새로운 무장장비를 인도받은 전선미싸일병부대들의 시위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영광의 군기를 앞세운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들이 도도히 굽이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최강의 자위력을 억척으로 다지는 민족사적성

업에 바쳐진 붉은 국방전사들의 애국의 넋이 력연하고 공화국무력의 군사적강세의 획기적제고성을 상징하는 절대병기들에 전투적경의를 표하시였다.

기념식이 끝나자 충성과 애국의 열정으로 충만된 《만세!》의 함성이 밤하늘을 진감하며 메아리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간부들, 대련합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다시금 신형무장장비를 돌아보시며 공화국의 국호와 국기에 거대한 생명력을 부어주고 공화국의 국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또 하나의 억척의 디딤돌인 최신예병기가 국권사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으로 위력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거행된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체계의 실전배치기념식은 위대한 당중앙의 백전필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철의 신념, 끝없이 강대하고 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배가해준 력사적 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새겨질것이다.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 년 8 월 4 일 신형전술탄도미싸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술무기들을 우리 군대에 인도하기 위한 기념식을 하기 위해 특색있는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의 방위력이 나날이 장성되여가는 로정의 한순간을 직접 목격하고있습니다.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공간을 메꾸고 우리 군사력의 주력으로 자리할 군사적가치가 매우 큰 전술무기를 생산해내는 투쟁에서 헌신해주신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대표동지들!

이제 곧 새로운 무장장비를 인계받게 되는 전선미싸일병부대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보시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군수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해낸 250 대의 신형전술탄도미싸일발사대들을 마주하고있습니다.

우리앞에 방대한 종대를 이루어 정렬한 저 무장장비들은 이제 우리 군대에 인도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지역에서 중요군사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제 1 선부대 미싸일무력건설의 1 단계 목표를 점령한데 불과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신형무장장비의 세대교체과정을 려과없이 온 세상에 보여줄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방지하는 특별한 억제효과를 가지기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정을 목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 전선에서 적에 대한 압도적인 공격력량과 타격력의 우세로써 작전상주도권을 틀어쥘수 있게 되였으며 화력임무공간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특수한 물리적힘 전술핵의 실용적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당 제 8 차대회와 제 8 기기간내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들에서 결정한 군력강화의 실천지침들가운데서 중대한 한가지 사항이 현실로써 결속되였음을 선포하게 됨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무력과 전망적발전견지에서 커다란 변화를 알리는 이 시각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우리 국가의 자위적국방력을 부단히 강화시킴에 있어서 전략적의의가 막중한 혁명과제를 자랑스럽게 완수한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전사들,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건국이래, 창군이래 처음으로 되는 위혁적인 장관을 펼친 이 무기체계들의 화력으로 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한

확실하고 압도적인 견제력을 보유하게 되였습니다.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봉쇄책동이 력대 최극단으로 지속되는 환경하에서 이런 새세대무장장비들을 1 년도 안되는 단기간내에 대량생산해낸것은 우리 자위적국방공업의 잠재성과 위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군수로동계급은 영웅적인 생산투쟁으로써 그리고 순결한 량심과 고상한 인생관이 응축된 창조물로써 군수로동계급특유의 신념과 혁명적본태를 유감없이 시위하였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기쁜것이 바로 자기의 혈통과 본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군자리정신의 계승자들이라는 영예로운 본명을 지킴에 이렇듯 충실하고 떳떳한 군수로동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우리 국방공업의 위력은 국방과학의 위력이기 전에 당의 결심과 구상을 반드시 실현되여야만 하는 신성한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집행해내는 절대충성의 위력입니다.

절대성과 무조건성, 완벽성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하지 않는 우리 군수로동계급의 생명이며 피줄이며 특질입니다.

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받들고 견인불발의 생산투쟁을 벌려 수백대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고도화를 위한 전략적기도를 빛나게 관철하였으며 이 나라의 애국적인 모두에게 가슴벅찬 긍지와 영예, 계속하여 승리할 앞날에 대한 억센 신심을 안겨준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전사들,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며 보다 자랑스러운 결실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 크나큰 고무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바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군사적안전환경은 미국주도의 동맹관계가 핵에 기반한 군사쁠럭으로 그 본질과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전략적이며 구조적인 중대변화에 직면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현재 보유한 전쟁억제력수준에서 만족을 느껴야 할 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있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지난 5 년간을 돌이켜보아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하여 벌린 군사행동들에 핵이라는 개념이 언제한번 섞이지 않았을 때가 없었으며 이제는 추종국가들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세하에서 우리 공화국무력의 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뒤받침하는 자립적인 방위산업의 진보는 계속 더욱더 가속되여야만 합니다.

강력한 힘의 구축으로 담보되는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할것은 대결이라는것이 우리가 30 여년간의 조미관계를 통하여 내린 총화이고 결론이며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미정책기조입니다.

미국과 그 특등주구무리들의 군사적망동이 도수를 넘어 흉포해질수록 그것은 우리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반증으로 되고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완벽하게, 가속적으로 다지게 하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적들자신이 실패와 수치, 파멸을 필연코 재촉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있는 미국이 결코 몇년동안 집권하고 물러나는 어느한 행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 상대하게 될 적대적국가실체이라는 점도 끊임없는 방위력향상의 필연성을 말해주고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우리에게 가해오고있는 각이한 위협들뿐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보다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위험성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장래적인 담보를 마련하는 사활적인 중대사입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을 보유한 적수국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위협적행동에도 즉시 대응할수 있는 국가핵무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우리는 그것들이 완전한 가동준비태세에 있게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전지구적안보환경과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쁠럭체계의 무분별한 확장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핵력량과 핵태세가 더 철저하고 더 완비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고있으며 매일, 매 시각 이를 절감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우리의 강대함은 그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강대함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정체된 군사적강세는 곧 방위렬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현재의 강세에 자만도취된다면 앞으로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정세격화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지역의 안전에 계속 위해를 끼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이 미국스스로의 안보에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해줄것입니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지만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강력한 군사력보유는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또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 핵을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 존재하는한 핵전쟁억제력강화의 로정에서 사소한 정체나 숨돌림도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것이며 우리의 강세는 영원히 한계를 부정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일체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수 있는 보다 완비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력량태세를 구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도전에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살을 한사코 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방위력을 계속 더 강력하게 키워나가야 함은 절대불퇴전의 선택으로 되여왔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핵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고도화해나가는것이 미국의 핵공갈과 다방면적인 압살에 효과적으로 맞서나가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더 많은 투자를 돌리기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된다는것은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한 10 여년전부터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왔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으로 뚜렷이 확증된 원칙적립장입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여야 하며 제 8 기 당중앙위원회가 제시한 국방발전 5 개년전략목표들을 사소한 양보도 허점도 없이 철저히, 완벽하게 점령해나가야 합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무장장비증산이자 곧 국권수호, 국위선양이라는 절대적사명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당이 제시한 국방공업현대화목표와 주체무기생산과제수행에서 보다 크고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신형무기체계들을 인계받은 부대들에서는 새 무장장비에 하루빨리 정통하고 그것이 최대의 전투적효과를 발휘하도록 효률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실전훈련들을 적극 조직전개하며 신속정확한 작전태세를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전쟁억제와 주도권쟁취의 군사적임무를 원만히 감당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의 새 미싸일부대들이 인계받는것은 단순히 새 무장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무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무장에는 공화국에 대한 침략위협을 끝장내려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의지가 응축되여있고 자기의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다치지 못하게 굳건히 세우려는 자존의 넋과 강국념원이 실려있습니다.

더더욱 강위력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고 실전배비하여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상승일로로 진화시키는 사업은 계속될것입니다.

당중앙은 이 책임적이고 중대한 려정을 충실하고 미더운 군수로동계급과 언제나 함께 하며 정확히 인도해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자주와 정의, 평화는 절대무비의 자위력에 의해서만 굳건히 담보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명심합시다.

부단히 갱생하는 강대무진한 힘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진정한 평화,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주적발전과 우리 인민의 평화롭고 번영

하는 새 삶을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전진적성과들을 창조해나갑시다.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현지료해를 진행하시며

나라의 방위력건설과 군건설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따라 주체적해군무력강화를 급선무적인 과제로 제기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강군건설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적인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현지료해를 진행하시고 그 실현방향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안연선을 따라 항만시설건설예정지구를 돌아보시면서 지도간부들과 함께 건설방향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령토 동, 서에 바다를 끼고있는 해양국인 우리 국가는 국가건설에서나 국가방위력건설에서 조선업과 해군무력발전을 언제나 중시하여왔다고,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새시대 강군건설목표에 따라 해군무력을 빠른 기간에 지역안보환경에 부응한 강력한 군종집단으로 진화시킴에 있어서 현대화, 다기능화된 해군기지창설은 매우 관건적인 공정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전략적요충지로서의 해군기지건설예정지의 지정학적유리성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가까운 기간내에 현존함선계류시설능력으로는 수용할수 없는 대형수상 및 수중함선들을 보유하게 되는데 맞게 최신형대형함선들을 운용할 해군기지건설은 초미의 과제로 나서게 되였다고 강조하시고 함선계류와 탑재무기체계들의 운용취급, 해병들의 문명한 기지생활문화를 확립할수 있는 군항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나라 해군력의 상징, 해군의 작전지휘와 해군문화의 중심지로서의 현대화된 항구도시를 일떠세우는것은 절박한 시대적과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항방어를 위한 반항공 및 해안방어무기체계들을 배비하는데서 나서는 군사적대책들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은 당면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하여 우리당

해군전력강화로선관철에서 획기적인 진일보를 내짚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전위대이며 주력인 혁명군대를 부단히 강화발전시켜 조국과 인민의 번영과 안녕, 후손만대의 행복을 억척으로 수호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이 내세우는 가장 중차대한 국사이고 혁명의 제1대과업으로 된다.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9 월 6 일 공화국포병무력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인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하시였다.

백전백승 무적강군의 위력과 용맹을 떨치며 조국과 인민, 정의와 평화를 억척으로 사수해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제 1 병종지휘관들을 키워내는 명성높은 군사학원 교정은 **김정은**동지를 모시는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안게 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학교에 도착하시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적 힘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강철의 령장께 드리는 포병들의 최대의 경의가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군기에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 학교의 교육일군과 학생이 전체 포병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공화국혁명무력의 줄기찬 승전사와 최강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포병무력강화의 근본초석, 원동력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온 권위있는 군사학원의 전체 교직원들과 핵심병종의 지휘관들로 성장해가는 학생들에게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관학교 학생들의 분렬행진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손길아래 인민군대 포병지휘관양성의 기본거점으로 장성발전하며 자기의 연혁사에 불멸의 무훈을 새겨온 학교는 앞으로도 당의 포병중시사상과 군사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결사의 복무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높은 군사적자질을 갖춘 유능한 군사인재들을 육성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병기연구실을 돌아보시고 지상포사격연구실과 포병전술연구실에서 진행하는 련습상학을 참관하신데 이어 교육정보종합조종실에서 교육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으로 진격로를 열고 포병으로 적을 압승하며 전승의 축포도 쏘자는것이 우리 당의 포병철학이며 포병중시사상의 핵이라고 하시면서 이로부터 우리당 강군건설로선관철의 보루이고 전초선인 군사교육전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면은 포병전문교육부문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객관적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전군의 철저한 림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혁명과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동시에 강력히 밀고나가야 할 강군건설의 2 대전선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무력의 백년지계를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교육혁명의 전초에 마땅히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군사력발전추이를 통찰하고 조선로동당이 군대내 모든 병종들중에서도 특별히 전략전술적의의가 큰 포무력강화에 주력하여 최강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다져온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바로 그 막강한 첨단무장장비들이 자기의 실전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포병지휘관들의 수준과 역할에 기인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실전을 모의하여 지휘관의 전투정황판단과 지휘능력을 판정하는 강의들을 학습조별론쟁의 방법으로 심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교육수단의 현대화, 교육의 정보화, 과학화를 부단히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의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주체적포병무력의 장래를 책임졌다는 신성한 사명감을 안고 일심분투로 포병전법혁명, 포병군사리론혁명을 일으켜 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며 교내에 혁명적인 학풍과 군기를 철저히 확립하여 학생들이 재학기간 더욱 깊고 풍부한 군사지식들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의 학술체계와 학제를 현대군사교육의 발전방향에 맞게 실리적으로, 효률적으로 갱신, 조률하여 학생들이 실전에서 반드시 활용할수 있는 산전법을 터득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교정의 교문을 나선 모든 포병지휘관들은 주체의 포병전법과 각이한 타격능력의 첨단무장장비들에 완전히 정통하고 현대전의 임의의 정황에도 신속히, 원만히 대응하여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소멸할수 있는 만반의 전투지휘능력을 갖춘 명실공히 일당백의 만능포병, 포병인재들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강화에서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차지하는 중요한 임무와 지위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것은 군사교육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키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학교를 전군의 군사교육기관들의 본보기, 세계일류급의 군사학원으로 훌륭히 전변시키실 의지를 표명하시고 이를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군사교육부문의 각급을 발전하는 현대교육추세에 맞게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변시키는데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탁월한 혁명무력건설사상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포병무력강화를 위해 학교가 나아갈 휘황한 진로를 명시해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관록있는 포병종합군관학교가 앞으로도 공화국혁명무력의 핵심골간들을 가장 훌륭히 완벽하게 육성해내는 자랑찬 군사교육성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기대에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환송해드리는 교정에서 터쳐올리는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무진막강한 군력을 억척으로 다져 자주강국의 국권과 국익,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천추만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갈 견결한 강군건설의지가 어린 **김정은**동지의 포병종합군관학교에 대한 현지시찰은 주체적포병무력강화와 군사교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는 특출한 계기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9 월 11 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고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기지의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지의 모든 시설들과 훈련장들을 실전가상훈련을 실용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효과적으로 설비해놓고 전투원들을 만능전투원들로 엄격히 육성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훈련시설들을 보다 갱신하고 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조건보장사업에 국방성과 총참모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훈련강령에 따라 전투원들이 진행하고있는 대상물정찰 및 습격전투훈련을 보시였다.

준엄한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적들의 심장부를 급습하고 공격하는 부

대들의 진격로를 단숨에 열어제낄 백배의 각오로 가슴끓이며 훈련장마다에 충성과 위훈의 구슬땀을 뿌려온 전체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하는 훈련에서도 진짜 싸울줄 알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백전백승 혁명무력의 싸움본때, 싸움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전투조법에 완전히 정통하고 비호같이 훈련장을 주름잡는 군인들을 대견하고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모든 전투원들이 혁명적이며 강도높은 훈련열풍속에 하나같이 끌끌하고 용감무쌍한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나 확실한 림전태세를 철저하게 견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알처럼 땅땅 여문 용맹한 싸움군들로 준비된 우리 군인들의 기백넘친 모습을 보게 되니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필승만을 떨쳐가는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근위병, 열혈맹장들로 자라난 전투원들을 힘있게 고무격려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백전백승 강철의 령장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값높은 평가와 대해같은 영광을 받아안은 전투원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뢰성과도 같은 열광의 환호성으로 화하며 세차게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훈련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군대에는 이런 능력있는 진짜배기싸움군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유사시 총포탄이 비발치는 전장을 한치의 주춤도 없이 용감히 누벼나가며 적들을 쓸어눕힐수 있는 일당백기질의 소유자, 쟁쟁한 핵심전투원들을 알알이 키워 공화국의 특수작전무력을 더욱 억척으로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쟁의 양상과 성격을 고찰해볼 때 잘 훈련되고 준비된 특수작전무력을 싸움마당의 기본전투무력으로 내세우는것은 승패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수작전무력건설은 우리 무력건설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훈련혁명, 사상혁명, 장비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최정예의 특수작전무력강화에 주력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전훈련을 계속 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늘 강조하는바이지만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법이라고,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군대는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일거에 적들을 억제해버리고 무자비하게 쓸고나가 완전히 평정해치울수 있게 만반으로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총을 틀어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강도높은 실전훈련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것이 곧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제일가는 애국심이고 충성심이며 제 1 의 혁명임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에서 엄격한 요구성을 계속 제기하고 우리 식의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전쟁에 완벽하게 준비함으로써 유사시 우리 군대와 맞다들면 결단코 적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의 힘을 소유하지 못한 군대의 승리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잘 준비된 군대도 사상이 없으면 오합지졸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싸움을 알기 전에 당과 조국과 인민을 먼저 아는 참된 애국병사들이 될 때 승리는 언제나 그들의 편에 있기마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의 고유한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더욱 훌륭히 배양하고 적극 발양시켜 군인들을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보다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계급교양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차대한 과업으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이 투철한 대적의식과 주적관을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군대도 모방할수 없는 불굴의 영웅적기질과 전투정신이 전 대오를 지배하고있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장성강화될것이며 그 명성과 실체만으로도 적이 두려워 덤빌 생각을 못하는 전쟁억제력이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전체 전투원들은 자기들의 훈련장을 찾아오시여 필승의 승전법과 전투적고무를 안겨주신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견결한 애국정신으로 더욱 완벽한 실전능력구축에 매진함으로써 언제나 진격의 앞장에서 국가와 인민을 가장 영예롭게, 가장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 제일기수가 될 혁명적열정과 충천한 사기에 넘쳐있었다.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0 월 2 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훈련기지에서는 여러 특수작전려단 전투원들이 전투정치훈련강령에 따라 강도높은 훈련을 진행하고있다.

이날 기지에서는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여러가지 훈련들이 있었다.

훈련은 부대전투원들의 전투준비정도를 판정하고 그 어떤 전투정황속에서도 맡겨진 특수작전임무를 믿음직하게,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정신육체적으로, 전술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억척같이 수호해가는 공화국무력의 중추구성력량으로 장성강화된 핵심선두부대들은 이날 훈련을 통하여 일단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앉아 전투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전투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이 각이한 전투정황에 완벽하게 숙달된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모든 전투원들이 조국수호, 인민사수의 영예로운 사명감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기고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해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적을 무조건 괴멸시킬 멸적의 투지와 영웅적기개가 그대로 맥박치는 훈련을 보시면서 언제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자신만만하게 상대해줄수 있게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들로 자라난 이런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진정 더욱 굳건한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애국적열정과 전투적용맹을 뜨겁게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인민군대의 특수작전무력이 공화국의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에서 중추적핵심력량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 특수작전무력을 최강의 전투집단으로 부단히 확대강화해나감으로써 공화국무력발전에서 보다 뚜렷한 진일보를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특수작전무력건설방향과 관련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번에도 언급하였지만 특수작전무력건설에서 훈련혁명, 사상혁명, 장비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구현함으로써 특수작전무력이 전쟁마당의 기본주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전쟁승리에서 결정적역할을 수행하도록 더 완벽하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훈련에서 우리식의 새로운 방법론을 부단히 연구적용하고 숙달시켜 그 어느 군대와도 대비할수 없는 절대적기준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지휘성원들에게 서울에서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10 월 1 일에 벌려놓은 적들의 그 무슨 기념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윤석열이 기념사라는데서 시종 반공화국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려읽었는데 이는 그들이 떠안고있는 안보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것이라고, 어설픈 언동으로 핵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운운하면서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이니, 《정권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객기를 려과없이 드러내보인것은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 바로 저들임을 스스

로 자인한것이라고, 그런 서툴기 짝이 없는 수사적표현과 과시성행동에 세상이 웃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윤석열이 핵을 보유하고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수 없게 한 가관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군사적 강세를 막아세우지 못했으며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것이라고, 우리는 오랜 기간 간고한 도전을 이겨내며 핵강국으로서의 절대적힘과 그를 리용할 체계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확보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하려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보유국과의 군사적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일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협이 아닌 세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물리적파괴력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계속 힘을 키워야 한다고, 오직 두손에 틀어쥔 힘만이 적을 다스리고 자기자신을 지킬수 있는 유일한 담보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에 더욱 충실하여 강력한 군사력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철저히 보위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강경투철한 대적립장과 방침들은 지휘성원들과 전체 장병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와 배심을 배가해주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훈련에 참가한 관병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조국수호의지를 격려하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전체 전투원들은 훈련장에 찾아오시여 세

심한 지도를 주시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신 위대한 령장께 충성의 맹세를 담아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김정은**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첨병이라는 자각을 더 깊이 간직하고 한계를 모르는 전쟁수행능력제고, 싸움준비완성에 계속 분투함으로써 임의의 시각 그 어떤 전투임무가 부과되여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완수할수 있는 맹장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핵심병종의 현역지휘관진출을 앞둔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제 75 기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 년 9 월초 공화국포병무력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인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주체적포병무력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학교의 모든 졸업생들을 만반의 전투지휘능력을 갖춘 일당백의 만능포병, 포병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지침들을 환히 밝혀주신데 이어 꼭 시간을 내여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실탄사격을 보아주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

사격장은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교정에 모시고 당의 포병철학의 참된 진리를 새겨안은 그날의 무상의 영광과 감격을 안고 일심전력으로 련마해온 자기들의 사격술을 **김정은**동지께 직접 보여드리게 된 교원, 학생들의 전투적열광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서 포사격진행계획과 가상전투정황에 따르는 군관학교 교장의 결심보고를 청취하시고 사격훈련을 보시였다.

군관학교 학생들은 포사격제원을 신속히 판정한데 기초하여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무자비하고 처절한 포화로써 조국의 령토를 보위할 포병군관학교 학

생들의 멸적의 기상이 만장약된 포탄들이 련이어 목표를 타격하였다.

군관학교 학생들은 주체의 포병전법과 각이한 포무기들에 완전히 정통하며 임의의 정황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소멸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데 대한 당중앙의 뜻을 새겨안고 억세게 벼려온 실전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생들의 능숙한 화력복무동작과 명사격술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학교에서 군사리론교육과 함께 실전훈련을 중시한것이 알린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실탄사격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실탄사격에서 명중률과 집중성의 판정기준을 더 높여 학생들이 새로운 목표달성을 향해 계속 분투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군관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실탄사격결과는 당의 군사교육방침, 훈련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증시이고 포병교육부문이 도달한 자랑스러운 높이라고 하시면서 학교에서는 《시사없이 명중》이라는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작전전투지대의 실정에 맞게 빨찌산전법을 부단히 련마하여 신속한 기동전, 기습전으로 적들을 격멸소탕하는데 중심을 두고 포병교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지휘관들과 포병들의 전반적인 군사과학기술소유기준과 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이 더욱 긴박하고 절실한 과제로 나서게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포병교육부문이 달성해야 할 교육목표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졸업생들의 성적증은 군사학업실력에 대한 증표인 동시에 조국과 인민의 안전에 대한 담보증으로 된다고, 포병종합군관학교의 교문을 나선 졸업생들은 마땅히 우리 군대의 핵심병종을 떠멘 지휘관이라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작전전술적안광, 뛰여난 명중사격술로써 포병무력의 부단한 장성발전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포실탄사격훈련을 보신 다음 화력진지에 나가시여 포병종합군관학교의 명예를 백발백중의 명중포성으로 시위한 미더운 후비

지휘관들을 뜨겁게 축하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졸업을 앞둔 포병종합군관학교 학생들이 전군의 포병진지를 전승을 앞당기는 억척의 지지점으로 만드는 견인기가 되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결사의 복무정신을 지닌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영예로운 본령에 항상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적혁명무력의 제 1 병종지휘관으로서의 첫걸음을 떼는 자기들의 졸업실탄사격을 몸소 지도하여주시며 드높은 신심과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신 **김정은**동지를 격정속에 우러르며 학생들은 우렁찬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리였다.

포병종합군관학교의 지휘관들과 교원, 학생들은 군현지시찰의 길을 걷고걸으시며 주체적포병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장의 령도를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 주체의 포병무력이 세계최강의 병종으로 위용떨치는데 적극 기여할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0 월 14 일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에서는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주권침범도발사건과 관련한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에 대한 보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에 대한 보고, 당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산실적에 대한 보고,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 국방안전기관들의 보고에 반영된 자료와 대책적 의견들에 대한 평가와 결론을 내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참모부가 진행한 해당 사업내용과 주요련합부대

들의 동원준비상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당면한 군사활동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나라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립장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0 월 17 일 조선인민군 제 2 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전체 장병들은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비범한 령군술로 혁명무력발전의 일대 상승기를 열어놓으시고 인민군대를 영원히 백전백승하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격정속에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전방국경연선에서 언제나 확실한 림전태세, 격동상태를 만반으로 견지하며 국가의 령토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고있는 대련합부대 장병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간부들과 함께 조국수호, 인민보위의 혁혁한 무훈으로 빛나는 대련합부대의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가 걸어온 성스럽고 긍지높은 영광찬란한 전투적행로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진 당의 불멸할 령군업적을 감회깊이 되새겨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조직되여 적후전선과 진지방어전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며 공화국 2 중영웅을 비롯한 100 여명의 공화국영웅을 배출하고 세기와 년대를 이어 일당백고향부대의 명성을 떨쳐온 부대의 연혁은 부국강병의 대업을 총대로 억세게 받드는 인

민군대의 혁혁한 전과와 무수한 위훈의 자랑찬 축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을 사상정신적으로 압도하는데 전투의 승패와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하시면서 적과 전쟁에 대한 확고부동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확립하고 견지할 때 우리 군대는 천하무적의 명함을 영원히 떨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단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대련합부대 지휘소를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단장으로부터 적정보고를 받으시고 전투대기태세로 전환한 관하려단들의 준비상태를 점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단의 주요지휘관들을 따로 만나시고 각이한 사태발전에 대비한 대련합부대의 군사행동계획을 반영한 중요문건들을 검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전쟁수행능력강화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며 항상 압도적인 림전태세에서 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이된 조건과 보다 진화된 적들의 각이한 침략적성격의 군사행동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주는 영향관계는 국가의 핵억제력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그 정당성을 립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문건들을 검토하시고 군단이 각이한 정황에 대비한 군사행동계획들을 바로세웠다고 인정하시면서 군단의 결심을 지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이틀전 한국령토와 련결되여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단절하였다고, 이것은 단지 물리적폐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것으로써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이상의 조건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선고나 같은 의미이라고, 우리가 이미 천명한대로 만약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행동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을 다스릴수 있고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이며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대는 분명코 더욱 강해져야 하며 반드시 강해질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대련합부대방문을 기념하여 지휘부 장병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대련합부대 장병들은 불패의 승전방략과 무적의 용맹과 신심을 안겨주시고 인민군대를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곧바로 향도해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을 담아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공화국의 주권을 사수하고 인민의 안녕을 보위하는 영예로운 수호자, 전초병의 본분과 사명에 항상 충실하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흠모의 격정드높이 터치는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10 월의 하늘땅을 진감하며 울려퍼지였다.

전체 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위대한 당을 위하여,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결사의 각오를 다짐하면서 긍지높은 연혁으로 빛나는 영광의 군기에 언제나 백승의 무훈만을 아로새겨갈 전투적열광에 넘쳐있었다.

전략미싸일기지들을 시찰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략미싸일기지들을 시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싸일기지들의 발사관련시설 요소별기능과 능력, 전략미싸일전투직일근무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억제력의 가동준비태세를 점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략미싸일기지들에서 미싸일병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상시 긴장한 태세로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면서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본분을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다고 치하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에서 전략미싸일무력은 중추를 이루는 핵심력량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전략미싸일무력을 우선적으로 하여 무력전반을 기술현대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국방건설전략의 중요원칙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도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미국의 전략적핵수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에 주는 위협은 날로 가증되고 있으며 전망적인 위협들도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엄격히 갖출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략미싸일기지들을 더욱 현대화, 요새화하고 모든 기지들이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임의의 시각에 신속히 적수들에게 전략적 반타격을 가할수 있게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당중앙이 백승에로 향도하는 부국강병대업실현의 전초에서 당

의 무장력, 공화국정권의 수호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의 고귀한 명함과 투쟁본때가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조선인민군 제 4 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의 건군사에 네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위협과 도전들을 단호히 제압분쇄하고 조국과 인민의 신성한 주권과 존엄, 명예를 굳건히 수호하며 국가부흥의 전면적상승발전을 다그쳐나가야 할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말단지휘기관이고 주요전투단위인 대대지휘관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대대강화에서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옴으로써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충성과 위훈으로 새겨가는 복무의 나날 언제나 그리며 마음달리던 당중앙위원회, 군력의 초석을 억척으로 다지는 길에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땀을 바쳐가며 자나깨나 뵙고싶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전군의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이 한날한시에 모여왔다.

인생의 귀중한 젊은 시절을 조국수호, 국익사수의 1 선참호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대건설전역들에서 보내며 땀에 젖은 군복을 벗을 사이없이 헌신해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에게 수도시민들이 연도마다에서 뜨겁게 손저어주며 반겨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제 4 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2024 년 11 월 14 일과 15 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 3 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당이 제시한 정치사상강군화, 군사기술강군화를 핵심목표로 하여 완벽한 전쟁수행능력과 만반의 림전태세를 확고히 견지하며 당과 혁명이 부여한 중대한 력사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전군의 대대들을 최전력의 전투집단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실천방도들이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선인민군 제 4 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대대강화에서의 확실한

진전으로 강군건설위업을 담보하자》가 전달되였다.

대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들에서는 대대를 당중앙과 사상과 뜻, 숨결을 함께 하는 정치사상적순결체, 당중앙결사옹위의 전위대오로 굳건히 다지고 대대의 관병들을 무비의 담력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열혈맹장들로 준비시키며 병사들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군인생활개선을 위해 고심어린 탐구와 진함없는 노력을 바쳐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되였다.

대대의 전투력은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사상과 신념, 실력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한데로부터 발로된 일련의 편향과 교훈들이 분석총화되였다.

대회에 이어 대대강화에 기여한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에 대한 당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년 11월 15일 오후 대회장을 찾으시였다.

조국과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국권수호와 국가부흥,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회합을 그토록 중시하며 열화의 정과 믿음을 안고 찾아오신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주요군정지휘관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강대한 국가의 위대한 수호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터치는 전체 참가자들의 활화와 같은 《만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혁명무력의 기층에서 열렬한 애국충성과 깨끗한 량심, 불굴의 헌신과 완강한 분투로써 군력강화의 초석을 억척으로 다져나가고있는 전군의 대대지휘관들에게 전투적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앞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강령적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사회주의라는 크나큰 세계에 살며 병사들을 이끌고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걷고있는 대대장, 대대정치지

도원들의 순결무구하고 열렬한 애국충성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자기 대대를 그 어떤 명령집행에도 철저하고 영용하며 완벽한 정예의 전투력량으로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써 당에 크나큰 힘이 되여주고 의지가 되여주고있는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사상최악으로 격상시킨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대결광태의 위협적성격에 대하여 까밝히시고 혁명의 요구, 현정세의 요구로부터 전쟁준비완성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공화국무력의 각급에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정규무장력과 전체 공화국무력이 전쟁에 대비할수 있게 정치군사적강세, 전력증대를 가속해나가는데서 대대들을 잘 준비시키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대대의 위치와 역할,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말하고 결의하는 대대가 아니라 명령을 받으면 즉각 행동하고 싸울줄 아는 대대, 그 어떤 임무를 주어도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만능대대로 준비시키는것이 우리 무력의 모든 대대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고 이번 대회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당과 혁명이 부여한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대대의 실전능력 강화에서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오래동안 벼리고 다져온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국가와 인민을 수호하고 영예로운 전승을 앞당겨 쟁취하기 위하여 총매진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새시대 강군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군의 모든 대대들을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과 의지를 만장약하고 그 어떤 강적도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압승하며 전투력과 위풍에 있어서 강용하고 당당한 인민군특유의 위세가 한결같이 체현된 최정예전투집단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진로를 밝힌 백전필승의 실천강령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령장을 격정속에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대회장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위대한 국가의 무궁강대함을 위하여, 위대한 인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워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각오와 전투적열광으로 충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16 일과 17 일에 진행되였다.

강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앞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의 기본사상과 진수를 깊이 체득시키는데 기본목적을 두었다.

조선인민군 제 4 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전군의 모든 대대를 당중앙결사옹위의 억척보루, 국권수호의 무쇠주먹, 원쑤격멸의 서슬푸른 보검으로 만들며 혁명무력을 완벽한 전쟁수행능력을 갖춘 강대무비한 힘의 실체,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불패의 전위대로 더욱 장성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의의깊은 대회합으로 주체의 건군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1 월 21 일 조선인민군 제 4 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화국무력을 당과 혁명의 억척불변한 지지점,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해나가는 강대무비한 힘의 실체로 강화하는데서 전위적 사명을 수행하는 대대지휘관들을 가장 사랑하는 전우들로 값높이 불러주시며 인민군대의 백전백승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열혈맹장들로 성장하도록 열화의 정과 믿음을 끝없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심이 촬영장소에 차넘치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건군사에 네번째로 열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가 새시대 강군건설의 활기찬 동력을 확충하는 력사적인 대회합

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또다시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대대강화를 전군강화의 관건적고리로 내세우는 당중앙이 이번 대회에서 제시한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쟁준비완성에서 새로운 력동적전환을 안아옴으로써 공화국무력의 강대함과 불패함을 굳건히 담보해나갈 비상한 열의에 넘쳐있는 참가자들에게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대는 우리 군을 정치사상강군화, 군사기술강군화하는 행정에서 당중앙이 시종일관 중시하고 의거하는 믿음직한 근거지이며 대대의 전투력이자 우리 무장력의 전력임을 재삼 강조하시면서 대대지휘관들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대대강화의 기준과 목표, 내세우는 근본요구를 정확히 새기고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새시대 강군화로선관철에서 척후대, 선봉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기본전투단위 지휘관들인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의 신념화, 특질화된 충실성과 견결한 의지, 불굴의 분투가 깃든 하나하나의 성과들이 주추로 고여지고 기둥으로 굳건할 때 대대강화에서는 반드시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 군의 정치군사적강세, 전력증대는 백배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공화국무력의 모든 대대를 당중앙의 명령일하에 즉각 행동하고 싸울줄 아는 대대, 그 어떤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만능대대로 준비시킬데 대한 대회의 기본정신을 금후 정치군사활동에 완벽하게 구현하며 군정배합의 힘으로 림전태세완비를 강력히 견인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2) 강력한 자위적국방건설을 위하여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2023 년 12 월전원회의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과 애국적열의를 비상히 높여가며 련일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는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대형발사대차들과 각종 군용대차들을 보시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지난 한해동안에 진행한 대차생산계획수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023 년을 국방력강화에 크게 아로새길 변혁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중앙이 제시한 발사대차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새해의 새로운 생산목표점령투쟁을 기세차게 벌려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전략미싸일발사대차생산을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모두가 애국의 한마음으로 총궐기해 떨쳐나서 우리 당의 강군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적인 생산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이 공장 로동계급과 같이 애국열로 충만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절대성을 체질화하고있는 우리의 군수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기술혁신운동과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고 직장별, 작업반별, 기대별 사회주의경쟁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면서 투쟁열풍을 세차게 고조시키고 사상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내세우고있으며 종업원들이 뜨거운 공장애를 지니고 일터를 알뜰히 관리해나가며 높은 로동생산문화적환경을 확립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

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과의 군사적대결에 보다 확고히 준비해야 할 엄중한 현정세하에서 우리가 쉬임없이 추진하고있는 국가방위력강화의 력사적과업수행에서 이 공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데서 각종 전술 및 전략무기발사대차생산이 가지는 중요성과 인민군대의 작전상수요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당면한 발사대형별 생산계획과 전망적인 생산계획 및 생산능력조성에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를 보다 급진적으로 현대화할수 있게 공장은 생산투쟁에서 비약적성과를 계속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능력확장과 관련한 중요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요인은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의 사상과 신념문제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을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국방력강화의 제일선에 서있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일관하게 강화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고조시키고 모든 력량과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당의 군수공업정책관철에 힘껏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공장을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두시고 제일로 아끼고 중시하시며 최강의 국가방위력건설을 위한 줄기찬 려정의 전위에 세워주신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영용한 군수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로 발사대차생산전투에 다시한번 총돌격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싸일시험발사를 지도하시며

주체적해군무력의 독창적발전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달음쳐 강력하게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

도에 의하여 해군무력강화의 위대한 새시대가 도래하고있음을 뚜렷이 과시하는 전략무기시험이 진행되였다.

시험발사는 주체적해군무력의 급속한 발전상을 과시하고 공화국 해군무력강화의 전망성을 확신할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된다.

국가핵억제력의 작용공간을 다각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김정은**동지의 전략무력건설로선은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시키며 계획적으로, 급진적으로 집행관철되여가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 월 28 일 오전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해군사령관, 기타 지도간부들과 함께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싸일《불화살-3-31》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순항미싸일들은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섬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성된 현정세와 전망적으로 존재하는 위협들은 우리가 해상주권을 보위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해군건설을 목표로 하고있는 우리당 군현대화계획수행에서 오늘과 같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과업이며 국가핵전략무력건설의 중핵적요구로 된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해군핵무장화실현과 국가핵억제력의 작용공간을 다각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핵잠수함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동력잠수함과 기타 신형함선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시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과업과 국가적대책안들을 밝히시였으며 그 집행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시였다.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과 배무이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조선소의 전반실태와 기술장비수준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소의 자랑찬 발전행로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소가 지난 시기 많은 전투함선들과 대형짐배, 준첩선, 고기배를 비롯한 각종 선박들을 무어냄으로써 나라의 해상주권을 보위하고 해상운수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군수공업정책과 선박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장구한 실천투쟁속에서 굴지의 배무이기지로 장성강화되여온 고귀한 력사와 전통이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남포조선소는 나라의 선박공업발전과 해군무력강화에서 커다란 중임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소앞에 선박공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혁명적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나라의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해군무력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이는 선박공업부문이 새로운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 자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나라의 선박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국방경제건설로선관철의 중요한 담보로,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박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지향한 당의 새로운 방침관철에서 나라의 믿음직한 대규모군수선박건조기지이며 자력갱생의 훌륭한 력사를 자랑하는 이곳 조선소가 마땅히 본보기가 되고 견인기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소에서 배무이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며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으며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부단히 개선향상시킬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8 차대회가 결정포치한 각종 함선들의 건조실태와 새로운 방대한 계획사업의 준비정형을 상세히 보고받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조기술, 설계, 능력보강문제와 자재, 협동품보장문제 등 현행실태를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주시면서 계획된 선박건조사업들을 완강하게 내밀어 5 개년계획기간내에 무조건 집행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망적인 선박공업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기 위한 중대한 요구에 맞게 조선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중요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년대들마다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국방, 경제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소의 당원들과 로동계급이 주체적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맨 앞장에서 반드시,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소로동계급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애국심을 간직하고 무시할수 없는 실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백배하여 당이 목표하고 결정한 중요전투함선들을 세계적수준에서 훌륭히 건조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남포조선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선박공업과 주체적해군무력강화발전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전위에 자기들을 내세워주시고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당중앙이 밝혀준 새시대 선박공업발전방침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다해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지상대해상미싸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2 월 14 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지상대해상미싸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시였다.

발사된 미싸일들은 1 400 여 s 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하여 목표선을 명중타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검수사격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동, 서해함대 해안미싸일병대대 전투편제개편안에 대하여 중요결론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상대해상미싸일력량을 전진배치하고 최대로 강화하여 해상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데 대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한국이 국제법적근거나 합법적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 국어선 및 선박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공화국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기시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수역에서의 군사적대비태세를 강화할데 대한 중요지시를 내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서해에 몇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명백한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것이라고 단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법하고 당당

한 자위권행사로써 국가주권과 안전을 억척같이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해안선과 해상국경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는데서 나서는 군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현대화 및 현행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2023 년 8 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 가르치심과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창조력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공장건물개건현대화공사를 훌륭히 완공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으며 군수품생산에서 증산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의 핵심공장, 선봉공장답게 공장의 면모를 혁신적으로 일신시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비약적으로 제고하였으며 생산능력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힘있게 내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중대한 임무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수품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증산의 기본열쇠는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인 군수로동계급의 정신력발동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그들이 국방력강화를 위한 당의 정책과 정세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열렬한 조국애,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의지를 만장약한 힘으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함으로써 군수

생산에서 비약적인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을 비롯한 중요핵심공장들이 발전하는 첨단국방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사업과 생산능력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와 제 2 경제위원회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계획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방향도 제시하시였다.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들의 공장을 군수공업부문의 전렬에 당당히 세워주신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절대적인 충성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중앙이 제시한 과업을 기어이 완수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용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며

국가방위력강화의 줄기찬 발전행로우에 경이적인 과학기술성과들이 다발적으로 탄생하고있는 시대에 또 다른 전략적가치를 가지는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용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과 산하 발동기연구소에서는 2024 년 3 월 19 일 오전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무기체계개발일정에 따라 중장거리급극초음속미싸일에 장착할 다계단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미싸일개발부문 지도간부들과 함께 해당 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중대시험의 대성공을 통하여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무기체계개발완성의 시간표가 확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가치는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인민군대의 작전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평가되며 그에 대해서는 적들이 더 잘 알고있다

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5 개년 계획기간의 전략무기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당의 구상과 결심을 투철한 신념과 정확한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국방과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식의 강위력한 절대병기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탄생하고있는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최전성기에 또 다른 군사전략적가치를 가지는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4 월 2 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고체탄도미싸일 《화성포-16 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시험발사는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의 전반적인 설계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새로운 이 무기체계의 첫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를 1 000 ㎞ 한도내로 국한시키고 2 계단 발동기의 시동지연과 능동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변경비행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제한하면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활공도약형비행궤도특성과 측면기동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억척불변의 의지와 진함없는 정력으로 첨단무기개발완성의 무수한 초행길들을 몸소 개척해주시고 그 끊임없는 비약적발전을 위한 화선에서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김정은**동지를 또다시 시험발사장에 모시고 국가의 자위권을 굳건히 지킬 위력한 첨단병기를 보여드리게 된 국방과학전사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군사강국의 과학자된 무한한 자부심과 드높은 신심과

전투적열광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사진지에 나가시여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고체탄도미싸일 《화성포-16 나》형을 돌아보시며 무기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어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감시소에 오르시여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미싸일총국장이 시험발사를 지휘하였다.

발사구령이 떨어지자 천둥같은 폭음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고 세차게 내뻗는 불줄기가 지면을 뜨겁게 달구며 공화국의 군사력을 용용히 과시하는 첨단미싸일이 발사되였다.

평양시교외의 어느한 군부대훈련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싸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민활하고 우수한 기동특성이 뚜렷이 확증되고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의 중대한 군사전략적가치가 극악한 시험조건에서의 검증을 거쳐 매우 의의있게 평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발사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병기개발투쟁에 결사적으로 떨쳐일어나 진함없는 충의심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에서 준 명령을 가장 훌륭하고 진실하고 완벽하게 관철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의 절대적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여났다고,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미싸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내의 임의의 적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싸일무력건설의 3 대원칙

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는 우리 공화국무력의 핵전쟁억제력 제고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특대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근 10 년간에 걸치는 우리의 간고한 국방과학연구투쟁의 고귀한 결실이고 우리당 자위적국방건설로선의 정당성의 과시이며 우리의 힘과 지혜, 분투로써 쟁취한 값높은 승리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강화와 각양각태의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확대해가며 공화국의 안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들고 있는 적들의 반공화국군사적대결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지적하시면서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할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것은 현시기 우리 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할 력사적의무에 더욱 충실하여 성공에서 더 큰 성공을 련속 줄기차게 안아와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자위적국방력을 중단없이, 가속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비축해나가는것으로써 국가의 평안과 번영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국방공업의 자립성과 현대성을 더욱 비상히 제고함으로써 첨단무기개발투쟁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전투적고무를 받아안은 전체 국방과학자들은 당중앙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의 병기창을 더욱 억세게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기백배 헌신분투해나감으로써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련속적인 성공폭음으로 무적의 국가방위력을 억척같이 강화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새로 설립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을 보아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4 월 25 일 새로 설립된 제 2 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 ㎜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을 보시였다.

검수시험사격을 통하여 새로 설립된 현대화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방사포탄의 비행특성과 명중성, 집중성지표들이 대단히 만족하게 평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국방공업기업소에서 2024 년에 시달된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질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240 ㎜방사포무기체계는 인민군대 포병력량강화에서 전략적변화를 일으키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갱신형 240mm방사포무기체계를 료해하시고 조종방사포탄시험사격을 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5 월 10 일 기술갱신된 240 ㎜방사포무기체계를 료해하시고 여러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조종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보시였다.

발사된 8 발의 포탄이 점목표를 명중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갱신형 240 ㎜방사포무기체계와 조종방사포탄들의 우월성과 파괴적인 위력이 집약적으로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술갱신된 방사포무기체계와 조종방사포탄생산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방경제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토의하시고 중요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중요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5 월 11 일과 12 일 제 2 경제위원회산하 중요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의 군수공업정책집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첨단정밀군수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공정현대화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핵심적인 몫을 맡고있는 국방공업기업소들의 생산공정현대화가 날이 갈수록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세계적인 첨단기술력을 갖추어나가고있는것은 자립적국방공업을 더 비약적인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결조건이고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국방공업이 세계적수준에서 눈에 띄우는 발전을 이룩하고있는것은 우리당 국방경제발전전략과 투쟁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많은 기업소들에 자동화, 흐름선화가 훌륭히 실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소재생산으로부터 조립과 시험공정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정밀도와 동작믿음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첨단설비와 장치들을 실용적이며 효률적으로 배치하고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착상과 노력들이 경주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이 고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규정과 질서를 세우며 자재와 협동품보장을 계획적으로 잘하여 질이 철저히 담보되는 중요군수품들을 계렬생산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특별히 관심하는 핵심국방공업기업소들이 선봉적역할을 하며 우리 군대의 싸움준비를 물질기술적으로 철저히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리며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군수품생산투쟁에 총궐기해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제 2 경제위원회아래 모든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더 발전적인 단계에서 벌리며 군수로동계급의 본보기적인 새 세기 문화를 계속 창조하고 혁신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요저격무기들을 생산하는 기업소를 찾으시여 저격수보총을 비롯하여 새로 개발한 각이한 저격무기들을 보아주시면서 성능도 직접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저격수보총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적수준의 성능과 위력을 가진 자랑할만한 저격수보총을 만들어낸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한단계 더 높은 저격무기혁명을 일으키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피력하시면서 주요저격무기생산기업소들의 전망적발전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국방경제조직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중요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4 년에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되는 갱신형 240 ㎜방사포대차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된 방사포차들을 돌아보시면서 2024 년 생산계획과 현재까지의 생산실적을 알아보시고 몸소 포차에 오르시여 직접 시운전을 해보시며 전투적성능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방사포차의 자동화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고, 240 ㎜방사포무기체계의 전투적효과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포차를 질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시면서 과학기술력의 제고와 부단한 혁신으로써 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인민군대의 포병전투력강화를 힘있게 가속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효률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 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근기있게 내미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포차들의 성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생산공정현대화목표를 갱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국방공업기업소들이 제시된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질적으로 수행할뿐 아니라 진함을 모르는 특유의 개발정신과 창조기풍으로 보다 새로운 혁신과 비약적인 전진을 줄기차게 이룩해나감으로써 당의 국방발전전략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언제나 기치를 들고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요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5 월 14 일 조선인민군 중요화력타격임무를 담당하고있는 미싸일련합부대들에 새로 장비시키게 될 전술미싸일무기체계를 료해하시였다.

제 2 경제위원회산하 해당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는 2024 년 상반년도 군수생산계획을 수행하였으며 년말까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전술미싸일무기체계생산계획을 결속하게 되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공업기업소들의 2024 년 상반년도 생산실적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2024 년도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으로써 인민군대의 전쟁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상반년도에 생산된 미싸일발사대들은 조선인민군 서부작전집단의 화력습격련합부대들에 장비하게 되였다.

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하시며

국방공업분야에서 획기적인 결과들이 달성되고 나라의 방위력강화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들이 련속적으로 이어지고있는 중대한 시기에 조선로

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하여 시달한 국방생산과제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5 월 17 일 중요무장장비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생산활동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공업기업소가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제고하는데서 세운 특출한 공적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2024 년 상반년도 생산실적과 년간군수생산계획수행전망성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기업소에서 새롭게 갱신한 전투기술기재의 부분기술들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놀라운 진보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전체 국방공업분야에 있어서 고무적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더욱더 로골화되고 발악적으로 진화하고있는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대결책동으로 인해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핵전쟁억제력제고의 필수성을 더욱 엄정히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을 보다 급속히 강화하기 위한 중요활동들과 생산활동을 멈춤없이, 주저없이 계속 가속화해나가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실감하기 어려운 우리 국가의 핵전투태세를 목격해야 적들이 두려워할것이며 불장난질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고, 그것이 곧 전쟁억제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원쑤들에게 급진적으로 변하는 우리의 무한대한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평화적삶과 안전을 굳게 담보하고 국가발전의 안정적인 환경을 보위해야 할 중대한 국방분야의 사명을 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5 년도까지의 전망목표로 시달한 군수생산계획이 수행되면 공화국의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히 증대될것이다.

새로운 유도기술을 도입한 전술탄도미싸일시험사격 참관하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2024 년 5 월 17 일 조선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싸일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기시험을 참관하시였다.

해당 시험을 통하여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되였다.

시험사격은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되여있는 군사전략적가치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고귀한 성과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해당 국방과학기술집단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창립 60돐을 맞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을 축하방문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군사강국건설위업을 견결한 혁명정신과 특출한 애국의지, 무비의 과학기술력으로 굳건히 담보하여온 종합적과학연구기지로서 새시대 국방공업혁명을 강력히 견인추동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자기의 자랑찬 발전행로에 예순번째 년륜을 긍지높이 아로새기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5 월 28 일 창립 60 돐을 맞이한 국방과학원을 방문하시고 국방과학전사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억척같이 떠메고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결단, 피타는 심혼과 열애로 부국강병의 력사적대업을 개척하여온 당의 국방과학

혁명령도사에 특기할 창립정주년에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김정은**동지를 과학원에 모시는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졌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열광의 환호가 세차게 분출하였다.

국방과학전사들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백절불굴의 화선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선견지명의 예지와 출중한 령도력, 드센 공격력과 강인담대한 배짱으로 조선식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과 도약대를 마련해주시고 국가와 인민의 존위와 안녕을 지켜가시는 주체조선의 힘이시고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께 우렁찬 환호로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 국방과학원 원장이 영접보고를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 국방과학원의 일군과 연구사가 전체 국방과학전사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대한 국가건설의 중핵적인 전략적보루, 인민군대의 현대화와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전초기지에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웅략을 가장 철저하고도 완벽한 연구성과로 받들어가는 빛나는 영예와 혁혁한 공훈속에 창립일을 의의깊게 기념하는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축하방문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자기의 특질로 하며 장성강화된 영예높은 국방공업을 과학과 기술로써 견인해가는 애국인재들의 모체기지를 뜻깊은 창립정주년에 방문한데 대한 기쁨을 피력하시고 장구한 혁명의 려정에서 국가의 위력과 존위를 백방으로 강화함에 과학기술력으로 공헌하여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의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국방과학재사들의 거대한 역할에 받들려 걸음걸음에 백승의 높은 권위와 영예를 전취할수 있었던 당의 자부에 대하여서와 투철한 애국신념으로 병기공업발전의 기초를 축성하고

숭고한 전통을 마련한 국방과학투사들의 영웅적공헌에 대하여 소급하시면서 공화국의 백승의 력사를 무장으로 담보해나가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의 튼튼한 초석으로 되여온 국방부문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의 업적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변혁과 기적창조로 급진해온 주체의 국방공업혁명의 전진도상에 조성된 국가의 엄중한 안전환경과 초급하게 제기되는 군력강화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날로 흉포해지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정치, 군사적도발광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신랄히 분석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는 전쟁억제력을 각방으로 더욱 강화하며 공화국무력을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힘의 실체로 그 위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제 2 차 국방공업혁명에서 과학기술두뇌진의 역할의 중요성과 국방력강화의 새로운 도약을 전제로 하는 투쟁의 새시대에 국방과학원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실천방도들을 명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의 전체 과학전사들과 일군들이 당중앙의 뜻과 의지로 더욱 힘있게 뭉치여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에서 보다 훌륭한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계속 높이 떨치며 혁명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에 언제나 충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국방과학전사들은 조국과 인민의 백년, 천년의 존엄과 명성을 담보하는 조선로동당의 불변한 국방력건설의지와 그로하여 도래할 자위적국방력과 전쟁준비강화의 새로운 대변혁에 대한 가슴벅찬 신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단히 발전향상되는 강력한 방위력이자 강국의 진정한 존엄이고 명함이며 공고한 평화이고 찬란한 미래이라는 신조를 백배로 가다듬고 줄기찬 분발력과 무궁무진한 슬기와 지혜로 당중앙이 제시한 국방력강화의 첨단목표들을 가속적으로 과감히 점령해나갈 충천한 열의에 넘쳐있는 국방과학전사들을 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의 빛나는 연혁의 갈피갈피에는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에 나라의 첫 병기과학연구소를 조직하시여 주체적국방과학의 창설을 선포하시고 1960 년대에는 당의 국방과학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해나갈 통일적인 국방과학연구기관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천리혜안의 예지와 걸출한 령도로 국방과학발전의 만년초석을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평생과 불후의 애국업적이 력력히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의 최우선적강화를 떠난 조선혁명의 그 어떤 발전과 성과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영원히 변할수도 탈색될수도 없는 만고의 진리이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전사들이 혁명과 미래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를 순간도 잊지 말고 당의 국방발전전략실현을 위해 계속 굴함없는 박차를 가하는것으로써 당을 따라 공화국의 주추를 강대하게 다진 자기의 전설적인 명함과 연혁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책임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국방과학원전시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목표는 세계최강의 전략적힘, 세기에 전무한 절대적힘을 틀어쥐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건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은 우리의 국호와 국기에 영원한 생명력을 부어주고 우리의 국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철두철미 주체라는 부름과만 결부시킬수 있는 무진한 위력이며 조국과 후대들앞에 참으로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줄기차게 걸어온 참된 애국자, 가장 정정당당한 위업을 수행하는 공산주의자들만이 획득할수 있는 진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이 공화국무력의 강세를 순간의 정체도 없이 최강으로 고도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혁명과 인민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 부단히 진화되는 새 세기 국방과학의 발전추이에 맞게 인민군대의 현대화목표와 그 수요에

상응한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축하방문을 기념하여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영웅중의 영웅, 애국자중의 애국자들로, 당중앙의 친솔부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를 감격의 눈물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의 과학연구진영이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 굳게 단결하여 더욱 용감한 기개와 당당한 자신심, 특유의 완강한 창조력으로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증대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믿음직하고 굳건한 안전환경을 철저히 담보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위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줄기차게 달성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위대하신 령도자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국방과학전사들은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을 터쳐올리며 최대의 애국인 국방력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총돌격해나감으로써 주체적인 첨단무장들을 끊임없이 개발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에 새기신 거룩한 령도의 자욱은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무궁발전의 근본담보인 불패의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지기 위한 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주체적국방과학발전의 중대한 리정표로 청사에 기록되였다.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무인기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8 월 24 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최근에 개

발하고있는 무인기들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리용되는 무인기들은 지상과 해상에서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있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군사과학의 추세로 보나 전장들에서의 전투경험으로 보나 각이한 류형의 무인기들을 개발하고 그 전투적성능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전쟁준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략정찰 및 다목적공격형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다를 끼고있는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높이 진행하여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은 몸소 무기시험장에 나오시여 무인기전력화와 무인기공업발전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끓어오르는 감격과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억척으로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있는 240mm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보아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8 월 27 일 제 2 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있는 240mm 방사포무기체계의 검수시험사격을 보

시였다.

기동성과 타격집중성에서 기술갱신된 방사포무기체계는 이날 진행된 검수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종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립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무기생산과 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는 사업에서 견지할 중요방침을 밝히시였다.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 2 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반년도 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군수공업정책을 충성으로 받들고 방대한 군수생산과제들을 책임적으로 정확히 집행해나가며 공화국무력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본때와 비상한 사상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며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생산하고있는 무장장비들의 구조적특성과 성능, 전술기술적제원을 료해하시면서 군수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제고하고 무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로동계급의 진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당 제 8 차 대회가 결정포치한 5 개년기간내의 무장장비생산목표를 확신성있게 점령할수 있는 전망성이 담보되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공업기업소가 군수생산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원칙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선박건조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박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과 배무이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최근에 진행한 선박건조공정의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군수공업정책과 선박공업정책을 정확히 관철해나가기 위해서는 선박공업전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현대화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이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추가조치들을 강력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박공업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갈 혁명적투쟁방향을 재삼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나라의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해군무력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거듭 이르시면서 선박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국방경제건설로선관철의 중요한 담보로,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또다시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8 차대회가 결정포치한 선박공업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당면과업들과 전망계획사업들이 과학적인 타산밑에 자기 시간표대로 진척되도록 이 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정책적 및 기술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핵탄생산 및 현행핵물질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무기급핵물질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망계획에 대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강의 핵무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억척으로 보위해나갈 견실하고 투철한 혁명정신과 신념을 간직하고 핵탄 제작에 요구되는 무기급핵물질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핵무기 생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의 공훈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라니움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시며 생산공정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심분리기들과 각종 수감 및 조종장치를 비롯하여 모든 계통요소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도입하여 핵물질현행생산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는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해도 힘이 난다고, 우리 당의 핵무력건설로선을 받들어 자위의 핵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자면 우리는 지금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분리기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능을 더욱 높이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분리기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핵물질생산토대를 더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무기현행생산을 위해 능력확장을 진행하고있는 공사현장도 돌아보시면서 설비조립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원자력부문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우리 당은 바로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를 핵의 위력으로 열어제낄 불타는 마음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원자력전사들을 믿고 핵무력건설의 새로운 중대전략을 제시하였다고, 우리 당에 충실한 붉은 핵과학자들은 당의 핵무력건설정책을 강인한 신념과 드높은 실력으로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핵위협책동들은 더욱 로골화되고 위험한계를 넘어서고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안전환경과 항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재삼 강조

하는바이지만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항상 견지하고 고도로 제고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가속적이며 확신성있는 전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력사적사명의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걸머진 핵무기생산부문의 전투원들은 생산투쟁에 계속 힘있게 분기함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자기의 임무를 더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술핵무기제작에 필요한 핵물질생산에서 보다 높은 전망목표를 내세우고 총력을 집중하여 새로운 비약적성과를 안아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말씀을 받아안은 전체 핵전투원들은 국가의 자주적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삶과 안녕, 주체혁명의 앞길을 견결히 수호해나갈 세계최강의 핵병기창을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며 그 성스러운 투쟁의 전초선에 자기들을 세워주신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조선식의 강위력한 핵무기들의 계속적이며 성공적인 탄생을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담보해나감으로써 당의 핵전략로선관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새형의 600㎜방사포차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600 ㎜방사포차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보시였다.

제 2 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는 군대의 작전운용상요구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킨 새형의 600 ㎜방사포차를 개발생산하였다.

포차의 주행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화력복무전공정을 완전자동화한 포차의 전투적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날 진행된 주행시험과 련발사격시험을 통하여 포차의 우수한 전투

적성능이 뚜렷이 립증되였으며 군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포차가 기존에 비해볼 때 기동성이나 효용성측면에서 우월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발사된 방사포탄들은 동해상의 섬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

창립 60돐을 맞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며

부국강병의 대업실현을 위한 장구한 혁명의 려정에서 나라의 종합적인 국방과학기술교육기지로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공화국의 강대무비한 자위력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하여온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 자기의 연혁사에 예순번째 년륜을 긍지높이 아로새기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0 월 7 일 주체적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인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하시고 창립 60 돐을 맞는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당의 원대한 군사강국건설구상과 백승의 령도력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장성강화되는 무진막강한 국가방위력과 더불어 사회주의조선의 존위와 명성이 세계만방에 과시되고있는 시기에 맞이하는 창립정주년에 **김정은**동지를 교정에 모시는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모교를 찾은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 공로있는 졸업생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열광의 환호성이 세차게 분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자위국방을 혁명수호와 발전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강철의 신념과 배짱, 선견지명의 예지와 정력적인 불멸의 령도로 공화국발전사에 가장 위대하고 존엄높은 강국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 국방종합대학 총장이 영접보고를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 대학의 교육일군과 학생이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

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굳건히 담보하는 무궁무진한 자위적국방력의 근원지인 국방종합대학에서 당의 원대한 군사강국건설위업을 견실한 혁명정신과 무비의 과학기술력, 자랑찬 학업성과로 받들어가는 미더운 교직원, 학생들을 따뜻이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종합대학 축하방문을 기념하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성스럽고 정의로운 사명을 안고 태여나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공훈과 학적으로 그 이름을 빛내여온 공화국최고의 국방과학기술학원이 창립 예순돐을 기념하게 됨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온 나라의 경사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전체 공화국무력을 대표하여 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종합대학은 혁명하는 당과 인민에게 가장 귀중한 전략적자원이라는 철리를 밝히시면서 60 년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견결한 혁명의지의 산아로, 강대한 힘을 키워 존엄과 부강의 백년대계를 당당히 세우려는 굳은 신념과 리상의 응결체로 탄생한 국방종합대학의 창립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와 긍지높은 연혁, 훌륭한 공적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이 상대하고있는 제국주의침략실체의 진면모와 변할수 없는 본성, 더더욱 광적으로 벌어지는 도발적행태들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적을 항상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수 있는 물리적힘을 가져야 한다는 공화국의 자위국방건설론리의 완벽함과 정당성을 론증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국방과학과 공업의 계속적인 도약을 이룩하고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무한대로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국방과학기술력의 절대적우세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이며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하시

면서 혁명사상의 힘, 결사항전의 정신을 재운 주체무기의 힘으로 전쟁과 패권,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새세상을 만들어야 할 중대한 력사적사명과 정의로운 위업을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국방종합대학의 기본임무와 그 실현을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종합대학을 군수공업과 국방과학의 미래를 대표하는 혁명인재, 세계적인 발명가들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최고전당으로, 권위있고 명성높은 국방과학연구중심으로 훌륭히 꾸려 조국의 무궁한 안녕과 강성번영을 담보해나가려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 졸업생들이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를 명심하고 숭고한 혁명정신과 교육진흥의 결실로써, 훌륭한 학업성과와 위력적인 실체들로써 혁명공업의 최강을 길이 떨쳐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참가자들은 위대한 혁명사상과 백절불굴의 정신, 값비싼 투쟁으로 전취한 국가의 백승의 권위와 영예를 굳건히 수호하고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위대한 투쟁방략을 밝혀주시고 국방력강화의 최첨단돌파에로 국방과학전사들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스승을 우러르며 일심충성의 환호성으로 화답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절대적사명감을 배가하여 당의 국방과학정책을 결사의 애국헌신과 줄기찬 분발력, 혁혁한 교육과학성과로 억척같이 담보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자위적국가방위사상의 권화로 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이라는 력사적진군이 개시된 1960 년대 전반기에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존위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의 창립을 선포해주시고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지닌 국방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만고불후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60 년간 180 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과

수십명의 최고훈장수훈자를 배출한 자랑찬 연혁은 자위국방의 력사적위업실현에서 핵심적, 중추적역할을 하여온 대학의 빛나는 공적의 축도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과 막강한 실력으로 국가의 전진로우에 백승의 포석을 깔아온 대학의 전설적인 명성이 세계최강의 군사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전렬에서 기치로 나붓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력의 성쇠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존망이 판가름되는 오늘의 세계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애국의지를 체질화한 국방과학기술인재대군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국가존립과 강성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대학에서는 조국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직결된 군수공업, 국방과학의 미래를 대표하는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것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종합대학을 공화국에서 제일 실력이 강한 대학우의 대학으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일류급의 연구형대학으로 전변시킬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삼 강조하시면서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훌륭히 일신하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립정주년을 맞으며 모교를 찾은 국방공업부문의 공로있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대학창립 60 돐을 맞는 교직원, 학생들과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화폭을 남기시였다.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몸소 대학에 찾아오시여 독창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새로운 국방교육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고 열화의 정을 부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감격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믿음의 자욱을 남기시고 대학을 떠나시는 **김정은**동지를 뜨겁게 환송하며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터치는 충성과 맹세의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시험발사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국가의 전면적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나가는 주체혁명위업은 가장 적대적이며 위협적인 적수국가들의 악랄한 도전과 가증되는 전쟁위기를 동반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들이 핵동맹으로 진화되고 최근 들어 사상최대, 력대 최고를 기록하고있는 미제와 한국의 광적인 무력증강과 도발시도들, 공화국정권을 표적으로 하여 때없이 람발되는 위협적인 망언들은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있었으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참을수 없는 분노와 보복의지를 촉발시키고있었다.

적아간의 힘의 균형의 파괴가 곧 전쟁이라는 력사의 교훈적인 법칙을 심각히 상기시켜주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항상 적을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수 있는 절대적힘의 필수성과 그 부단한 제고의 당위성을 더욱 뚜렷이 확인시키고있으며 그 어떤 군사적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적의 도발기도와 전쟁의지를 사전에 제압분쇄할수 있는 억제력으로서의 전략무기의 줄기찬 갱생창조를 요하고있었다.

미국과 추종무리들의 침략적성격의 모험주의적인 군사적준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선택과 그 강력한 실행의 절박성이 더욱 부각되고있는 시기에 날로 급진비약하는 공화국핵전투무력의 절대적강세를 과시하는 새로운 실체가 또다시 출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의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미싸일총국에 하달하시고 2024 년 10 월 31 일 아침 공화국전략무력의 절대적우세를 영구화하는데서 획기적리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한걸음도 양보하지 말

아야 할 평화수호의 의무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전쟁과 패권,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새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증대시켜온 조선의 힘과 정신으로 빚어낸 초강력의 절대병기가 세계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힘의 태동을 일으키며 려명이 밝아오는 화선에로 진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절대적안전, 발전권을 철저히 수호해야 하는 가장 숭고하고도 무거운 사명을 지니신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발사장에 나가시여 전략무기시험발사준비정형과 계획을 료해하시고 중앙지휘감시소를 차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갱신한 새로운 초강력공격수단,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싸일이 자태를 드러낼 력사의 시각을 앞둔 발사장은 세계최강에 도달한 공화국전쟁억제력의 과시로써 반공화국핵대결야망에 헷떠있는 가장 포악한 적수들을 전률케 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전략미싸일병들의 의지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세계최강의 전략미싸일의 가공할 위력을 과시할 순간이 도래하였다.

발사준비끝!

김정은동지께서 최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 승인하시자 미싸일총국장은 영예의 제 2 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하달하였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굉음과 함께 지구상의 온갖 악과 불의를 다스릴 조선인민의 활화로 치솟는 멸적의기와 적개심을 재워안은 절대적힘의 실체가 거세찬 화염으로 지면을 눌러딛고 위압적인 자태를 떠올렸다.

발사된 미싸일은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최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 전략미싸일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건설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전략무력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9》형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데서 제 1 의 핵심

주력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또한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나가는 로정에서 필수적공정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고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강화책동과 각양각태의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고, 우리는 그 어떤 위협이 국가의 안전영향권에 접근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안전상황과 가증되는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은 우리로 하여금 현대적인 전략공격무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며 핵대응태세를 더욱 완벽하게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강화로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것임을 재삼 명백히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무비한 전략핵공격능력을 만천하에 유감없이 소개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당과 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최고의 감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을 다스릴수 있고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이며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국가핵무력강화로선관철에서 국방과학부문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요구를 관철함에 항상 충직하고 절대적인 국방과학기술집단이 보다 훌륭한 국방발전성과들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에 언제나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국가의 절대적위세를 또 한번 들어올린 력사의 지점에서 이 위대한 사변의 주인공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국방과학집단과 전략미싸일병들은 주체혁명의 병기창을 더욱 불

패의것으로 강위력하게 다져나가며 국가의 핵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기백배 헌신분투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무인항공기술련합체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1 월 14 일 무인항공기술련합체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 새로 개발되고있는 공격형무인기들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시험을 보시였다.

지상과 해상의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리용할수 있게 제작된 자폭공격형무인기들은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있다.

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타격권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정밀타격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개발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무인항공기술련합체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군수부문에 결정지시한 사항들을 추진하는데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하루빨리 계렬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적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있다고, 군사활동에서 그 사용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있으며 생산비용이 적고 생산공정이 단순한것으로 하여 새로운 령역에서 타격력의 한 구성부분으로 활용하는것이 용이해지고있다고, 무인기들이 크고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있다는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있을것이라고,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등장한 추이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같은 객관적변화는 군사리론과 군사실천, 군사교육의 많은 부분을 갱신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제기하고있으며 우리 국방과학 및 교육부문이 신속한 행동실천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각이한 무인기들을 생산도입할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법상측면에서도 새롭고 유망한 전술조법들을 결합적용할 전망성을 찾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최근 우리당은 군사정책적으로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을 작전방안들과 교전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로선을 중시하며 계속 보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무인무장장비발전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피력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중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무인항공기술련합체사업에 대한 현장실무지도는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의 질적인 발전도약을 강력히 추동하고 그 절대적우세로 전방위적공간에서 잠재적인 도전과 위협들을 능동적으로 억제관리함으로써 공화국의 주권과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준 리정표적인 계기로 되였다.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에 참석하시여 기념연설을 하시며

위대한 조선로동당은 력사적인 제 8 차대회에서 국방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인민군대를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만들데 대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을 선포하고 군사기술강군화를 목표한 제 2 차 국방공업혁명을 강력히 주도하여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억제력고도화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최중대선결과제로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완강히 견인추동하여 나라의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질량적, 기술적변혁을 련속적으로 가속화함으로써 국권수호, 평화수호의 초강력적인 전력을 부단히 증대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계를 모르는 강대한 힘의 증대, 거대한 급진도약의 위세를 과시하며 2024 년 11 월 21 일 수도 평양에서는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가 성황리에 개막되였다.

전시회에는 현대성과 선진성, 타격의 정밀성과 위력에 있어서 또 한번 갱신진화되고 련속적인 신종개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략무기, 전술무기들을 기본으로 하여 공화국 국방과학기술집단의 최신창조물들이 집결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행사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천재적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가 숙원하는 부국강병의 력사적대업성취를 위한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향도하시는 강대무비한 조선의 힘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공화국무력의 절대적인 신뢰와 경의심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분출되였다.

개막식을 기념하여 공군비행대의 시위비행이 있었다.

평양의 하늘가에 환희로운 삼색비행운이 새겨졌다.

무장장비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군수부문 지도간부들, 국방성 지휘관들과 함께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열렬한 박수가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 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부국강병의 로정에 또 하나의 리정표를 세우게 되는 이 시각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새시대를 펼치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이 무비할 존엄과 힘을 지닐수 있게 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우리모두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강위력한 힘의 실체들에 어려있는 열화같은 애국정신과 무한대한 창조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안아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을 선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전시회가 가지는 정치군사적의의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국방분야에서의 혁혁한 성과들은 적들이 우리에게 가해오고있는 각이한 위협들뿐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전망적인 안보위협들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수 있는 능력과 안전담보를 확고히 가지고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하며 우리 국방공업은 혁명의 매 단계, 매 시기, 매 정황이 요구하는 군사활동들을 가장 적실하고도 철저하게 받침하는 첨단공업에로 갱신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튼튼히 지키는 전략적인 보루로 더한층 강화되게 되였다고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한 우리 국가안전환경이 요구하는만큼 각종 무장장비들을 계속 갱신하고 첨단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보다 높은 군사기술력,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함에 모든것을 다하여 튼튼한 국방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수호를 위한 정의로운 힘의 력사를 줄기차게 새겨가시는 희세의 령장께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드리며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성업에 일심매진할 엄숙한 결의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무장장비들을 돌아보시며 백전필승하는 조선혁명의 억센 숨결을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기 위해 당의 붉은 국방전사들이 진함없이 바쳐가는 고결한 애국충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의 무진한 군사기술적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뒤받침하는 자립적방위산업의 경이적인 진보는 그 어떤 고생과 시련도 강인하게 이겨내며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당 강군건설로선과 국방정책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값비싼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력의 장엄한 발전상과 눈부신 전망성을 과시하며 성대하게 개막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세계를 굽어보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리상, 조선의 힘에 대한 자부심을 배가해주고 전면적국가부흥을 향한 조선인민의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고무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기념음악회를 관람하시며

공화국의 강대함을 또 한번 긍지롭게 떨치는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2024 년 11 월 21 일 밤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각 군정기관의 주요지휘관들, 군수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일군들, 조선인민군 제 4 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천만년미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부국강병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력사의 장로에 위대한 복무와 결사분투의 자욱을 거룩히 새겨가시며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이 성취되는 국가방위력강화의 영웅전기, 강국건설의 새로운 격변기를 펼쳐가시는 천하제일명장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격정의 환호성으로 분출되였다.

종합군악례식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수령송가들과 혁명군가들, 조국찬가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결코 쉽게는 지켜낼수 없었던 국권수호의 력사적중임을 떠메고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라는 성스런 글발이 새겨진 영광의 군기높이 수령보위의 제일결사대, 공화국정권의 수호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랑스러운 연혁을 빛내여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전투정신, 숭고한 애국주의를 격동적인 음악세계에 담아 구가하였다.

사상적으로 정예화되고 무장에서 최강인 혁명무력의 전위적역할에 의거하여 조국과 인민이 쟁취한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사에 대한 추억을 불러오는 곡목들에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도, 자주와 정의, 진정한 평화도 무비의 자위력에 의해서만 굳건히 담보되며 세기를 이어 떨쳐온 위훈과 공적우에 더욱 견결히 수호해나가야 할 국가의 존엄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강성의 꿈과 리상이 있음을 공연은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이 땅의 천만운명을 품어안고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친근하신 어버이의 은혜로운 품,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충성다해 받들어갈 온 나라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을 분출시킨 기념비적찬가들로 절정을 이룬 음악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끝났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절대적권위와 주체위업의 필승불패성을 세계최강의 군력으로 결사옹위해갈 맹세드높이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으로 공연장소는 또다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음악회는 뜻깊은 전시회개막의 밤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4.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시며

1) 조로친선의 전면적개화기를 펼치시며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관계가 국제적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다극화된 새 세계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보루로, 견인기로 부상되고있는 중대한 시기에 조로친선단결의 불패성과 공고성을 다시금 뚜렷이 증시하며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또 한차례의 력사적인 상봉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하게 될 평양국제비행장은 열렬한 환영일색으로 단장되여있었다.

국기게양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련방 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3 년 9 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의 상봉에 이어 뿌찐동지와 270 여일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는 평양방문이 이루어진 기쁨을 피력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따뜻이 맞이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뿌찐동지에게 녀성근로자가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동지를 숙소까지 안내하시기 위하여 대통령전용차에 동승하시였다.

황홀한 야경으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들을 누비시면서 최고수뇌분들께서는 그동안 쌓인 깊은 회포를 푸시며 이번 상봉을 기화로 조로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의지대로 보다 확실하게 승화시키실 의중을 나누시였다.

조로최고수뇌분들께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도착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동지를 몸소 안내하시며 따뜻한 담소를 이으시였다.

전통적인 조로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전면적발전의 주로에 확고히 들어선 괄목할 시기에 진행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력사의 검증속에서 다져진 조로관계의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추동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인 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견인하는 중요한 행보로 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함께 환영공연을 관람하시며

조로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위한 성대한 환영공연이 2024 년 6 월 19 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울라지미르 뿌찐동지를 맞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뿌찐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두 인민들의 공동의 복리와 발전번영, 진정한 국제적정의와 평화를 위한 성업을 새로운 전략적단계에 올려세우시고 줄기찬 성공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최고수뇌분들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종합군악례식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력사의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년대들에 높이 발휘된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기개와 숭고한 애국주의정신, 민족적정서를 담은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자주로 존엄떨치고 자립, 자위로 세기적승리와 거창한 변혁을 이룩하며 부국강병의 대업을 성취해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위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헌신의 감정, 부흥강대한 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로씨야인민의 강렬한 지향을 진실하게 반영한 로씨야명곡들은 관중의 심금을 울리였다.

남성합창으로 울려퍼진 로씨야노래 《정의의 싸움》은 뿌찐동지의 령도밑에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주권적권리, 안전과 발전리익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애국주의를 발휘하고있는 로씨야인민과 군대에 대한 전투적격려로 되였다.

무대에 펼쳐지는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선률과 춤률동에 맞추어 관람자들이 두 나라 국기를 흔들고 환호하며 친근한 린방의 귀중한 벗에 대한 경모의 정을 분출시켰다.

세련된 정치실력과 강인한 의지로 사회와 인민을 단합시키고 국력을 강화하면서 강력한 로씨야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의 초상이 배경대에 형상되였다.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상과 위업의 필승불패성과 친선의

정을 구가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뿌찐동지께서는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뿌찐대통령동지는 대단히 훌륭한 공연을 관람하고 감동된 심정을 피력하면서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김정은**동지께 부탁하였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형제적로씨야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친근한 정과 우애를 환희로운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훈장을 수여하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략적동반자관계, 불패의 동맹관계로 승화발전시키며 조로친선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데서 커다란 공적을 이룩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할것을 결정하였다.

뿌찐대통령동지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하는 의식이 2024 년 6 월 19 일에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의 관계발전과 미래를 위해 특출한 공적을 쌓은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에 대한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가장 높은 표시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하게 되는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훈장수여에 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결정을 전달하시고 직접 훈장을 수여하시였다.

뿌찐동지는 **김정은**동지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뿌찐동지와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에 이어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친교를 두터이 하시였다.

뿌찐대통령동지가 **김정은**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구내길을 달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물받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시며 훌륭한 차를 선물로 받은데 대하여 다시금 대통령동지에게 사의를 표하시였다.

장미원과 정원으로 이어진 산책길에서 조로최고수뇌분들께서는 친근하고 진솔한 우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평양에로 이어진 뜻깊은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새시대 조로관계발전의 강력한 초석을 마련한 감회와 기쁨을 나누시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인 동반자관계,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공동의 핵심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계획들을 토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뿌찐동지께서는 이번 평양상봉을 계기로 공동의 리상과 목표실현을 위한 중요문제들에서 만족한 견해일치를 이룩한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훌륭한 력사와 전통을 토대로 하는 조로선린우호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계속 활력있게 추동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영빈관 정원에서 뿌찐대통령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견인 풍산개 한쌍을 선물하시였다.

뿌찐대통령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였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평등과 주권존중, 선린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한 국가간조약이 조인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께서 2024 년 6 월 19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시였다.

조인식에는 조로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께서 조약에 서명하시고 조약문을 교환하시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축하의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관계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뿌찐동지와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것과 관련하여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의 친선사절들의 발걸음이 와닿은 여기 평양을 온 세계가 비상한 관심속에 지켜보는 이 시각 가장 진실하고 친근한 전우인 로씨야동지들과 뜻깊은 자리를 나란히 함께 하고있는 감개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조로친선관계발전사에 영구히 빛날 조약에 서명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는 중대한 사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뿌찐대통령동지와 함께 조로 두 나라의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오늘뿐아닌 미래를 대비하여 심원한 전략적무게와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을

책임적으로 이룩하였다는 자부심으로 하여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약이 체결됨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이로 하여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안정환경을 굳게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로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법적기틀이 마련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의 호상협력확대로써 두 나라의 진보와 복리에 이바지할수 있는 보다 훌륭한 전망적발전궤도우에 올라서게 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관계력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의 탄생은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뿌찐동지의 탁월한 선견지명, 과감한 결단력과 의지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관계발전청사의 분수령으로 될 위대한 조로동맹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력사의 닻을 올리며 장엄한 출항을 알리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로씨야련방과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불패의 동맹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의 조약상의무에 언제나 충실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에 체결된 강력한 이 조약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증진시키고 수호하기 위한 매우 건설적이고 전망적이며 철저히 평화애호적이고 방위적인 조약으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과 강권이 없는 다극화된 새 세계창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으로 되리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두 나라 인민들과 후대들의 영원한 친선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모든 력사적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량국앞에 이미 도래하였고 또 앞으로 맞다들 임의로운 다사다변과 국난을 일치된 공동의 노력으로 타파하기 위한 의무리행에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차이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것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의지를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는 로씨야련방은 전통적으로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로조관계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있다고 하면서 수십년간 조선과 여러 분야에서 호상협조발전의 거대한 경험을 축적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뿌찐동지는 로조사이에 조인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달성된 상태에 머물러있지 않고 로조관계를 새로운 질적수준에로 끌어올리려는 두 나라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사실상의 돌파구적인 문건이라고 언명하였다.

뿌찐동지는 로씨야도 조선도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공갈과 강요의 언어를 용납하지 않고있으며 정치적동기로 제재와 제한조치들을 실시하는것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하면서 서방이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의 자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써먹는 수법인 제재압살책동에 계속 대처할것이며 이 맥락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사촉을 받은 유엔안보리사회의 무기한의 대조선제한조치는 재검토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반도지역의 긴장격화의 기본원인은 한국과 일본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의 참가밑에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는 미국의 대결정책에 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정세악화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려는 시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뿌찐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며 자주권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무장분쟁재발위협을 제거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원칙에 기초하여 이 지역에서 장기적인 평화 및 안정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정치외교적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뿌찐동지는 오늘 조인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이 문건의 체약국들중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지원을 제공하는것도 예견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련방은 조약에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기술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뿌찐동지는 회담이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과 동반자관계의 가일층발전과 모든 지역의 안전강화에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김정은**동지와 전체 조선의 벗들이 훌륭한 환대를 베풀고 유익한 공동사업을 조직해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였다.

조로최고수뇌분들께서는 이 뜻깊은 조약조인식이 금후 조로관계발전의 백년대계와 함께 그 의의가 더 선명해지고 부각될 전략적선택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슬기로운 두 나라 인민들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는 잊지 못할 계기로 되기를 기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시대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불패의 동맹관계로 비상히 승화발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강력한 동지적단결과 전투적우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념원하는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며 그 위대한 생활력을 만방에 떨쳐나갈것이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에 참석하시여

형제적인 로씨야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한 평양은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수도의 고층, 초고층건물들에는 거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련방 국기가 드리워져있는 속에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대형초상화가 걸려있었으며 곳곳에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동지를 환영합니다》, 《환영 뿌찐》, 《불패의 조로친선단결 만세!》, 《조로친선은 영원하리!》 등의 구호와 표어들이 반영된 선전화, 환영립간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아름다운 꽃들로 특색있는 화단들과 무리기발, 오색기 등으로 단장된 수십리연도는 친근한 린방의 가장 귀한 벗을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각계층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동지가 탄 전용차가 모터찌클

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을 나서자 연도마다에서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군중들은 지리적차이는 있어도 공동의 위업을 위해 전적인 지지와 사심없는 성원으로 친선협조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과감히 열어나가는 조로사이의 전투적, 혈연적뉴대에 대한 소중한 감정을 안고 환영의 구호를 웨치며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열정적으로 흔들었다.

려명거리와 개선거리, 조로인민의 전투적우의의 상징인 해방탑이 서있는 모란봉기슭의 연도를 비롯하여 차행렬이 지나는 거리마다에서 시민들은 뿌찐동지에게 각별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표시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2024 년 6 월 19 일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였다.

이날의 성대한 의식을 위하여 품위있게 장식된 광장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련방 국기가 휘날리고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명예기병대, 국방성중앙군악단이 정렬해있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국방성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시민들과 조선인민군 장병들, 청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손에손에 두 나라 국기와 꽃송이들을 들고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환영의식장소에 나오시였다.

정각 12 시, 뿌찐대통령동지가 탄 차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동지에게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을 소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측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시작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뿌찐동지와 함께 단상에 오르시자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21 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뿌찐동지에게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뿌찐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환영의식이 끝나자 우렁찬 환호속에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6월의 화창한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조선인민군 공군비행대가 로씨야련방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연무를 뿌리며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뿌찐동지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번 평양방문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극진히 환대해주시는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온 광장이 환희의 꽃물결, 춤바다로 설레이는 속에 **김정은**동지께서와 뿌찐동지께서 무개차에 오르시였다.

군중들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공고하고 참다운 조로친선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며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면적이며 전략적인 강화발전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시는 최고수뇌분들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로최고수뇌분들께서는 군중들의 앞을 지나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유서깊은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은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 진정한 전우관계를 뚜렷이 과시한 력사적화폭으로 새겨졌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2024 년 6 월 19 일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에는 수행원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뿌찐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로 조로친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을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새 천년기를 맞이하던 24 년전 그때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을 다시 찾은 존경하는 뿌찐대통령동지와 로씨야의 모든 벗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시면서 로씨야정부와 인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숭고한 경의와 따뜻한 형제적인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친선관계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국가간조약체결이라는 위대한 사변이 일어난 력사적인 날에 조선인민의 최대의 국빈인 뿌찐동지를 환영하는 연회에 모두가 자리를 같이 한데 대한 감개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관계발전행로에서 오늘과 같은 중대한 사변을 맞이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뿌찐대통령동지의 결단과 노력, 세심한 관심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하시고 조로관계의 새 전기를 써나가며 두 나라 인민들의 영원한 복리와 백년미래를 담보해나가려는 자신의 의지를 명백한 실천으로써 유감없이 보여준 뿌찐동지에게 다시한번 충심으로부터의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동반자로, 동맹국으로 두고있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새 국가간조약의 기초우에서 로씨야련방과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긴밀히 지지련대하면서 불패의 조로친선관계를 영속적으로 승화발

전시켜나가려는 공화국정부의 불변의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가장 친선적인 린방인 로씨야의 끊임없는 륭성과 부흥번영을 위하여, 세상이 부러워할 불패의 조로친선관계의 영원불멸함을 기원하여, 연회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하시였다.

이어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답례연설을 하였다.

뿌찐동지는 훌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도록 초청해준데 대해 **김정은**동지께와 조선의 모든 벗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뿌찐동지는 친절한 연회가 마련된것과 관련하여 받아안은 감동에 대하여 피력하고 오늘의 회담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려는 서로의 관심을 확인하여주었다고 언급하였다.

뿌찐동지는 지금 순탄치 않은 세계정세속에서 두 나라는 전세대들에 의해 마련된 영광스러운 전통들에 기초하여 동지적관계와 형제적지원, 선린협조의 뉴대를 계속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지역과 세계전반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적극 협력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패권과 신식민주의적실천을 반대하여 그리고 조로 두 나라와 인연이 없는 발전모델과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시도들에 대항하여 함께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뿌찐동지는 로씨야와 조선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민적예지가 두 나라사이 관계의 성격을 반영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뿌찐동지는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 및 협조의 가일층 강화를 위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와 번영을 위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와 연회에 참석한 조선벗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하였다.

연회는 시종 우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회담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6 월 19 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동지와 함께 금수산영빈관에서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석상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친선과 우의의 정을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평양의 거리에 차넘치였던 뜨거운 환영의 열파는 새로운 전면적개화기를 펼친 두 나라 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뿌찐동지의 이번 방문이 조로선린우호관계발전과 두 나라 인민들의 우정과 민심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의의있는 전략적인 행보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패권정책을 짓부시고 세계의 전략적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다극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로씨야련방이 지니고있는 중대한 사명과 역할을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에 대처하여 로씨야 지도부와의 전략적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며 불패의 조로친선과 단결의 반석을 굳건히 다져나갈것임을 확언하시였다.

뿌찐대통령동지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의 초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의 력사적인 상봉이후 로조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뿌찐동지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근면한 조선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수도 평양이 몰라보게 변모되고 매우 아름다와진데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평양시민들이 보여준 진정넘친 환영에 크게 감동되였다고 말하였다.

뿌찐동지는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공고한 친선과 긴밀한 선린관계가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어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이 매우 효과적일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로최고수뇌분들께서는 2023 년 9 월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기 위한 실천행동조치들을 계속 확대해나가며 두 나라사이의 다방면적인 쌍무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호상신뢰를 증진시켜나가기 위한 전망계획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론의하시였다.

회담에서는 최근시기 세계정치무대에서 일어나고있는 중대한 변화들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견해일치를 보았으며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핵심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협조와 전술적협동을 가일층 심화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또한 조선반도지역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도발적행위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에 대한 로씨야정부의 심중한 우려가 표시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하여 로씨야정부와 인민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이 재확인되였다.

전원회담에 이어 **김정은**동지와 뿌찐동지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동지와 무려 2 시간을 마주하시고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시였다.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올려세우며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토의하시고 완벽한 견해일치를 보시였으며 지역과 세계평화, 국제적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에 관해 만족한 합의들을 보시였다.

회담은 시종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이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기념하여 선물을 전해드리시였다.

뿌찐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최대의 성의를 담아 마련한 선물을 **김정은**동지께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사이의 력사적인 평양회담은 반제자주를 리념적기초로 하여 정의와 진리의 길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두 나라 인민들의 강국건설위업에 거대한 활력을 부어주고 조로친선과 전략적협조관계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으로 된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해방탑을 찾으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2024 년 6 월 19 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방탑에 나오시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맞이하시였다.

해방탑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뿌찐동지는 국제주의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고 조선의 해방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쏘련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조로 두 나라 인민들과 군대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투적우의와 친선은 영원불멸할것이며 로씨야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고귀한 희생정신과 위훈은 해방탑과 더불어 조선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따뜻이 환송하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2024년 6월 19일 밤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오랜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자랑하는 조로친선협조관계사에 새로운 페지를 아로새긴 이번 평양상봉에서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숭고한 리념으로 굳건한 동지적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시였으며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공고히 하고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결실들을 이루어내시였다.

이날 뿌찐대통령동지와 로씨야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각별한 경의심과 진실한 우의의 정이 차넘치는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친근하고 귀중한 벗들을 바래워주었다.

자주와 평화,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로씨야인민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 조로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조선인민의 의지가 환송의 연도마다에 세차게 굽이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련방 국기가 나붓기는 평양국제비행장 정류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수많은 군중들과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물결을 이루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바래워주시기 위하여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와 대사관 성원들이 나와있었다.

친근한 린방의 벗들을 태운 차행렬이 시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로씨야련방 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함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뿌찐동지는 환송나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록 길지 않은 체류기간이였지만 뿌찐동지와의 진실한 동지적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고 새시대 조로관계의 주석을 굳건히 하는 훌륭한 합의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정말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력을 최대로 중시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강대한 국가건설과 자주와 정의를 위한 로씨야의 성업을 전적으로 지지성원할것이며 뿌찐동지와 로씨야인민의 곁에는 언제나 자신과 조선인민이 함께 있을것이라고 따뜻이 말씀하시며 귀로의 안녕을 축원하시였다.

뿌찐동지는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이 최고의 성심을 다해 극진히 환대하여주고 성대한 행사들을 성의껏 조직하여준데 대하여서와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서 이번 평양방문이 훌륭하고 만족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사의

를 표시하였다.

조로최고수뇌분들께서는 새로운 전략적높이에 올라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협조관계와 전투적단결을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나갈것을 약속하시며 뜨겁게 포옹하시고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뿌찐동지의 전용기가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하였다.

뿌찐동지는 이날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정백사원을 찾았다.

위대한 조로친선단결사에 가장 빛나는 페지를 아로새긴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평양방문은 강대한 국가건설목표를 내세우고 나아가는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의 진보와 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 중대한 계기로 된다.

알렉쎄이 크리보루츠꼬 로씨야련방 국방성 부상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만나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7 월 18 일 알렉쎄이 크리보루츠꼬 로씨야련방 국방성 부상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부상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보내는 정깊은 인사를 전하시였다.

석상에서는 호상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사이의 군사분야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을 벌리고있는 로씨야인민들과 군대에 전투적인사를 보내시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6 월에 진행된 조로평양수뇌상봉의 중대한 의미를 다시금 평가하시고 오랜 력사적전통과 전투적뉴대로 이어진 두 나라 군대가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시대 조로관계를 힘있게 인도하며 지역과 세계평화, 국제적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국해방 79돐에 즈음하여 해방탑을 찾으시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79 돐에 즈음하여 2024 년 8 월 15 일 해방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해방탑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로씨야련방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쏘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해방의 력사적성업실현에 고여진 쏘련군장병들의 위훈을 경건히 추억하시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과 중흥에서 근본적전환을 안아온 위대한 조국해방사에는 로씨야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불멸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있으며 붉은군대 장병들의 영웅적군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진정한 국제주의의 참된 귀

감으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두 나라 인민과 군대사이에 맺어진 전투적우의와 단결은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패권을 짓부시기 위한 장구한 투쟁려정에서 자기의 불패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80 여성상에 이르는 훌륭한 력사와 전통, 혈연의 뉴대는 오늘 조로친선협조관계를 가장 공고한 전우관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로 승화시킨 근본초석으로, 두 나라의 강국건설과 다극화된 새 세계창설을 추동하는 무진한 힘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국가간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어깨겯고 투쟁하는 조선과 로씨야 인민들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이 두 나라 선렬들의 고귀한 넋과 더불어, 전면적개화의 새시대와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만나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9 월 13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쎄르게이 쇼이구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1 년만에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신 후 친선적이며 신뢰적인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친근한 인사를 쇼이구동지가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전략대화를 계속 심화시키며 호상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정세

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상정된 문제들에 관해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6 월 조로평양수뇌상봉에서 이룩한 합의에 따라 두 나라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로씨야련방과의 협력과 협조를 더욱 확대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또다시 접견하시고 건설적인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전송하시면서 뜨거운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건강과 사업에서의 성과를 축원하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당부하시면서 로씨야인민의 승리와 번영,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시였다.

로씨야련방 자연부원생태학상 알렉싼드르 꼬즐로브동지를 만나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1 월 18 일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 11 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정부대표단 단장인 자연부원생태학상 알렉싼드르 꼬즐로브동지를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알렉싼드르 꼬즐로브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조약이 체결된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련대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심화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전략적높이에 올라선데 맞게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계속 다각

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호상 강력히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화기롭고 진지하며 벗들사이의 따뜻한 감정과 친근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환영하여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2024 년 11 월 29 일 저녁 4.25 문화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련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쏘브동지가 인솔하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벨로우쏘브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맞이하였다.

연회에서는 노광철동지가 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영용한 로씨야군대의 전체 장병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병들의 이름으로 뜨거운 전투적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는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각별한 동지적친분관계에 의하여 조로친선이 불패의 동맹관계, 전우관계로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나라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로씨야인민과 군대의 정의의 성전을 전폭적으로 가장 강력히 지지성원하는 조선로동당과 정부, 공화국무력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의지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연설자는 벨로우쏘브 국방상동지의 이번 평양방문이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전선의 한전호에서 날로 굳건해지고있는 두 나라 군대의 전투적우의와 단결을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군사정치적계기로 될것이라고 언급하

였다.

이어 안드레이 벨로우쏘브동지가 답례연설을 하였다.

그는 로조 두 나라 군대는 오래고도 훌륭한 협조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면서 자주와 정의에 도전하는 현시대의 온갖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불패의 동지적뉴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맺어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제국주의의 온갖 침략과 전횡으로부터 두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고 귀중한 로조친선관계를 다각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추진력을 제공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로씨야인민들과 군대가 제국주의의 패권전략에 맞서 벌리는 성전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전투적련대성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시하면서 그는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 로조 두 나라의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은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 두 나라 무력사이 협조관계의 가일층 확대강화를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시종 동지적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만나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11 월 29 일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쏘브동지를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5 개월만에 평양을 다시 찾은 벨로우쏘브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친선적이며 신뢰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친근한 인사를 벨로우쏘브동지가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뿌찐동지에게 보내는 따뜻한 동지적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국방분야를 비롯하여 조로 두 나라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가일층 심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하여 량국의 주권과 안전리익,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벨로우쏘브 국방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은 두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안전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 및 호상협조, 관계발전을 추동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발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최근 미국이 취한 반로씨야적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과 서방이 끼예브당국을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타격무기들로 로씨야령토를 공격하게 한것은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개입으로 되며 반로씨야전쟁의 침략적인 실체로 전면에 부상한 이상 로씨야가 적대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것은 정당방위권행사로 된다고 하시면서 미국을 위시한 도발세력들이 로씨야의 경고를 무시하여 리로울것이 없다는것을 명백한 행동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로씨야정부와 군대가 결행한 대우크라이나대응타격은 무분별한 군사모험주의에 매달리는 미국과 서방, 우크라이나에 사태의 심각성과 로씨야의 강경대응의지를 알리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들과 군대는 앞으로도 제국주의패권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로씨야련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력한 조로관계는 량국인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

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장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지난 6 월 조로평양수뇌상봉에서 이룩한 합의에 따라 두 나라 관계를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제반분야에서 보다 활력있게 확대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로씨야정부와 인민들과 군대에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시면서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것을 다시금 확언하시였다.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며

자주와 정의실현을 공동의 리념으로 하는 불패의 동맹관계, 전략적동반자관계로 승화발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긴밀한 뉴대는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각별한 동지적우의와 신뢰속에 전면적개화기를 펼치며 날로 더욱 굳건해지고있었다.

친선의 정을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로씨야련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쏘브동지와 그가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연이 2024 년 11 월 29 일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의 벗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쏘브동지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였다.

남성합창과 군악례식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신성한 조국의 존엄과 영광을 위해, 위대한 승리를 위해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떨쳐온 조로 두 나라 인민과 군대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담은 명곡들이 올랐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견결히 수호해나가고있는 로씨야인민과 군대의 강용한 기

상을 반영한 《정의의 싸움》, 《나의 로씨야》, 《어머니조국》을 비롯한 노래들은 관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연은 조로 두 나라 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의 필승불패성과 로씨야인민과 군대에 대한 조선인민들과 인민군대의 전투적우의를 잘 보여주었다.

2)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주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4 월 13 일 《조중친선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친선적이고 건설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조락제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축원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당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75 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진행된 이번 중국당 및 정부대표단의

평양방문은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중국의 고위대표단과 큰 규모의 예술단이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해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이채롭고 성과적이며 빛날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훌륭한 계기를 또 한번 성대하게 장식할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준 습근평총서기동지와 중국당과 정부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시였다.

조락제동지는 평양방문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별한 관심과 조선당과 정부의 극진한 환대 그리고 조선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직접 느낄수 있었다고 감동된 심정을 피력하면서 대표단이 이번 방문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고도로 중시하시며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신 **김정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락제동지와 《조중친선의 해》를 계기로 두 당, 두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활력있는 뉴대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할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론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을 세기와 년대를 이어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자신의 일관한 립장이며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이 굳건한 친선의 전통을 줄기차게 계승발전시켜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두 당, 두 나라의 공통된 의지가 《조중친선의 해》의 책임적인 진전과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이 중국공산당 제 20 차대회가 제시한 과업들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훌륭한 축원을 전하시면서 형제적중국인민이 습근평총서기동지의 령도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는 올해에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을 위한 력사적임무수행에서 보다 빛나는 진일보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절하고 진지하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습근평총서기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조락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성과를 축하하여 잔을 들자고 제의하시였다.

단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오찬석상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락제동지와 대표단성원들과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우애를 더욱 두터이 하시였다.

오찬은 시종 화목하고 따뜻한 감정이 흘러넘치는 속에서 진행되였다.

중국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를 관람하시며

조중친선관계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페지를 아로새기며 평양에서 열린 《조중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가하였던 중국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가 2024 년 4 월 13 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4 년 4 월 13 일 저녁 특별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중국중앙민족악단은 대규모 민족관현악단과 국내의 유일한 전문민족합창단을 보유하고있는 국가급예술단으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특별음악회무대에는 민족관현악 《국풍》, 성악과 기악 《초심을 잃지 않으리》, 민족관현악과 합창 《나의 조국》을 비롯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과 민족부흥위업을 추진해나가는 중국인민의 투쟁과 애국주의정신을 반영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고음이호와 기악 《량산백과 축영대》, 비파협주곡 《복이 하늘만큼 가리》 등은 독특한 음색과 연주기법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출연자들은 조선노래 《평양을 나는 사랑해》, 《바다만풍가》를 감명깊게 불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합창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가 특별음악회의 마감을 의의있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출연자들에게 전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여 중요예술인들을 만나시고 특색있는 공연으로 날로 개화만발하는 조중친선을 격조높이 구가한 전체 출연자들을 따뜻이 축하하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1 돐에 즈음하여 2024 년 7 월 26 일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동지가 동행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는 조선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승리의 7.27 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여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대승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승사에 고여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군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금별의 위훈으로 간직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혈연적뉴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렬사들의 영생의 넋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맺 는 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9 차전원회의를 마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할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한해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려정을 수놓으시며 2024 년을 위대한 변혁의 해, 도약의 해로 전환시키시였다.

2024 년의 무수한 도전의 고비들과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발전공정들을 경과하면서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잡은것은 조선로동당, 조선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불변의 신념이고 당당한 자부심이며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영광도 그 품에서만 꽃피고 담보된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였다.

하기에 자기 위업, 자기 리상의 성공적결실을 확연히 내다보면서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자주, 자립, 자위의 길로 줄기차게 용진할 신심과 락관을 백배하며 보다 큰 승리에로 향한 거폭적인 전진발전의 힘찬 보무를 내짚었다.

5 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 해 2025 년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의깊은 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5 년은 우리 당이 창건 80 돐을 맞이하는 의의깊은 해인 동시에 제 8 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앞에, 인민앞에 총화짓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개척과 약진의 4 년간을 초월하는 비상한 슬기와 용맹, 책임적인 노력과 줄기찬 분투로 임기의 마지막해인 2025 년을 우리당 령도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공화국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기적적성과들을 쟁취함으로써 당 제 9 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떳떳하게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2024 년의 려정을 통하여 더욱 굳세여지고 승화된 전인민적인 사상감

정이 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려는 강렬한 지향과 열망이다.

인민에 대한 믿음이 령도자의 혁명령도 전 과정에 관통되여있고 령도자에 대한 믿음이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굳어진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혼연일체, 바로 그 위력이 있어 조선인민은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2025 년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해로 력사에 그 이름을 뚜렷이 남기게 될것이다.